

새국어생활

새국어생활

2013년 제23권 제1호 · 봄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013-02-01
정간위 심의필 95-13-4-21

새국어생활 Saegugeosaenghwal
제23권 제1호(2013. 봄) Vol. 188

인쇄일·발행일 2013년 3월 31일

펴낸이 민현식

편집위원 강현화 · 시정곤 · 이정복 · 정희원 · 최경봉 · 한규희

기획 김아영

제작·편집 커뮤니케이션북스(주)

펴낸 곳 국립국어원(www.korean.go.kr)

주소 157-857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방화3동 827번지)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154,
Geumnanghwa-ro, Gangseo-gu, Seoul, Korea

전화 (02) 2669-9775

전송 (02) 2669-9777

ISSN 1225-7168

차례

특집. 매체 변화와 의사소통

누리소통망 서비스 확산과 소통 문화의 변화 3

임영호

매체 변화에 따른 언어 사용 방식의 변화 18

박동근

누리소통망과 새말의 형성 34

이정복

누리소통망의 의사소통 방식과 구조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53

허상희

영어 통신어는 우리말 통신어와 어떻게 다를까? 70

이진성

이곳 이 사람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인문학 소통에도 좋지요

—‘사이의 인문학자’ 김응교 교수를 만나다 89

차익중

어원 탐구

‘생기다’의 어원 106

김무림

우리 소설 우리말

봄날의 풍경—쓸쓸하거나 따뜻하거나 113

한혜경

국어 산책

누리소통망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귀 기울이기 122

이기황

삶과 우리말

충남 사람들의 삶과 말 138

한영목

세계의 언어 정책

독일의 맞춤법 개정 과정과 교훈 147

이진희

국립국어원 소식 163



매체 변화와 의사소통

누리소통망 서비스 확산과 소통 문화의 변화

임영호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1. 서론

아무리 시류에 둔감하다 해도 요새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스마트폰은 길 찾기, 식당 예약, 업무 연락, 온라인 장보기 등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부분에 활용되고 있다.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게 불과 10여 년 전인데, 이제는 인터넷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까지 스마트폰이 파고들어 삶의 영역을 촘촘하게 이어 주는 온라인망을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방식(커뮤니케이션)이나 공동체에 참여하는 방식도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다. 지하철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대학생은 물론이고 어린이, 나이 지긋한 노년층까지도 심심찮게 ‘카카오톡’에 열중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동창회나 계모임을 마련하는 대신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스토리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는 이도 적지 않다.

이처럼 새로운 유행 덕분에 생활 방식이나 인간관계가 더 편해졌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삭막함에 몸서리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인터

넷이나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라는 새로운 기술이 가져온 소통 문화는 이처럼 예찬과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특히 화제가 되고 있는 누리소통망 서비스는 과연 사람들의 소통 방식과 공동체 참여 방식을 어떻게 바꾸어 놓고 있을까? 이 글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탐색이다.

엄격히 말해 누리소통망 서비스라는 소통 방식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은 누리소통망 서비스의 기술적 속성에서만 유래한 것은 아니다. 누리소통망 서비스나 온라인 통신망은 여러 가지 잠재적 기능을 가능하게 해 주는 기술적 바탕일 뿐, 누리소통망 서비스라는 ‘새로운’ 소통 방식의 특성은 사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라는 기술적 잠재력에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형성된 한국적 현상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한국에서는 초고속 통신망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구축되었고 인터넷 이용이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었는데, 이때의 집중적 경험이 없었다면 누리소통망 서비스는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그렇게 확산되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 사회 특유의 환경, 가령 1990년대 이후 한국형 포털의 토론 문화라든지, 짧은 정치 민주화 이후 사회 집단 간 갈등의 표출과 격화, 아이엠에프(IMF) 경제 위기 이후 심화된 계층 갈등, 한국 사회 특유의 연고주의, 집단주의나 배타적 민족주의 등의 문화적 토양 역시 누리소통망 서비스에서 독특한 소통 문화를 형성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누리소통망 서비스의 소통 문화는 바로 이 모든 유산들이 작용한 결과물이다.

2. 소통의 진화와 융합: 누리소통망 서비스는 과연 새로운 소통 방식을 가져왔나?

20세기는 신문과 텔레비전을 주역으로 하는 대중 매체의 시대였다. 대중 매체는 사람들에게 정보와 오락거리를 제공했고, 사람들은 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였다. 정보는 주변의 인맥을 통해서도 비공식적으로 얻을 수 있지만, 대중 매체가 지니는 이름값과 권위, 편의성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서 제공한 정보를 더 신뢰하였다. 이와 달리 사람들 간의 일대일 접촉은 기능적인 의사소통도 중요하지만 대인 관계를 형성·유지·관리하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물론 양자가 엄격히 분리되지는 않지만, 대체로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특히 정보의 대량 전달과 전파가,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관계 형성과 유지가 중심이 되는 분업 구조가 지금까지 우리가 보던 소통 방식의 특징이었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누리소통망 서비스는 과거의 이원화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뛰어넘어 매우 독특하고 새로운 소통 방식을 가져온 듯하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누리소통망 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소통 문화의 탄생이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서 우리는 이전에 흔히 접하던 소통 방식의 흔적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트위터로 뉴스가 전파되는 모습은 과거 방송의 전파력을 연상시키고, 페이스북에서 친구들과 교류하다 보면 이전에 다방이나 동창회에서 나누던 대화를 떠올리게 된다. 다만 과거 대중 매체 시절에는 정보 전달과 대인 관계, 생산자와 소비자, 정보와 오락 등의 기능적 구분이 거의 상식처럼 여겨졌지만, 누리소통망 서비스에서는 이 구분이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전의 소통 채널에 비해 누리소통망 서비스는 훨씬 다양한 기능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해 준다. 누리소통망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은 외국의 전문 잡지나 신문에서 찾은 흥미로운 기사를 서로 돌려 읽고, 나름대로 의견을 붙이며, 지인에게 안부를 묻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기사 내용을 수동적으로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이와 관련된, 혹은 그 주장을 반박하는 추가 정보를 올려 격렬한 토론을 유도하기도 한다. 나아가 누리소통망 서비스에서는 정보가 단순히 인지 차원의 ‘콘텐츠’에 그치지 않는다. 누리소통망 서비스는 같은 내용이라도 풍자·희화적 요소를 가미해 재미있는 말을 만들어 내는 언어유희를 통해 서로 즐거워하는 오락의 장이기도 하다.

즉, 대중 매체의 시대에는 서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던 사회적 기능들이 누리소통망 서비스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때로는 서로 융합된 형태로 전개된다. 과거 어느 휴대 전화 회사 광고에서 ‘토크, 플레이, 러브’라는 문안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는 누리소통망 서비스 소통 문화의 특징을 잘 요약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누리소통망 서비스식 소통 문화는 새롭다면 새롭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누리소통망 서비스가 과거의 소통 방식이 진화·융합해 재구성, 재창조된 것임은 누리소통망 서비스 안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누리소통망 서비스는 소통 기능 측면에서 크게 관계 지향형 누리소통망 서비스와 정보 지향형 누리소통망 서비스로 대별할 수 있는데, 페이스북이 관계 지향형이라면 트위터는 정보 지향적 성격이 좀 더 강하다. 즉, 페이스북은 소통에서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대인 채널에 가깝고, 트위터는 페이스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계에서 익명성이 강하고 정보 확산력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과거의 매스 미디어와 닮은 데가 많다.

페이스북은 주로 ‘아는’ 사람들로 관계망이 형성된다. 따라서 새로

은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에서도 사실은 서로 존재를 확인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는 부수적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반면에 트위터는 소수의 유력 트위터리안이 수많은 추종자를 거느리는 수직적 구조로 되어 있다. 물론 이들 사이에는 공통된 정치 성향이나 취향, 관심사라는 연결 고리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를 따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쉽다. 나와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다시 나의 트위터 연결망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도 내 글을 퍼뜨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과거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 소식이 퍼져 나가던 유언비어 확산 구조와 매우 흡사하면서도, 마치 방송 매체처럼 엄청난 확산력도 지녔다.

이 두 누리소통망 서비스 유형이 공통적으로 과거의 대인 채널과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다른 점도 있다. 무엇보다 소통에 참여하는 ‘송신자’와 ‘수신자’의 역할이 과거와 다르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전에는 매스 미디어가 중심을 차지하고 여기서 정보가 넓게 확산되어 갔다면, 누리소통망 서비스에서는 ‘나’를 중심으로 방대한 인맥과 소통망이 구축된다는 점이 다르다. 나는 내가 맺은 넓은 관계망에서 수많은 정보를 얻는 한 명의 수동적인 소비자에 불과하지만, 동시에 나는 주도적으로 정보를 선별해서 읽고 퍼뜨리며, 때로는 독자적으로 새로운 의제를 만들 수도 있고 나의 의견을 보태 집단적 여론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생산자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시공을 뛰어넘어 온라인망으로 모두 하나로 엮여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개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 개별화된 독특한 다원적 소통 구조가 등장한 셈인데, 이 추세에 대해 웰먼(Wellman)이란 사람은 ‘네트워크형 개인주의(networked individualism)’의 시대라 이름 붙였다. 말하자면 이제 누리소통망 서비스라는 끊임없이 뻗어 있는 정보 관계망의 세계에서 중심은 바로 ‘나’라

는 것이다. 단지 나 외에도 세상의 중심이 무수히 많아 그 누구도 과거의 막강한 언론 매체처럼 이 소통망을 지배하거나 좌지우지하기 어렵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3. 누리소통망 서비스형 소통 방식의 특징

3.1. ‘팩트’와 근거가 실종된 소통

누리소통망 서비스로 연결된 세상에서 소통은 삶의 영역에서 일부를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 시대 흐름을 대표하는 핵심 단어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지만 소통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특정한 목적을 갖고 남을 설득하는 도구적 행위도 소통이고, 서로 웃으면서 따뜻한 느낌과 교감을 나누는 호혜적인 행위도 소통이다. 설득 행위의 전략에서도 그리스 수사학자들의 용어를 빌리면 논리와 근거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로고스, logos), 주로 듣는 이의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도 있으며(파토스, pathos), 말하는 이의 권위와 이름값으로 승부할 수도 있다(에토스, ethos). 누리소통망 서비스식 소통 방식이 엄청나게 빠르고 광범위하게 사람들의 일상에 파고든 덕분에, 이 방식의 장점과 단점 역시 이전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여러 학자들은 누리소통망 서비스식 소통 방식의 특징과 장단점을 따져 보면서, 이것이 우리 사회의 정치 풍토나 소통 문화에 미칠 영향에 우려와 기대 섞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우선 누리소통망 서비스에서는 참여자 간에 소통의 장벽과 문턱이 사라졌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장점은 동시에 단점이 되기도 한다. 과거 대중 매체가 정보와 의견 전달에서 독점적 지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이들이 사회 각 영역의 정보에 가장 깊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중의 참여가 주도하는 누리소통망 서비스라는 새로운 소통 공간에서는 대화의 기반이 되어야 할 사실, 즉 팩트가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무엇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안에서 진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정치 과정에서 논쟁은 언론이 제공한 보도를 토대로 했는데, 비록 해석이나 입장 차이는 다르더라도 이 내용이 어느 정도 ‘팩트’에 근거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언론이 기사 작성에서 사실 판단을 내릴 때에는 공식적인 취재원(정부 기관이나 전문가)에 거듭 확인을 거치고, 이 취재원의 권위에 근거해 수용자들은 이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누리소통망 서비스를 통해 뉴스가 퍼져 나갈 때에는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팩트가 일면적이고 불완전하거나 심지어 부정확할 때도 많다. 원래 여론 형성은 어떤 사안에서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지에 따라서 전개 방향이 달라지기 마련인데, 그나마 사실의 근거조차 불확실할 때에는 여론의 흐름이 어치구니없는 쪽으로 왜곡되기 쉽다. 특히 어떤 누리소통망 서비스에서 유통되는 뉴스가 특정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것일 때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물론 뉴스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사실이 보완·수정되면서 여론이 균형을 잡아 가는 긍정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쪽으로 악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12년에 인터넷과 트위터에서 화제가 된 ‘채선당 폭행녀’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즉, 종업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임신부의 일방적인 주장에 자극을 받은 대중에 의해 해당 식당에 무차별적인 공격이 가해졌다가 이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후에는 다시 화살이 임신부에게 옮겨

아가 가학적인 마녀사냥이 이뤄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론 확산에서 사실의 근거가 빈약한 와중에 사람들은 주로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판단 근거로 삼았을 수밖에 없었으며, 임신부는 약자라는 고정관념이 그 판단을 거의 사실처럼 굳게 믿도록 만들었다는 점이다.

3.2. 소통의 감성화

또한 누리소통망 서비스를 통한 여론 형성 과정에서는 논리와 사실 근거를 갖춘 주장보다는 대중의 감성과 공감에 호소하는 주장이 더 파급력이 커졌다. 즉, 수사학자들의 용어를 빌리자면 ‘로고스’보다는 ‘파토스’가 누리소통망 서비스의 소통에서 지배적인 언어 구사 방식이자 설득 원리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누리소통망 서비스에서 사람들이 주로 화제로 삼는 것은 자신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한 사안이거나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 수준에서 이해하기 쉬운 주제들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할 때뿐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공유할 때도 비슷한 판단이 선별 과정에 작용한다.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고 중요하게 다뤄지는 기사가 아니라, 자신의 잣대나 성향에 맞는 ‘개인화’한 메시지, 아니면 흥미로운 화젯거리로 삼을 만한 것만 선택한다. 이는 과거 대중 매체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기사뿐 아니라 전문가가 국가나 사회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주제를 균형 있게 다룬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서 누리소통망 서비스를 통한 소통에서는 한편으로는 다양한 정보가 주체 못할 정도로 넘쳐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보고 싶은 사안과 관심 있는 측면만 편식하는 집단적 편향성이 발생한다.

특정 사안에 접근하는 태도에서도 이전의 언론과 큰 차이가 있다. 논리적 근거 제시를 통한 설득보다는 감정 이입과 공감에 의존할 때 사

람들은 더 쉽게 동조하고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누리소통망 서비스에서는 화젯거리를 선택할 때뿐 아니라 다루는 방식에서도 희로애락의 감정 표출이 소통 언어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사람들이 훨씬 쉽게 반응을 보이고 공감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소통 구조가 단순화되는 데에는 누리소통망 서비스에서 사용 가능한 언어에 제약이 많다는 점도 원인이 된다. 특히 트위터에서는 140자 이내로 글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논리적 글쓰기가 어렵다. 누리소통망 서비스의 언어로는 산문보다는 시가 적합하고, 함축적이고 정감 있는 글이 위력을 발휘한다. 특히 메시지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는 좀 더 쉬우면서도 자극적이고 효과적인 언어 구사가 필요하다.

감성화한 소통에서 가장 흔한 사례는 앞서 언급한 ‘채선당’ 사건이나 ‘개똥녀’ 사건에서처럼 대개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낼 만한 행위를 한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분노가 형성되고 이러한 감정이 전염성을 지니면서 퍼져 나가 집단적으로 표출되는 형태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여론의 집단적 영향력을 통해 사회악을 단기간에 의제화하고 해결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이성보다는 감정, 특히 집단적 분노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 특히 이처럼 감성화한 여론 형성 과정은 복잡한 세상 문제를 합리적 토론의 장으로 끌어내 다각적으로 조명하기보다는 가해자(강자)와 피해자(약자)라는 이분법적 선악 구도로 단순화해서 보고, 선입관에 맞는 부분만 보려는 선택적 지각에 의존하며, 집단 내 사고의 동질화와 극단화로 흐르기 쉽다는 등의 특징 때문에 우려할 만한 점이 많다. 특히 이 과정은 ‘개똥녀’, ‘지하철 패륜녀’ 등의 여성으로 의인화한 형태로 구성되면서, 여성을 비이성적이고 도덕적 타락의 가능성이 높은 존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문제다.

또한 감정 중심의 소통은 평범한 시민들을 사회적 의제에 참여시키고 대중의 힘을 발휘하게 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긴 하나, 이는 모든 사안에 적용될 수 없다. 모든 쟁점을 옳고 그름이나 선악 구도로 재단할 수도 없다. 분노, 감동과 공감을 동원할 수 있는 주제는 제한적일 뿐 아니라, 때로는 어떤 복합적인 사안에 대해서 관심 유도가 쉬운 방식으로 접근하다보면 사안의 성격을 왜곡·과장·단순화하게 될 우려도 발생한다. 여론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어떤 공적 문제를 도덕적 틀에 따라 구성하게 되면, 토론 과정에서도 다수 의견 외에는 대다수가 침묵하는 바람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의제가 도덕적 틀에 따라 설정되면 그 안에서는 윤리적으로 옳거나 그른 선택 문제만 남지 새로운 틀에서 문제에 접근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소통의 감성화는 여론 형성의 흐름을 바람직하지 못한 엉뚱한 방향으로 비틀어 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4. 공동체의 확대와 파편화

누리소통망 서비스는 사람들 사이를 매개하는 매체의 기술적, 공간적, 경제적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사람들이 직접 ‘대면’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과거의 어떤 매체보다도 혁신적인 소통의 기술이다. 그런데 이처럼 입체적이고 사통팔달인 소통망은 자세히 보면 이 구성원들 간의 ‘관계’라는 결을 따라서 뻗어 있다. 원래는 어디 있는 그 누구든 나와 소통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나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소통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것이 좁게는 취미 동호회든, 정치 결사체이든, 넓게는 지역 사회이든 이렇게 나와 느슨하게 때로는 끈

끈하게 맺어진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일찍이 베니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은 민족과 민족주의의 등장 과정을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라는 용어로 설명했다. 민족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의 특성이 실제로 동질적인지와 무관하게 어떤 매체(18세기에는 신문)가 공동체를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하고 관련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 간에 소속감과 일체감이 형성되었는데, 그 결과로 민족이라는 의식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21세기에는 넓게는 인터넷을 비롯한 온라인, 좁게는 누리소통망 서비스를 통해 서로 소통하면서 형성되는 상상의 공동체를 그려 볼 수 있다. 지식인들은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 덕분에 이전과 달리 경계나 영토, 구심점 등의 제약 없이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대화하고 공감하면서 서로 일체감을 형성해 가는 열린 공동체의 가능성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누리소통망 서비스의 이러한 기술적 잠재력이 실현되는 데 장애 요인들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으며 이미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이 상상의 공동체에는 과거 현실 세계의 여러 가지 사회적 결(젠더, 계층, 언어 차이 등)이 배어들면서 자유로운 소통 공간에 폐쇄적인 칸막이와 균열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 누리소통망 서비스에서 맺은 인맥의 범위와 활동량은 오프라인 세계의 사회적 지위(교육 수준, 경제적 수준, 직업 등)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예상과 달리 누리소통망 서비스의 인맥이 오프라인에 비해 그리 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누리소통망 서비스 활동량에서도 맬컴 글래드웰(Malcolm Gladwell)이 말하는 ‘소수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즉, 여기서도 주동적으로 활동하면서 글을 남기는 사람은 소수이며, 대다수는 수동적인 소

비자나 구경꾼으로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발언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실제로 발언할 능력을 갖춘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탓에 몇몇 사람만 트위터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있다. 트위터에서도 추종자 수가 많은 사람은 주로 공인이나 명사(名士)들이며, 이들은 현실 세계에서 누리던 권력을 여기서도 재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소수의 명사를 대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친밀감을 느끼고 한 방향으로만 소통이 이루어지는 왜곡된 ‘의사상호 작용(para-social)’이 흔히 발생하고 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사람들이 사회적 배경이든 관심사든 공통점을 중심으로 소통 공동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집단 내부적으로는 매우 동질적이거나, 집단 간에는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분절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온라인을 통해 이어지는 거대한 가상 공동체가 아니라 사회적 경계를 따라 파편화된 수많은 폐쇄적 소집단들만 남을 수도 있다. 소통이 넘쳐나지만 정작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는 역설적 현상이 생겨나는 셈이다. 이는 과거 인터넷 토론방이 처음 등장했을 때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 간의 대화가 활성화되고 민주적인 의견 수렴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다수 의견의 폭력과 소수의 침묵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에 비견할 만한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좀 더 미시적인 수준에서 보면, 누리소통망 서비스는 개개인들의 소통 방식에서 극단적인 양상을 동시에 낳을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대화를 주고받는 열린 대화의 장이 조성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소통과 담을 쌓고 지내는 외톨이 문화를 조장하기도 한다. 누리소통망 서비스에서 정보와 소통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 빈곤과 소통의 단절이 발생하게 된 셈이다. 던바(Dunbar)라는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 한 개인이 유지할 수 있는 관계망은 150명이 한계치로 그 이상은 유지·관리하기 어렵다고

한다. 인간의 인지 능력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시로 올라오는 글에 반응하고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다. 끊임없이 웃음 지으며 자기감정을 억제하고 위장해야 하는 서비스업 종사자처럼,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노출되는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식적 소통을 지속해야 한다고 느끼게 된다. 누리소통망 서비스에 무심코 남긴 글 한 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미래에 족쇄로 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소통의 피로감은 더 심해진다. 실제로 요즘 어떤 기업에서는 채용 대상자들의 누리소통망 서비스 활동 기록을 들여다보면서 개인의 과거 행적을 낱낱이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누리소통망 서비스에서 소통은 지인과 만나 가볍게 대화하면서 피로를 푸는 휴식 행위가 아니라 타인에게 비쳐지는 자신의 모습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감정 노동’으로 변하게 된다. 이러다 보니 사람에 따라서는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예 소통을 단절하고 외톨이로 살아가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중 어느 쪽이든 공동체 전체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누리소통망 서비스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5. 맺음말

누리소통망 서비스는 사회를 움직이는 주도 세력의 위치에 대중을 올려놓았고, 이제는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변화시키지 못하면 정치도 기업 활동도 개인의 경력 관리도 쉽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대중의

의견과 참여가 주도하는 환경에서 사회 변화 방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누리소통망 서비스가 가져온 변화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러한 무지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도 않다.

오늘날 인문학이든 사회 과학이든 학자들은 과거의 지식인처럼 시대를 꿰뚫어보고 진단하는 통찰력을 잃고 미시적이고 경험적인 자료에만 매몰되는 전문가로 전락해 가는 경향이 있다. 경험적 지식이 오래 축적되면 이를 근거로 좀 더 세상을 넓고 체계적으로 보는 안목이 생길 것이라 기대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사회 과학자들이 사회 현상의 조그만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연구에 몰두하는 순간에도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 어제의 지식은 쉽게 무용지물로 변하고 있다. 지금처럼 변화와 속도,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환경에서는 전문가뿐 아니라 개인이든 조직이든 변화를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고 늘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누리소통망 서비스처럼 다수가 주도하는 불확실한 소통 문화는 바로 그 일상사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이미 자리 잡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누리소통망 서비스를 통해 전개되는 변화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아직까지 누리소통망 서비스에는 사람들의 막연한 환상, 기대감이 투영되어 과도하게 낙관적인 예측이 넘쳐나고 있어 이러한 불균형을 나름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기술 발전은 여러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잠재력을 풍부하게 갖고 있으며, 실제 변화의 방향은 그러한 잠재력에서 좋은 쪽보다는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는 사례가 많다. 기술 발전에 의해 유발되는 변화란 실험실 속의 과학자가 구상한 논리적 가능성보다는 그 잠재력을 수용하는 사회의 토양에 의해 선별, 변질, 변형, 절충 과정

을 거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리소통망 서비스가 가져오는 새로운 소통 방식에서는 누리소통망 서비스라는 기술적 도구의 잠재력이 구현되는 과정뿐 아니라 우리가 거쳐 온 과거의 정치 풍토, 미디어 관습, 사회적 관행의 흔적을 읽어 낼 수가 있다.

현재 누리소통망 서비스에서 유행하는 소통 관습에서 우리는 누리소통망 서비스의 문제점과 가능성뿐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 중에서 좋은 전통과 고질적 문제점을 모두 성찰하며 새로운 관습과 전통을 만들어 내는 계기를 찾아야 한다. 페이스북에서 드러나는 소통의 편향성은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전통인 내부 순혈주의가 새로운 기술적 환경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로 나타난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다. 누리소통망 서비스라는 새로운 소통 기술의 등장은 단지 기술이 가져오는 새로운 가능성의 축복에 그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 친숙해 문제점을 잘 인식하지 못했던 문화적 토양을 분갈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매체 변화에 따른 언어 사용 방식의 변화

박동근 건국대학교 산학연구처 교수

1. 들어가기

일반적으로 ‘매체(媒體)’란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일체의 도구나 수단을 말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매우 넓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갖는 것은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 쓰기 매체에 한정하고자 한다.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말소리, 즉 음성을 사용하는 것이다. 음성 언어는 의사소통의 1차적인 방법이지만 말하는 즉시 사라져 버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등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이에 인류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무렵 자연스럽게 문자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문자 언어는 의사소통의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자체가 매체는 아니지만 문자를 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도구들이 곧 의사소통을 위한 쓰기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격적인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의 원시 암벽화나 고대 잉카의 결승 문자(結繩文字)에서 ‘암

벽'이나 '끈'은 의사소통을 위한 쓰기 매체가 되는 셈이다. 문자 언어는 음성 언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명되었지만 또 다른 한계를 갖는다. 특히 문자의 초기 단계인 상형 문자는 뜻 글자로 음성 언어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후 문자는 표의 문자, 음절 문자, 음소 문자로 진화하면서 음성 언어에 가깝도록 변화하였다. 문자의 역사적인 발달과 더불어 쓰기 매체 또한 진화를 거듭해 왔다. 문자 이전 단계에 사용하였던 '암벽'이나 '끈'은 '점토판', '대쪽', '양피지', '종이' 등을 거쳐 최근에는 디지털 매체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각 쓰기 매체는 고유한 특성이 있어 쓰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언어 사용에 영향을 준다. 문자 언어가 꾸준히 발전해 왔지만 의사소통 수단으로 음성 언어를 대신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 이는 발달된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쓰기 매체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또는 매체의 속성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쓰기 방식을 모색하게 된다. 최근 디지털 매체의 사용과 더불어 등장한 컴퓨터 통신 언어 역시 쓰기 매체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매체와 언어 변화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고대 오리엔트 지역에서는 쐐기 모양의 설형 문자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설형 문자는 상형 문자에서 발전한 것인데 설형 문자가 쐐기 모양을 갖게 된 것은 쓰기 도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설형 문자를 발명한 것은 수메르인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수메르 지방에서는 점토판에 글씨를 썼는데 이때 침필

그림 1 설형 문자



출처: <http://www.britannica.com/EBchecked/media/110206>

이라고 하는,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든 금속이나 갈대 줄기를 필기도구로 사용하였다. 첩필로 쓴 글자 모양은 자연스럽게 썰기 모양을 갖추었는데 여기에 직선을 추가하여 독특한 문자가 완성되었다. 상형 문자에서 출발한 설형 문자는 점차 곡선을 피하고 직선만을 사용하는 등 상형 문자의 요소가 없어지면서 글꼴이 보다 추상화되었다.

설형 문자의 등장은 글씨를 쓰는 입력 매체인 첩필과 출력 매체인 점토판이 만난 결과로 문자 언어 사용의 변화와 매체의 관계를 잘 보여 준다. 이후 서양 문화권에서 쓰기 매체는 파피루스나 양피지로 바뀌면서 시각적으로 넓은 지면을 확보하게 된다.

그림 2 죽간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3408>

동양에서는 대나무를 일정한 크기로 길쭉하게 잘라 면을 깎고 그 위에 글씨를 썼는데 이를 ‘죽간’이라고 한다. 종이가 발명될 때까지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쪼갠 대나무를 두루마리 형태로 묶은 죽간에 글씨를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글씨는 위에서 아래로 적는 세로쓰기가 되었다. 한자 문화권의 세로쓰기 전통은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서구의 영향으로 가로쓰기 방식으로 바뀌어 갔다.

시대에 따른 매체 사용의 변화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쓰기 방식

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때그때 매체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추구했다. 매체 사용의 변화에 따른 의사소통 방식 변화의 좋은 예로 속칭 ‘삐삐’라고 불렀던 무선 호출기의 사용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무선 호출기 서비스는 1982년 12월 15일 시작되어 1992년 사용 지역이 전국적으로 광역화되었으며 휴대 전화가 등장하기 전까지 폭넓게 사용되었다. 무선 호출기 사용 초기에는 단순히 신호음만을 사용하였으나 숫자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대개 숫자는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숫자 방식의 호출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문자를 비슷한 발음의 숫자로 빌려 쓰는 차자 방식이 유행하였다.

(1) 무선 호출기 차자 방식 사례

1010235	열렬히 사모합니다
2241000045	둘이서 만나요
5825	오빠 미워
2848	이젠 끝내요
0000	보고 싶다
4486	죽도록 사랑해
0124	영원히 사랑해
8255	빨리 와
8282	빨리빨리
222	투덜투덜

이는 미디어가 메시지를 제어한다는 마셜 매클루언(1997)의 말을 입증하는 사례다. 매체가 인간의 상호 의사소통 방식에 기준을 만들어 내고 인간 언어를 제어하는 것으로서, 무선 호출기의 숫자를 이용한 차

표 1 손 글씨, 타자기, 컴퓨터의 글쓰기 방식 비교

	입력	출력	온라인	프로세싱	속도	수정
손 글씨	펜	종이	불가	불가	느림	불가
타자기	자판	종이	불가	불가	빠름	불가
컴퓨터	자판	화면	가능	가능	빠름	가능

자 방식은 컴퓨터가 의사소통 매체의 역할을 하면서 탈어법적인 통신 언어의 사용이 확대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펜 등의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직접 손으로 적는 오랜 쓰기 전통은 근대화 이후 타자기가 발명되면서 키보드를 눌러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다시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이 접목된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큰 변화를 겪는다.

하지만 타자기는 사무나 행정 등 제한된 분야에서만 주로 사용되어 언어 사용 양상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지는 못하였다. 반면에 90년대 들어 사용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컴퓨터는 피시(PC) 통신이라는 온라인 기능이 첨가되면서 단순히 문서를 입력하는 도구에서 벗어나 상호 의사소통을 하는 중요한 매체로 자리 잡는다. 컴퓨터는 입력이나 출력 방식에서 기존의 쓰기 매체와 다르기 때문에 언중은 이에 걸맞은 의사소통 방식을 찾아내게 되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이 컴퓨터 통신 언어이다.

그런데 점토판이나 죽간뿐만 아니라 발달된 컴퓨터 역시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0과 1로 신호를 처리하는 디지털 기반의 컴퓨터는 제한된 수의 글자가 할당된 자판을 이용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한 번에 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모니터를 출력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입력과 출력 면에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는 데 제약이 있다. 또한 기존의 글쓰기가 대체로 일방향적이었던 데 반해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컴퓨터 통신 공간에서 문자가 갖는 표현과 속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은 더욱 절실하였다.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사이버 공간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불투명하고 전에 없었던 ‘시간’과 ‘공간’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사소통 맥락은 새로운 화법과 문자 사용 방식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에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이 바로 컴퓨터 통신 언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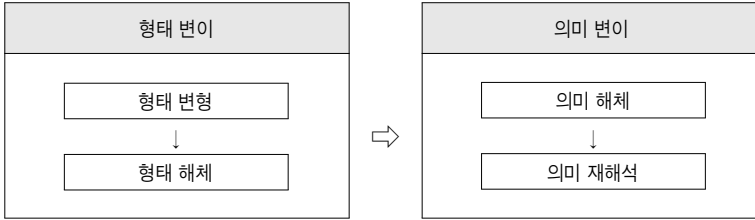
새로운 의사소통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제한된 매체의 기능을 활용한 최적의 의사소통 방식을 고민해 왔다.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거나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언어 표현 방식을 고안해 냈다.

3. 온라인 매체의 등장과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

숫자 정보만 제공하던 무선 호출기는 뒤에 한글 문자 서비스 기능을 추가하였으나 지금은 이용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 무선 호출기는 의사소통의 일방향성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 반면, 온라인이 접목된 새로운 매체인 컴퓨터는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컴퓨터는 역시 입력이나 출력 면에서 여전히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스럽게 출현한 것이 컴퓨터 통신 언어이다.

박동근(2012)은 통신 언어의 변화 양상을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그림 3 통신 언어 유형의 변천 양상



첫 번째는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전후의 특징인 형태 변형 단계로, 주로 언어 경제적 동기에 의한 축약이나 생략, 언어유희적 동기에 의한 첨가나 구어적 특성을 보인다. 표정 문자(이모티콘)도 통신 언어 초기 단계에 등장한다. 컴퓨터 통신 언어의 전형적인 모습들은 대개 이때 형성된다.

- (2) ㄱ. 축약: 어썩요, 추카추카, 방가방가, 고딩, 썸, 올, 땡
- ㄴ. 생략: 비번(비밀번호), 알바(아르바이트), 쌤(선생님), 썸(시험)
- ㄷ. 첨가: 안녕하세염, 어럽당
- ㄹ. 구어적 특성: 가께(갈게), 알았어여(알았어요), 차카다(착하다)
- ㅁ. 표정 문자: :-), ;-), ^^, ㅠ.ㅠ

컴퓨터 통신 언어 역시 과거에 다른 쓰기 방식이 모색해 왔던 것처럼 매체가 갖는 의사소통의 한계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컴퓨터 통신이 갖는 쌍방향의 의사소통은 채팅으로 대표되는 실시간 대화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제한된 시간에 많은

대화를 주고받기 위해서 빠른 입력이 필요하였으며 문자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입말과 같은 대화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구어적 속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후 통신 언어는 의사소통 기능보다 언어유희적인 면이 강조되어 ‘외계어’라고 불리는 형태 해체 단계나 의미 해체의 단계를 거치고, 최근에는 메시지에 초점을 두는 의미 재해석 단계로 변화하고 있다.

의미 재해석 단계에서는 어휘 해석상 기존의 어휘에 ‘긍정’, ‘부정’의 사회적 가치를 더하거나 기존 어휘를 강조·과장하는 등 새롭게 의미를 부여한다(박동근 2012).

(3) ㄱ. 구자철 폭풍 트윗했네요.

ㄴ. 대륙의 흔한 길거리 예술

ㄷ. 김혜수 망언 “내 코 너무 낮아”

(3ㄱ~ㄷ)의 밑줄 친 낱말들은 고유한 의미가 있지만 최근 통신상에서는 재해석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3ㄱ)의 ‘폭풍’은 ‘폭풍 X’의 형태로 쓰여 ‘X가 뛰어난’의 의미를 갖는다. (3ㄴ)의 ‘흔하다’는 ‘흔한 X’의 형태로 단순히 쉽게 접할 수 있다는 본래 의미와 달리 반어적으로 낮설고 기이한 현상을 가리킬 때 쓴다. (3ㄷ)의 ‘망언’ 역시 주로 연예인들이 자기의 외모를 겸손하게 낮추어 말할 때 이에 반어적으로 반응하는 표현이다. 이들은 관용적 표현과 같이 대개 형태적 고정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흔하다’가 재해석된 통신 언어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관형형인 ‘흔한 X’의 형태로 사용한다.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친 다른 온라인 매체로 이동 통신의 문자 메시지를 들 수 있다. 문자 메시지 서비스는 최근 ‘카카오톡’이나 ‘마

이피플과 같은 스마트폰의 문자 앱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단문을 주고 받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 특히 통신비에 부담을 갖는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대안이 되었다.¹⁾ 하지만 한 번에 80자의 제한된 메시지만에 보낼 수 없다는 점과 숫자판을 전용하여 문자를 입력하는 불편함은 감수해야 했으며 이러한 단점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언어 표현 방식을 찾게 되었다. 문자 메시지를 사용할 때는 가능한 한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며, 입력 글자 수를 줄이기 위해 겹받침의 사용을 자제한다. 웬만한 오타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일상이다. 문자 메시지는 대개 쌍방향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대화에 가깝다. 하지만 일상 대화에서 중요한 소통 정보인 억양이나 표정 등의 맥락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소통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제약은 특히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메시지인 ‘긍정’, ‘부정’의 정보가 잘못 전달될 여지가 있다. 이에 문자 메시지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표시하기 위해 내용 뒤에 ‘^^’나 ‘ㅎㅎ’, ‘ㅋㅋ’ 등을, 부정적인 의미를 표시하기 위해 ‘ㅠ.ㅠ’를 덧붙이는 것이 보편적이다. 또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은 친근감을 표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컴퓨터 기반 온라인 매체의 등장은 새로운 글쓰기의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수제작물(UCC) 등 다양한 시각 매체의 등장으로 진부한 글쓰기는 쇠퇴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으나 21세기 초기 글쓰기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 하루에 수십 통씩 보내는 문자 메시지가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글쓰기, 신문 기사에 댓글을 다는 일은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글쓰기 행위들이다. 온라인

1) 문자 메시지의 활성화는 ‘엄지족’이라는 새말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매체가 우리에게 글을 쓰도록 유혹하는 것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과 달리 양방향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 글쓴이 입장에서 독자의 즉각적인 반응은 글쓰기를 부채질한다. 글쓴이는 블로그에 올린 글에 달린 댓글이나 페이스북의 ‘좋아요’ 반응에 주목하며 더 많은 팔로워를 끌어들이기 위해 매력적인 글쓰기를 한다.

데이비드 크리스털(2011)이 그의 저서 《문자 메시지는 언어의 재앙일까? 진화일까?》에서 문자 메시지는 인간의 창조적인 언어학적 능력을 보여 주는 현상으로 소규모로 일어난 언어의 진화라고 규정했듯이 온라인 매체의 등장으로 언어는 그에 걸맞은 새로운 방식의 언어 진화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4. 매체 기반 언어의 탈매체화

2001년 7월 24일 《조선일보》에는 컴퓨터 통신 언어에서 유래한 축약어들을 국어사전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김광해 교수와 노형남 교수의 대립되는 주장이 실렸다.

컴퓨터 통신 언어에서 유래한 축약어들을 국어사전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에 선 김광해 교수는 어차피 언어는 변하기 마련이고 또한 통신 언어의 사용과 확산을 막을 방법이 없고, 아직 대학생의 정식 문서에서 통신 언어로 인해 걱정할 만한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외국인이 우리말을 배우다가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찾아볼 수 있도록 당연히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통신 언어의 국어사전 수록을 반대한 노형남 교수는 속어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언어 패권주의로 통신 언어가 언어를 대체하는 위험한 상황으로까지

치달을지 모르며 더 이상 돌이키기 어려운 지점에 다다르기 전에 사회
총체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술병과 담뱃갑에 새겨진 위험
경고처럼 언어 규범을 파괴하는 일이 민족의식 상실과 직결된다는 경
고문을 모니터에 게시하거나 통신 언어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통신 언어를 국어사전에 수록하는 문제는 통신 언어의 장단점이나 유
해성 여부를 떠나 제도권 언어로 흡수되었느냐 아니냐 또는 얼마나 지
속성을 갖느냐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박동근(2001)은 통신 언어의 유형을 크게 ‘말’에 관한 것과 ‘글’에 관
한 것으로 구분한 바 있다.

- (4) ㄱ. 생일 추카 겐 땡기풀이 겐
 ㄴ. 구럼 궁물 끓이시구여……

- (5) ㄱ. 웬지 모르게 기분이 안 조아엿
 ㄴ. 이쁜 꿈 꾸세엿

- (6) ㄱ. 강추해서 왔습니다
 ㄴ. 알바 하는 게 뭐가 좋다구

- (7) ㄱ. 게시판 도배 금지
 ㄴ. 모두 잠수를 했었나 보죵

(4)~(7)은 모두 통신 언어 초기의 사례들이다. (4)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통신 언어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규범적인 맞춤법과 표기가 다를

뿐 입말로는 차이가 없어 언어 자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전에 수록하는 문제도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 방식에 따르면 이미 사전에 수록된 것으로 충분하다. 반면에 (5)의 경우 어미가 다른 형태로 변한 것이어서 만약 ‘-엎’이나 ‘-엎’이 일상의 입말에서 널리 사용된다면 표기인 ‘글’의 차원이 아닌 ‘말’이 변한 것으로 국어사전에 수록하는 문제를 고민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엎’이나 ‘-엎’이 통신상에서 문자 언어로는 사용되지만 언어유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여전히 일상의 입말에서 널리 사용되지는 않는다. 반면에 (6)의 ‘강추’나 ‘알바’ 등은 통신상에서만 아니라 일상 구어에서도 널리 사용된다. 대학생들에게 격식을 갖추어 발표를 시켰을 때조차 아무 거리낌 없이 ‘강추’나 ‘알바’ 등의 준말을 사용한다. (7)의 ‘도배’나 ‘잠수’는 의미가 변한 말인데 십수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용하며 일상 언어에서도 통신상에서 사용되던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컴퓨터 통신상에서 사용하던 많은 말들이 실제 매체를 벗어나 일상 언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통신상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던 준말의 조어 방식은 최근에 일상 언어에서도 널리 사용하고 있다. 조금 긴 문장의 방송 프로그램은 대응하는 준말을 갖는 경우가 적지 않다.

- (8) ㄱ. 개그 콘서트 → 개콘
- ㄴ. 무한도전 → 무도
- ㄷ. 롤러코스터 → 롤코
- ㄹ. 해를 품은 달 → 해품달

이제 대학생들은 웬만한 과목명이나 학과 이름, 학교 건물 이름 등

은 대부분 줄여서 말한다.²⁾ 준말의 적극적인 사용은 통신 언어가 일상 언어의 변화에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사례로 들 만하다. 통신 언어가 탈매체화되는 것은 이제 컴퓨터 통신이 더 이상 특별한 의사소통 방식이 아니라는 점도 한몫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11)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만 3세 이상 인구의 78.0%가 인터넷 사용자이며 연령에 따른 쓸림 현상도 크지 않다. 전 국민이 대부분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 이제 통신 언어를 접하는 일이 특정 범주의 사람들에게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책상 앞에 앉아 사용하던 인터넷 통신은 최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피시(PC) 등 휴대하기 편리한 통합 매체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늘 함께하는 매체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통신 언어와 일상 언어의 경계가 더욱 불투명하게 되었다. (8)과 같은 준말 유형의 출처가 통신 상에서 발생한 것인지 일상 언어에서 출발한 것인지는 사실상 확인하기 어렵다.

5. 맺음말

컴퓨터 통신 언어의 발생 초기에 통신 언어가 우리말을 황폐화시키고 언중의 어문 규범 능력을 퇴화시킨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통신 언어는 컴퓨터 통신상에서 매체의 특성에 따라 언중이 자율적으로 발전시켜 온 언어 사용 방식으로 문자 언어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대안이었다.

2) 이는 최근에 각종 명명 방식이 구 이상 단위로 길어져 경제적으로 줄여서 말할 필요가 생긴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고대의 설형 문자나 죽간뿐만 아니라 최근의 무선 호출기 등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이 역사적으로 문자 언어는 쓰기 매체에 따라 적절한 쓰기 방식을 스스로 모색해 왔다. 컴퓨터를 사용한 의사소통은 입력 방식이나 출력 방식뿐만 아니라 소통 방법 면에서 기존의 매체와 구별된다. 매체의 복잡성은 결과적으로 통신상에서 언어 파괴라고 불릴 만큼 급작스러운 언어 사용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역시 의사소통 도구로 매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적화한 의사소통 방식을 찾기 위한 시도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인문학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컴퓨터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할지 예측하는 일은 쉽지 않다. 컴퓨터 자판이 지금 같은 형태를 유지하게 될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변화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 문자 언어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첫째 가치로 두고 그에 걸맞은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 믿는다.

참고 문헌

- 김유중(2003), 디지털 시대의 글쓰기, 《인간연구》 4, 81~104, 가톨릭대학교 인간연구소.
- 김정자(2005), 매체 환경의 변화와 표현의 문제, 《새국어생활》 15-2, 국립국어원.
- 데이비드 크리스털(2011), 《문자 메시지는 언어의 재앙일까? 진화일까?》, 알마.
- 마셜 매클루언 저, 박정규 역(1997), 《미디어의 이해-인간의 확장》,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동근(2001), 통신 언어의 유형에 따른 언어학적 기능 연구, 《어문학연구》 11, 0~16, 상명대학교 어문학연구소.
- 박동근(2011), 도구 유입에 따른 어휘 의미 변화-컴퓨터 사용과 관련된 용어의 의미 변이를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19-1, 9~82, 한국사회언어학회.
- 박동근(2012), [X-남], [X-녀]류 통신 언어의 어휘 형성과 사회적 가치 해석, 《사회언어학》 20-1, 27~56, 한국사회언어학회.
- 이정복(2003), 《인터넷 통신 언어의 이해》, 월인.
- 이정복(2009), 《인터넷 통신 언어의 확산과 한국어 연구의 확대》, 소통.
- 이정복(2011), 인터넷 통신 언어 실태와 세대 간 의사소통의 문제, 《배달말》 49, 29~69, 배달말학회.
- 이정복(2012), 스마트폰 시대의 통신 언어 특징과 연구 과제, 《사회언어학》 20-1, 177~211, 한국사회언어학회.
- 조오현·김용경·박동근(2002), 컴퓨터 통신 언어 사전, 역락.
- 한국인터넷진흥원(2011), 《2011년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 허재영·조미숙·박동근(2005), 《교양 작문의 이론과 실제》, 박이정.

디지털 한글 박물관 : <http://www.hangeulmuseum.org>

누리소통망과 새말의 형성

이정복 대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머리말

2004년 애플의 ‘아이폰’ 이후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모바일 인터넷 매체가 급속히 발달하여 사람들은 움직이면서 실시간으로 ‘누리소통망(SNS, Social Network Service)’¹⁾에 접속하여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빠르게 주고받는다. 친구를 만난 자리에서 대화에 집중하기보다는 스마트폰 등으로 트위터(www.twitter.com), 페이스북(www.facebook.com), 블로그, 카페 등의 ‘인터넷 언어공동체’에 접속하여 각기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즐기는 모습도 드물지 않다. 현실 공간과 인터넷, 인터넷 안의 한 누리소통망에서 다른 누리소통망으로 빠르게 이동하며,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 사람들은 ‘멀티플레이어’로서 ‘다채널 소통’을 자유자재로 해 나간다. 이러한 누리소통망은 한국

1) ‘SNS’에 대한 번역어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 ‘사회(적) 소통망’이 많이 쓰이며, 국립국어원에서는 ‘누리소통망(서비스)’으로 순화하였다. 필자는 평소 ‘사회적 소통망’을 쓰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잡지의 성격을 고려하여 ‘누리소통망’으로 바꾸어 쓴다.

사회에서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높고, 언어 사용에서도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이 수동적인 읽기 및 듣기 매체인 것과 달리 누리소통망은 읽기, 듣기와 함께 능동적인 쓰기 활동이 가능한 매체다. 실시간 소통망의 증가와 일상적 활용으로 한국어 화자들이 읽기와 쓰기 활동을 활발히 해 나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언어적 상호 작용의 질적·양적 변화가 나타난다. 맞춤법 의식 및 어문 규범에 대한 태도 변화, 새말의 대량 발생과 확산, 기존 어휘와 문법의 변형과 재창조, 말놀이의 생활화와 재미 위주의 언어 사용 일상화 등 언어 사용과 구조에서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인터넷의 본격적 사용은 ‘제2 인터넷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의 삶과 언어 생활에 획기적 영향을 끼친다.

영국의 세계적 언어학자인 크리스털(D. Crystal)은 《언어 혁명》에서 ‘영어의 세계어화’, ‘사라지는 언어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언어 사용’이 21세기의 세 가지 언어 혁명의 하나라고 지적하였다. 누리소통망은 인터넷 언어 사용의 중심 마당이 되었고, 오랫동안 인쇄 매체를 통한 글말 중심의 문화에서 수동적 읽기에 몰두하던 사람들을 수다쟁이 누리꾼으로 바꾸어 버렸다. 누리소통망에서 사람들은 말없이 지낼 수 없으며, ‘통신 언어’라는 새로운 말을 읽고 씀으로써 하나로 접속되고 연결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 트위터 등의 누리소통망 공간은 블로그, 인터넷 카페와 함께 현대의 ‘말 놀이터’이자 ‘말 공동체’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장년층과 노년층까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KakaoTalk) 등의 누리소통망에 접속하여 재미있는 이야기를 올리고, 새말을 만들어 내며, 말놀이를 일상적으로 즐기는 상황

이다. 21세기 한국어 화자들에게 누리소통망에서의 언어 사용은 휴식을 취하고 재미를 누리며 정보를 얻기 위한,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다. 이제는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누리소통망이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언어 사용 환경의 변화에 주목하여, 이 글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누리소통망 안에서 만들어지거나 사용빈도가 높은 새말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새말의 쓰임 영역 및 형성 방식 면에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고, 새말의 의미와 구성 방식, 발생 및 쓰임 배경 등을 설명하겠다. 이를 통하여 누리소통망에서 얼마나 많은 새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의미 맥락에서 쓰이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쓰임 영역에 따른 새말의 이해

누리소통망에서 많이 쓰이는 새말들을 ‘대인 관계 및 소통’, ‘사회생활 및 정치 상황’, ‘누리소통망 사용’의 세 가지 쓰임 영역에 따라 제시하고, 의미와 용법을 설명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새말들이 모두 누리소통망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확증은 없지만 사용자들이 즐겨 쓰고 있는 점에서 ‘누리소통망의 새말’로 다루는 것이다. 또한 ‘토닥토닥’, ‘급신급신’ 등은 국어사전에 이미 실려 있고 의미 차이도 없지만 누리소통망에서 활발히 쓰이는 점을 고려하여 새말에 포함하였다.

2.1. 대인 관계 및 소통

누리소통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대화를 나누는 환경에서 사람의 행동, 대인 관계, 소통 행위 등과 관련된 새말을 많이 만들어 쓴다.

대표적인 새말들을 제시하고, 몇 가지 쓰임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다.

(1) 대인 관계 및 소통 관련 새말

가.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오다), 개객기(개새끼), 개드립(이치에 맞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말), 굿밤(좋은 밤), 귀척(귀여운 척), 극강(최고의),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 금사빠(금방 사랑에 빠지다), 급당황(갑자기 크게 당황하다), 까방권(까임 방지권), 깜놀하다(깜짝 놀라다), 꿀밤(꿀처럼 달콤한 밤), 꿀잠(꿀처럼 달콤한 잠), 남자사람/여자사람(남자/여자), 남치니/여치니(남자친구/여자친구), 넌씨눈(넌 씨발 눈치도 없냐?),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답만 해), 돌직구(직설적이고 강한 말), 레알(정말, 진짜), 맛집/맛저(맛있는 점심/저녁), 멘붕/멘탈붕괴(큰 충격으로 정신이 무너진 상태), 무한분노(크게 분노함), 물빨훔(물고 빨고 훔다), 반모(반말 모드), 베프(베스트 프렌드), 부농/빈농(연애 중인 상태/연애를 하지 못하는 상태), 불금/불토(불타는 금요일/토요일), 비매너(예의가 없음), 비추(추천하지 않음), 비호감(호감이 가지 않음), 섹드립(성 관련 글), 솔까말(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스릉혼드(사랑한다), 애정하다(좋아하다, 사랑하다), 어장관리(다수의 이성과 만나기), 엄빠(엄마 아빠), 열폭(열등감 폭발), 정줄놓(정신 줄을 놓다), 쥼알/쥼라(제발), 좇망(크게 망함), 즈럼하다(말이나 행동에 품위가 없거나 이치에 맞지 않다), 즐주/즐토/즐휴(즐거운 주말/토요일/휴일), 차도남/차도녀(차가운 도시 남자/여자), 초얼짱(아주 얼굴이 예쁜

사람), 케미돈다(잘 어울리다), 토닥토닥/쓰담쓰담(등을 두드리며 위로하는 동작/사랑스럽게 쓰다듬는 동작), 폭풍감동/폭풍설사/폭풍흡입(크게 감동함/강한 설사/빠르게 먹음), 화떡녀(화장을 떡칠한 여자), 행쇼(행복하십시오), 흠좀무(흠 좀 무섭네)

나. 어제 짝 재방을 보는데... 확실히 남자중엔 **금사빠**가 많은 듯...

다. 근데 **답정너**들은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몰라... 그냥 냅두던가 안보던가해야지.

라. 컨디션 안 좋아 보이던데... 그 와중에도 팬들에게 인사하는 장근석!!!! **레알** 멋지심~~!!!**애정한다**~~~♡♡

마. 과제 저장은 유에스비에다가도 해놓고 컴에다도 해놔 언니 과제 하던거 다 날라갔을때 **멘붕**ㅋㅋㅋㅋㅋㅋㅋㅋ

(1가, 나)의 ‘금사빠’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나 행위와 관련되어 쓰이는 말이다. (1가, 다)의 ‘답정너’는 이미 정해 놓은 답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상황과 관련되며, 주관적 생각이 강한 사람을 비판할 때 쓰인다. (1가, 라)의 ‘레알’은 영어 ‘real’과 스페인 축구팀 ‘레알마드리드’의 ‘레알’이 연결되면서 ‘정말’, ‘진짜’의 뜻을 갖는다. ‘애정하다’는 ‘좋아하다’ 또는 ‘사랑하다’를 신선한 느낌으로 표현하는 말인데, ‘좋아하다’의 의미를 강조할 수도 있고 ‘사랑하다’의 뜻을 재밋고 장난스럽게 표현하는 효과도 있다. (1가, 마)의 ‘멘붕’은 ‘멘탈(mental)’과 ‘붕괴(崩壞)’가 합쳐진 말로, 어떤 일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아 아주 혼란스럽거나 좌절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멘붕 상태’, ‘멘붕 중’, ‘멘붕하다’, ‘멘붕되다’, ‘멘붕이다’, ‘멘붕 오다’, ‘멘붕시키다’ 등의 여러 가지 형식으로 쓰인다.

(1가)의 새말 몇 가지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면, ‘개드립’은 부정적 의미의 ‘개’와 ‘애드립’(즉흥적 대사)이 합쳐진 말로 이치에 맞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가리킨다. ‘까방권’은 ‘까임 방지 권리’의 뜻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갖는다. ‘맛점’은 ‘맛있는 점심’, ‘맛있게 점심 드세요’의 줄임말이다. ‘불타는 금요일’을 줄인 ‘불금’은 다음날 학교나 직장 갈 걱정 없이 금요일 밤에 클럽 같은 데서 마음껏 즐긴다는 뜻이다. ‘스릉혼드’는 ‘쓰릉혼드’로도 쓰이며, ‘사랑한다’의 모음을 모두 ‘으’로 바꾸어 적는 ‘모음 바꾸기’에 해당한다. 입을 다물고 어금니를 짹 깨물며 말하는 느낌을 주며,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엄마 아빠’를 줄인 ‘엄빠’는 중 고등학생 및 20대 초반의 젊은 누리꾼들이 집중적으로 쓰는 말이다. 재밌고 신선하며, 재미 있게 만들어진 이러한 새말들은 기본적으로 오락적 동기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그 가운데서 ‘갑툭튀’, ‘급당황’, ‘넘사벽’ 등 짧게 줄인 말은 경제적 기능이 특히 강하고, ‘개객기’, ‘개드립’, ‘넌씨눈’, ‘쫄망’ 등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심리적 해방 동기와 기능에서 잘 쓰인다.²⁾

2.2. 사회생활 및 정치 상황

(2가)는 사회생활 및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쓰이는 새말의 목록이고, (2나~마)는 그 가운데 일부의 구체적 쓰임 사례이다.

(2) 사회생활 및 정치 상황 관련 새말

가. 개한민국(‘대한민국’의 비하 표현),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

2) 통신 언어의 다섯 가지 발생 동기와 기능에 대해서는 이정복(2003)의 2장을 참조할 수 있다.

끝짱토론(끝을 볼 때까지 하는 토론), 나꼼충(‘나는 꼼수다
 칭취자’의 비하 표현), 맞짱토론(일대일로 맞서 싸우듯 하는
 토론), 백토(백분 토론), 소셜테이너(social entertainer: 사
 회 참여적 연예인), 수꼴(보수꼴통: 지독한 보수주의자), 시
 월드/처월드(시가/처가), 신상털기(개인 정보 밝히기), 야
 빠(야구 경기에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 오래방(오락실 노
 래방), 의느님(하느님 수준의 의사), 일베충(‘일간베스트저
 장소 이용자’의 비하 표현), 잉여/잉여짓(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행위), 종북좌빨(북한을 추종하는 좌파 빨갱이), 좌
 빨(좌파 빨갱이), 좌좀(좌빨 좀비), 즐퇴(즐겁게 퇴근), 칼퇴
 (칼같이 정시에 퇴근), 호갱님(호구 고객)

나. ○○○의 은퇴는, 한 독불장군형 정치인의 은퇴가 아니라,
 ‘깨시민’이라는 다소 경멸적인 언어로 호칭되는 일련의 세력
 들의 정치적 프로젝트가 벽에 산산이 부서졌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다. 어머니는 날 낳으시고, 의느님은 날 만드셨네.

라. 안녕하세요 ‘나도칼퇴하고싶당’ 당주입니다. 야근 많이 하시
 는 트친님들, 같이 이야기하면서 서로 힘이 되어 주자구요!

마. 1백만원짜리 에어컨이나 냉장고는 수년을 사용하는데… 백
 만원짜리 휴대폰에 대한 과소비… 무언가 바보가 되어가는,
 호갱님이 되어가는 느낌….

(2가, 나)의 ‘깨시민’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
 된 힘입니다”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에서 ‘깨어 있는 시민’을 줄인
 표현인데, 201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많이 쓰였다. 본래의 뜻과 달

리 열정과 신념 과잉의 자기중심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의도로 쓰인다. (2가, 다)의 ‘의느님’은 ‘의사’와 ‘하느님’이 합쳐진 말로 성형 수술 실력이 ‘전지전능한’ 하느님 수준으로 뛰어나다는 뜻을 가지며, 성형 수술한 여성들을 비난하는 맥락에서 쓰인다. ‘유느님’ (유재석+하느님)도 같은 구성이지만 조롱이나 비하의 뜻은 없다. (2가, 라)의 ‘칼퇴’는 직장인들이 정해진 시간에 ‘칼같이 정확하게’ 맞추어 퇴근하고 싶다는 염원에서 만들어 쓰고 있다. (2가, 마)의 ‘호갱님’은 바가지 쓰는 ‘호구’³⁾ 고객을 가리키는 말이다. ‘호구+고객’에 ‘-님’이 결합되면서 자음동화가 일어난 형식이며, 가격 차이와 변동이 큰 전화기 구입과 관련되어 많이 쓰인다.

이러한 말 외에도 ‘수꼴, 중복좌빨, 좌썰’ 등 정치 영역에서 쓰이는 새말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런 새말들은 페이스북보다는 트위터에서 잘 쓰인다. 페이스북은 주로 일상 공간에서 잘 아는 사람들이 소식을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곳인 반면 트위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곳이다. 이 때문에 정치 관련 새말들은 대부분 트위터에서 만들어지고 널리 퍼지는 모습이다.

2.3. 누리소통망 사용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이 생김으로써 그것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관련 용어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만들어져 쓰인다. 페이스북과 관련된 것은 얼마 되지 않고 트위터에서 쓰이는 것이 훨씬 더 많다. 트위터의 소통 방식이 더 복잡하여 공식적으로 쓰이는 기능 용어가 많고, 사용자들이 대규모로 연결되어 소통하는 상황

3) 호구(虎口):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에서 다양한 비공식적 용어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3) 누리소통망 사용 관련 새말

가. 제삭/계폭(계정 삭제/폭파), 구알티/수동알티(수동 전달), 뉴스피드(페이스북의 새소식이 올라오는 공간), 담벼락(페이스북 사용자별 게시판), 답멘(대답 멘션), 당주/부당주(트위터 소모임 대표/부대표), 떼멘(연속적으로 올리는 멘션들), 리밋/리미트(일시 사용 정지), 맞블락(서로 차단하기), 맞언팔(서로 구독 끊기), 맞팔(서로 구독하기), 멘션(댓글, 답글), 무한알티(끝없이 전달하기), 미친(미투데이 친구), 벽돌을 던지다(구독 해지하다, 구독 차단하다), 봇트윗(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올리는 트윗), 블락/블록(구독 차단하기), 선멘(먼저 보내는 멘션), 선팔(먼저 구독하기), 세컨계정(두 번째 계정, 부계정), 섹트(섹스 트윗), 수그리족(머리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 스압(스크롤 압박: 내용이 길어서 화면을 아래로 내려야 하는 상황), 시간줄/시간표(타임라인), 알바계정(정치 선전, 광고 등을 대행하는 계정), 알티(전달하기), 언팔(구독 끊기), 얼책(페이스북), 욕트(욕설 트윗), 인용알티(의견을 더해서 전달하기), 자동트윗(봇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올리는 트윗), 좋아요(게시글이나 댓글에 대한 긍정적 반응 표시), 친추(친구 추가), 카스(카카오스토리), 카톡(카카오톡), 컴트윗/폰트윗(컴퓨터/휴대폰으로 하는 트윗), 타임라인/탐라/탐란/탐라인(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게시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공간), 트위터리안/파워 트위터리안(트위터 사용

자/유명 트위터 사용자), 트윗/봣/봣/트윗글(트위터에 쓴 글), 트윗절친(아주 친한 트위터 친구), 트윗중계(트위터로 중계), 트윗질(트위터 사용), 트잉여(트위터 잉여: 트위터에서 빈둥거리는 사람), 트친/트윗친구(트위터 친구: 서로 구독하는 트위터 사용자), 트친소(트위터 친구 소개), 트통령/트윗대통령(트위터 대통령; 트위터 인기 사용자인 이외 수 씨를 가리키는 말), 팔로우(구독하기), 팔로워(내 계정 구독자), 팔로잉(구독하는 계정), 페이스북(페이스북), 페이스북질(페이스북 사용), 페친/얼친(페이스북 친구), 폭트(빠르게 연속해서 올리는 트윗), 플사/플픽(사용자 프로필 사진)

나. 근데 나나님은 트친으로 리스트에 올려 있는데 왜 언팔이 되었는데지 이해불가!! 오늘 300명정도 벽돌을 던지다 보니 제가 헛갈렸나봅니다.

다. 이 글 알티해 주시는 분들 모두 맛팔해드립니다~

라. 늘 슬픈 말만 뱉어 대거나 자기 자랑만 뱉어대는 트친에게는 더이상 끼어들 틈이 없다.

마. 내가 아는 트윗커플들은 폭트하거나 계폭하거나 잠수타거나.ㅋㅋ

(3가, 나)의 ‘벽돌을 던지다’는 트위터 계정 구독을 해지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기 계정을 구독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뜻한다. 트위터에서 일방적으로 정치나 광고 트윗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계정에 대해 이런 행위가 많이 일어난다. (3가, 다)의 ‘알티’는 트위터 공식 기능 용어 ‘retweet’의 줄임형 ‘RT’를 한글로 적은 것이며, 다른 사람의 글을 전달한다는 뜻이다. ‘맛팔’은 ‘맞+팔로우(follow)’⁴⁾가 줄어든 구성으로 트위터에서 서

로 구독자 관계가 되는 것을 가리킨다. (3가, 라)의 ‘트친’은 ‘트위터 친구’의 줄임말이며, ‘페이스북 친구’는 ‘페친’ 또는 ‘얼친’(얼굴+친구)이라 부르고, ‘미투데이 친구’는 ‘미친’으로 줄여 쓴다. (3가, 마)의 ‘폭트’는 ‘폭풍 트윗’을 줄인 말로 여러 글을 빠르게 올리는 것을 말한다. 일방적 독백 글을 연속해서 많이 올리면 구독자들의 타임라인이 특정인의 글로 ‘도배’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들은 불편함과 거부감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계폭’은 스스로 트위터 계정을 해지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신고로 정지당하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

한편, 누리소통망 사용 관련 새말 가운데서 ‘답벼락’은 페이스북에서 쓰는 공식 용어이며, 사용자별 홈페이지 게시판을 가리킨다. 최근에는 트위터의 ‘타임라인’ 기능을 도입하면서 ‘답벼락’ 대신 ‘타임라인’으로 바뀌고 있다. ‘좋아요’ 또한 페이스북에서 쓰이는 기능 용어인데, 다른 사람의 게시글이나 댓글을 읽었다는 사실과 내용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함께 드러내는 것이다. 누리소통망의 하나인 카카오톡(KakaoStory)에서는 ‘좋아요’뿐만 아니라 ‘멋져요, 기뻐요, 슬퍼요, 힘내요’라는 다양한 반응 표시를 두고 있다. 트위터에서 쓰이는 기능 용어 ‘멘션(mention)’은 수신자를 지정하여 보내는 댓글이나 답글 트윗을 가리킨다. 누리꾼들은 먼저 보내는 멘션을 ‘선멘’, 답으로 보내는 멘션을 ‘답멘’이라고 한다.

4)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follow’를 ‘폴로(운동 용어)’로 적은 것과 달리 트위터 한국어 페이지에서는 ‘follow’를 미국식 발음에 가까운 ‘팔로우’로 적고 있다.

3. 형성 방식에 따른 새말의 이해

앞 장에서 본 새말들을 형성 방식 면에서 ‘파생, 합성, 줄임, 형태 바꿈, 의미 바꿈’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3.1. 파생 및 합성

파생에 의한 새말은 합성, 줄임 방식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잘 알려진 접사가 결합된 새말들이 꾸준히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보기를 들면 (4)와 같다.

(4) 파생에 의한 새말

가. 맞-: 맞블락, 맞언팔, 맞팔

나. 비(非)-: 비매너, 비추, 비호감

다. 즐-: 즐금, 즐주, 즐휴

라. 폭풍(暴風)-: 폭풍감동, 폭풍트윗, 폭풍흡입

마. -빠: 수지빠, 아이유빠, 야빠

바. -질: 카톡질, 트윗질, 폐북질

사. -충(蟲): 나꼼충, 일베충

(4가)의 ‘맞블락’, ‘맞언팔’ 등은 접두사 ‘맞-’과 나머지 요소가 결합된 것이다. ‘맞-’은 ‘맞질, 맞대면, 맞상대’ 등에서 접두사로 ‘서로 마주 대하는’의 뜻을 갖는데, 통신 언어에서도 비슷하게 행위의 상호성을 나타낸다. (4나)의 ‘비매너’는 접두사 ‘비(非)-’와 외래어 ‘매너(manner)’가 합쳐진 말이고, ‘비추’는 ‘비-’에 ‘추천’이 결합되고 ‘비추천’에서 ‘천’을 떨어뜨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호감’은 일상어에서도 쓰는 것이지만 통신

언어로도 특히 활발한 쓰임을 보여 준다. (4다)의 ‘즐’은 ‘즐겁다’의 첫 음절에서 가져온 것으로 새로운 접두사로 쓰인다. ‘즐’은 1990년대 통신 언어에서 ‘즐팅’, ‘즐감’으로 쓰이기 시작했는데 누리소통망 시기에 들어서도 ‘즐금, 즐휴’ 등 다수의 새말을 생산적으로 만든다. (4라)의 ‘폭풍(暴風)’도 접두사적 요소로 쓰이며, 여기서 ‘폭풍’은 ‘세찬 바람’이라는 본래의 뜻과 달리 ‘세게, 빠르게, 크게’와 같이 의미를 어근에 더해 주는 기능을 갖는다.

(4마)의 ‘빠’는 연예인을 따르는 팬을 가리키는 ‘오빠부대’, ‘빠순이’의 ‘빠’에서 출발했는데, 운동 경기에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나 특정 정치인들의 열성 지지자를 가리키는 접미사로도 쓰인다. ‘수지빠’는 ‘수지+빠’, ‘야빠’는 ‘야구+빠’의 결합형이다. (4바)에서 ‘카톡질’, ‘트윗질’, ‘페북질’은 각각 ‘카톡(카카오톡)’, ‘트윗(트위터)’, ‘페북(페이스북)’에 반복적 행위를 나타내는 부정적 의미의 접미사 ‘-질’이 결합된 말이다. ‘벌레’의 뜻에서 나온 (4사)의 ‘충(蟲)’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가리키는 기능의 접미사다.⁵⁾ ‘나꼼충’은 ‘나는 꼼수다’라는 정치 영역 인터넷 라디오 프로그램을 즐겨듣는 사람을 벌레에 비유한 비하 표현이고, ‘일베충’은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 이용자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5) 합성에 의한 새말

가. 남자사람, 무한분노, 시간줄
나. 굿밤, 자동트윗, 수동알티
다. 굿신굿신, 쓰담쓰담

5) 일상어의 ‘식충(食蟲), 속어 ‘잠충(잠-蟲), ‘명충(명-蟲)의 ‘충’도 같은 뜻으로 쓰인다.

(5가)의 보기들은 고유어 또는 한자어 두 개가 결합된 새말이다. ‘시간줄’은 영어 ‘timeline’을 그대로 직역한 것이다. (5나)는 외래어 또는 외국어와 고유어 또는 한자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에 해당한다. 이러한 합성에 의한 새말들은 수가 많은 편이다. (5다)의 ‘굽신굽신’은 ‘굽신’을 반복한 것이고,⁶⁾ ‘쓰담쓰담’은 ‘쓰다듬다’의 어간을 ‘쓰담’으로 재구성한 뒤 겹쳐 만든 반복 합성어이다. 사전에 실려 있는 말이지만 ‘토닥토닥’, ‘조물조물’도 많이 쓰인다. 누리꾼들은 글자를 이용한 대화에서 마치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생생한 느낌을 전달하기 위한 표현적 동기에서 흥내말을 많이 쓰고 있다.

3.2. 줄임

구나 문장을 짧게 줄여서 낱말로 만드는 방식은 누리소통망 새말 형성에서 가장 생산적으로 활용된다. 다른 방식에 비해 절차가 간단할 뿐더러 긴 내용을 짧은 형식으로 쉽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6) 줄임에 의한 새말

- 가. 친구: [친구 [취가, 스압: [스크롤 [업박, 차도남: [차가운
[도시 [남자, 솔까말: [솔직히 [꺼놓고 [말해서
나. 엄빠: [엄마 애[빠], 행쇼: [행복하십[시오], 근자감: [근거 없
는 [자신감, 넘사벽: [넘을 수 없는 [새차원의 [벽
다. 넌씨눈: [넌 [씨발 [눈치도 없냐?, 답정나: [답은 [정해져 있

6) ‘굽신굽신’은 국어사전에서 ‘굽실굽실’의 잘못 또는 북한어로 풀이되고 있으나 누리꾼들 사이에서 그런 구별은 없고, 통신 언어에서는 ‘굽신굽신’의 쓰임이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관찰된다.

으니 [네]는 답만 해

(6가)의 ‘친추’, ‘스압’, ‘술까말’ 등은 구 구성에서 각 어절의 첫 음절을 모아 새말로 줄였다. 대부분의 첫 음절이 어절의 의미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줄어진 구성만 보아서는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6나)는 구에서 줄이는 방식이 일정하지 않다. ‘엄빠’는 ‘엄마’의 1음절, ‘아빠’의 2음절 글자를 모았고, ‘행쇼’는 ‘행복하십시오’의 1음절과 5, 6음절 글자를 모으되 ‘시오’를 ‘쇼’로 줄였다. (6다)는 긴 문장을 한 낱말로 줄인 것이다. 이 또한 줄이는 데서 일정한 규칙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줄임으로 만들어진 새말들은 파생이나 합성으로 만들어진 것에 비해 의미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은어(隱語)’처럼 인식되고, 형성 및 사용 과정에서 오락적 동기와 유대 강화 동기가 강하게 작용한다. 구나 문장의 긴 형식을 낱말로 짧게 줄인다는 점에서 이런 방식의 새말은 경제적 동기도 작용하는 것이다.

3.3. 형태 및 의미 바꿈

기존 표현에서 형태나 의미를 바꿈으로써 새말처럼 쓰는 경우도 다수 보인다. 먼저 (7)은 형태 바꿈에 의한 새말의 보기이다.

(7) 형태 바꿈에 의한 새말

- 가. 고나리(관리), 괜춘하다(괜찮다), 오나전(완전), 짹알/짹라
(제발)
- 나. 있어묘(있어요)
- 다. ASKY(안 생겨요), sc(센 척)

(7가)는 입력 과정에서 오타 때문에 생긴 형식을 그대로 씌으로써 기존 표현을 재미있게 적은 새말로 볼 수 있다. (7나) ‘있어요’의 ‘모’는 스마트폰에서 ‘요’를 입력하려다 잘못 나타난 형식이다. ‘ㅇ’과 ‘ㅁ’이 같은 자리에 있어 글쇠판을 한 번 눌러야 할 것을 두 번 눌러서 ‘ㅁ’이 되었고, 이것을 재미 삼아 새로운 어미처럼 그대로 적는다. (7다)는 비슷한 발음의 영문자를 이용한 적기로 ‘ASKY’는 ‘(애인이) 안 생겨요’를 나타내고, ‘sc’는 ‘(힘이) 센 척’을 나타낸다. 암호처럼 적음으로써 재미를 주려는 오락적 동기가 강한 새말 표현으로 이해된다.

(8) 의미 바꿈에 의한 새말

가. 부농/빈농, 잉여

나. 애정하다

다. 좋아요/멋져요/기뻐요/슬퍼요/힘내요

(8가)의 ‘부농’은 연애하는 사람의 얼굴에 화색이 돈다고 하여 ‘분홍’으로 적다가 연애를 하면 마음이 부자가 된다는 뜻에서 소리가 비슷한 ‘부농’으로 바꾸어 적은 것이다. ‘분홍’, ‘부농’ 단계 모두 의미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빈농’은 이성 친구가 없어 연애를 하지 못하는 결핍 상황을 가리키는데 새말 ‘부농’에서 반대말로 파생된 표현이다. ‘잉여(剩餘)’는 사전적으로 ‘쓰고 난 후 남은 것’ 곧 ‘나머지’를 뜻한다. 그러나 누리소통망에서는 일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을 가리킨다. 지시 대상이 사물에서 사람에게로 바뀜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미 바꿈이 나타났다. (8나)의 ‘애정하다’는 명사 ‘애정(愛情)’에 파생접사 ‘-하다’가 붙어 동사가 된 파생어인데, 어근에서 의미 변화가 관찰된다. ‘애정’이 ‘사랑하는 마음’의 뜻인데 비해 ‘애정하다’는 ‘사랑하다’와 함께 ‘좋아하다’의

뜻을 강하게 갖는 점에서 의미 확대가 일어났다. (8다)의 ‘좋아요’ 등은 페이스북, 카카오톡에서 다른 사람의 글에 반응으로 붙이는 표현이다. 이 말은 본래의 뜻을 그대로 갖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공감하거나 지지한다는 뜻을 추가로 드러낸다. 이 점에서 뜻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답벼락, 멘션, ब्ल록, 타임라인, 팔로우, 팔로잉, 트윗’ 등의 누리소통망 기능 용어들은 모두 의미가 확대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존 표현의 ‘의미 바꿈’이 일어난 것이다.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누리소통망(SNS)에서 만들어 지거나 사용 빈도가 높은 새말을 대상으로 쓰임 영역 및 형성 방식 면에서 구체적 보기를 소개하고 설명을 덧붙였다. 쓰임 영역을 ‘대인 관계 및 소통 관련 새말, 사회생활 및 정치 상황 관련 새말, 누리소통망 사용 관련 새말’로 나누고, 형성 방식 면에서는 ‘파생, 합성, 줄임, 형태 바꿈, 의미 바꿈’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특징을 기술하였다. 그 결과, 21세기의 중요한 ‘말 놀이’인 누리소통망에서 수많은 새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활발하게 쓰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통신 언어 새말들은 기본적으로 오락적 동기를 바탕으로 깔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경제적 동기, 표현적 동기, 유대 강화 동기, 심리적 해방 동기가 작용하여 만들어지고 쓰이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누리꾼들에 의한 새말 만들기와 적극적인 사용 및 공유는 몇 가지 면에서 한국어의 현재와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통신 언어 새말들은 화자들의 창의력과 표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한국어 어휘 체계를 풍부하게 해 준다. 새말들은 21세기 현재 한국어 화자들의 생각과 삶, 사회의 모습이 어떤지를 잘 보여 주는 소중한 역사적 기록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시대에 누리꾼들은 새말의 성공적인 창조자 겸 사용자로 나선 상황이다. 특히 누리소통망에서는 누구나 새로운 표현을 자유롭게 만들어 쓰고, 다른 누리꾼들에 의해 새말로써 가치를 인정받으면 그것은 빠른 시간에 널리 퍼져 나간다. 누리소통망에서 새말들이 생겨나고 널리 유통되는 것은 인터넷 통신 공간에서 누리꾼들 스스로 일상어 언어 규범의 억압에 맞서 언어 창조와 사용의 자유를 이끌어 낸 결과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참고 문헌

- 김성도(2008), 《호모 모빌리쿠스—모바일 미디어의 문화생태학》, 삼성경제연구소.
- 박동근(2011), 도구 유입에 따른 어휘 의미 변화—컴퓨터 사용과 관련된 용어의 의미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19-1, 9~82, 한국사회언어학회.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엮음(2012), 《트위터란 무엇인가—다학제적 접근》, 커뮤니케이션북스.
- 서은아(2007), 《네티즌 언어—글쓰기로써 말하기 또는 네티즌의 펴글, 댓글, 베플, 약플, 아이디 그리고 이모티콘의 언어학적 분석》,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정복(2003), 《인터넷 통신 언어의 이해》, 월인.
- 이정복(2009), 《인터넷 통신 언어의 확산과 한국어 연구의 확대》, 소통.
- 이정복(2011가), 트위터의 소통 구조와 통신 언어 영역, 《인문과학연구》 37, 235~270,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이정복(2011나), 인터넷 통신 언어와 사회언어학—한다요체를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29, 7~40, 우리말학회.
- 이정복(2011다), 트위터 누리꾼들의 호칭어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어문학》 114, 143~174, 한국어문학회.
- 이정복(2011라), 인터넷 통신 언어 실태와 세대 간 의사소통의 문제, 《배달말》 49, 29~69, 배달말학회.
- 이정복(2012), 스마트폰 시대의 통신 언어 특징과 연구 과제, 《사회언어학》 20-1, 177~211, 한국사회언어학회.
- 이정복·양명희·박호관(2006), 《인터넷 통신 언어와 청소년 언어문화》, 한국문화사.
- 허상희(2011),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트위터(Twitter)의 특징과 소통 구조에 관한 고찰, 《우리말연구》 28, 259~283, 우리말학회.
- Crystal, D. (2004), *The Language Revolution*, Cambridge: Polity. 크리스털 지음/김기영 옮김(2009), 《언어 혁명》, 울력.

누리소통망의 의사소통 방식과 구조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허상희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센터 강사

1. 머리말

최근 스마트폰의 보편화와 더불어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사용자 수가 급증하는 등 국내에서 소셜 네트워킹 열풍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YouTube) 등과 같은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는 정보 공유 및 의사소통의 핵심 채널이 되어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현실 생활)에서도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발달은 현대인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매체의 발달과 변화로 인해 새로운 의사소통 도구들이 등장하였으며 의사소통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누리소통망(SNS)¹⁾의 발달로 언어와 의사소통 구조는 과거 인터넷 채팅이나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던 통신 언어에서 나아가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1)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누리소통망(서비스)’이라는 용어로 순화하였다.

누리소통망은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시켜 주는 온라인 플랫폼’(위키백과)으로서,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미투데이(me2day), 싸이월드(cyworld), 요즘(yozm)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누리소통망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사용자 수는 2011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으며,²⁾ 당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누리소통망에 포함되어 짝을 이루듯 항상 함께 거론되지만 그 성격은 전혀 다르다. 관계를 중심으로 메시지가 전달되고 콘텐츠를 공유하는 기능은 비슷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사용자가 어떤 누리소통망을 주로 이용하느냐 하는 것은 이들의 의사소통 방식과 구조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로 결정된다. 따라서 이들의 의사소통 방식과 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소셜 미디어 중에서도 누리소통망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중에서 대표되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의사소통 방식과 구조를 통해 각각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소셜 미디어와 누리소통망

과거에는 기자가 아닌 일반인이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를 쓰기가 쉽지 않았다.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자금과 편집자, 인쇄기, 유통망 같은 것이 필요했다. 그리고 설사 구독하는 신문의 기사가 마음에

2) 국내 트위터·페북 사용자 1천만 돌파, 《머니투데이》, 2012. 1. 18.

들지 않더라도 그들의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았고, 그럴 경우라면 구독을 끊어야 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돈 한 톨 들이지 않고 콘텐츠(contents)를 만들어 사람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이처럼 이제는 누구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기사를 쓰거나 동영상 만들어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콘텐츠에 댓글을 달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이다(허상희 2011:262).

위키백과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개방, 참여, 공유의 가치로 요약되는 웹 2.0시대의 도래에 따라 누리소통망의 기반 위에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는 그 자체가 일종의 유기체처럼 성장하기 때문에 소비와 생산의 일반적인 메커니즘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방향성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특성이 있다. 다시 말해 텔레비전, 신문, 잡지, 라디오 등과 같은 전통 매체가 일대다(one-to-many)의 일방적 관계형에 기초한 커뮤니케이션의 속성을 가졌다면, 소셜 미디어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다양한 사용자들에 의해 생성되고 공유되는 다대다(many-to-many)의 쌍방향적 관계성을 토대로 하므로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의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위키백과).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누리소통망은 소셜 미디어의 한 종류로, 이러한 소셜 미디어의 종류로는 블로그(Blog), 위키(Wiki), 손수제작물(UCC), 마이크로 블로그(Micro-Blog)를 들 수 있다.

과거 인터넷 채팅이나 커뮤니티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용자는 소비자 또는 수용자의 입장이다. 이용자가 사용하는 공간은 일방적, 사(私)적, 제한적인 닫힌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정보 검색을 통한 정보 습

득이 주요 활동이며, 웹에서의 의사소통에서 기존의 사회적 요소들로 인한 의사소통 장애 및 갈등, 폭력성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모인 커뮤니티에서도 운영자를 중심으로 하는 구성원 형태의 수직성과 상하 구조, 중앙 집중식 게시판 모형은 지속되었다(김중태 2006). 그리고 사람과 기계의 관계이며, 통신망을 통한 일대일 소통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반해 누리소통망의 특징은 웹 2.0의 특징인 ‘참여, 공유, 개방’을 통해 소비자가 생산자로 바뀌면서 이용자가 전면에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용자가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 즉 참여형소비자(prosumer)³⁾가 된다. 이 공간은 열린 공간이며, 누구나 쉽게 콘텐츠에 접근, 복제할 수 있으며 유통이 간단하다. 콘텐츠에 대한 반응 또는 반응의 확산 속도가 이전과는 비할 수 없이 빠르다. 웹에서의 의사소통 역시 기존과 마찬가지로 여러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만,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평판 시스템의 확립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소셜 미디어다. 그리고 일대일 소통을 넘어 불특정다수에게 메시지를 전파하는 다대다 소통의 특성까지 보인다.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소셜 미디어로서, 엄격히 말하면 페이스북은 누리소통망에, 트위터는 마이크로 블로그에 해당한다.⁴⁾ 마이크로 블로그는 한두 문장 정도 분량의 단편적 정보를 관심이 있는 개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새로운 통신 방식으로, ‘블로그+메신저’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위키백과). 이처럼 소셜 미디어

3) ‘프로슈머(prosumer)’라는 단어는 1980년 앨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최초로 사용했다.

4) 매체 분석 기준에 따른 소셜 미디어의 종류와 특성은 허상희·최규수(2012:460~461)를 참고할 것.

어 내에서 다른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각각에 해당되는 예들을 보면 뒤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누리소통망의 예시에 트위터,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미투데이 등이 있고, 마이크로 블로그의 예시에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예시가 혼재되어 있는데 이들을 묶는다면 누리소통망에 마이크로 블로그를 포함시킬 수 있겠다.⁵⁾ 왜냐하면 마이크로 블로그는 단편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점이 특징이지만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누리소통망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이들을 누리소통망으로 규정하고 논의하기로 한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모두 관계를 바탕으로 한 소셜 미디어이지만 관계를 맺는 방식은 다르다. 둘 다 자신의 현재 상태를 업데이트하면서 시작하지만 페이스북은 자신이 하는 이야기와 상대방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친구 맺기’를 한다. 그에 반해 트위터는 자신이 하는 이야기를 상대방이 ‘팔로우(follow, 구독)’하게 된다. 즉, 페이스북의 관계 맺기가 쌍방향적이라면 트위터의 관계 맺기는 일방적이다.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친구 찾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 확대해 나가며 자신의 이야기 또는 사회적 이슈, 신변잡기 정보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트위터는 내가 듣고 싶고, 원하는 사람의 말만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다. 즉, 관계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은 비슷하지만 페이스북은 ‘관계 형성’에,

5) 위키백과에서 ‘마이크로 블로그’를 검색해 보면 “이 문서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문서와 합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토론 문서에서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요”라는 문구가 뜬다. 이는 두 용어가 혼용되고 있고 포함관계에 있음을 말해 준다.

트위터는 ‘정보 공유’에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⁶⁾ 각각의 주요 정보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의 현재 상태에서부터 신변잡기 정보, 사건·사고, 사회적 이슈 등 다양하지만 상대적으로 페이스북은 신변잡기 정보가, 트위터는 사건·사고, 이슈가 많이 등장한다. 이것은 트위터가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전파하고 확산하기 때문일 것이다. 트위터는 엄밀히 말하면 마이크로 블로그이다. 즉, 블로그 형식의 짧은 텍스트 형태이다. 특히 트위터는 140자라는 글자 수 제한이 있다. 글자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짧은 메시지를 부담 없이 적을 수 있고, 필요한 정보만을 요구할 때는 신속하게 요점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에 직접 접속하지 않더라도 휴대 전화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며, 특히 스마트폰이 도입되면서 더욱 활성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페이스북, 트위터 모두 관계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이지만 사용 목적, 관계맺기 방식, 주요 정보 내용 등에 따라 각각의 특성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각각의 매체 특성이 의사소통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또한 매체를 규정하는 특징이 된다.

매체 분석 기준에 따른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특성을 비교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6) 통계청에 따르면 트위터를 이용하는 목적은 정보 교류가 81.6%로 가장 높았다. 인맥 관리가 66.5%로 뒤를 이었다. 반면 페이스북은 인맥 관리가 83.3%, 정보 교류는 63.3%로 상반된 이용 행태를 보였다(국내 트위터·페북 사용자 1천만 돌파, 《머니투데이》, 2012. 1. 18.). 또한 트위터 사(社)는 실제로 트위터를 누리소통망(SNS)이 아닌 ‘실시간 글로벌 정보 네트워크’라고 정의하고 있다.

표 1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특성 비교

	페이스북	트위터
사용 목적	관계 형성>정보 공유	정보 공유>관계 형성
주체 대상	1:1, 1:다	1:1, 1:다
접속 수단	웹, 모바일	웹, 모바일
관계 맺기	쌍방	일방
정보 유형	텍스트, 사진 위주	텍스트, 사진 위주
주요 정보 내용	신변잡기 정보>사건·사고, 이슈	사건·사고, 이슈>신변잡기 정보
정보 성격	개인적, 공식적	개인적, 공식적
정보 제공 방식	나열식, 분류식	나열식
댓글 여부	○	○
사용자 통제	X	X
기타		글자 수 제한

3.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의사소통 방식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떤 소통 방식을 사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 종류의 누리소통망이 존재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서비스 운용 방식 때문에 각각을 선호하는 사용자층과 각각의 콘텐츠 성향 역시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운용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각각의 주요 운용 용어를 살펴보자. 트위터에서 ‘트윗(tweet)’은 사용자가 쓰는 140자 이내의 글을 말하며, 하나하나의 트윗이 모여 ‘타임라인(Timeline)’을 이룬다. 타임라인은 내가 구독하고 있는 트위터 사용자들의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곳이다. 트위터의 관계는 ‘따름бет(팔로잉,

following)’과 ‘팔로워(팔로어, follower)’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따름 벗은 내가 구독하는 사람이며, 팔로워는 나를 구독하는 사람이다. ‘리트윗(retweet)’은 트윗을 다시 보내는 것으로 ‘전달’, ‘추천’의 의미가 있다. ‘리플라이(reply)’는 답글을 다는 기능이며, 개인적인 대화를 원할 때는 일대일로 보낼 수 있는 쪽지(Direct Message)도 있다. ‘리스트’는 원하는 사람들의 글만 볼 수 있도록 모아두는 목록이다.

페이스북에서 ‘담벼락’은 사용자나 친구의 글, 사진, 동영상, 링크 등의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다. 담벼락 글은 친구들에게 공개되며, 이에 대해 공감(‘좋아요’)을 나타내거나 댓글을 달거나 공유할 수 있다. ‘뉴스피드’는 사용자와 친구들이 담벼락에 올린 글이나 사진 등의 콘텐츠가 쌓이는 공간으로, 트위터의 ‘타임라인’에 해당한다. 친구들의 글이 ‘최신’ 또는 ‘인기순’으로 정렬되어 업데이트된다. 페이스북에서는 ‘친구 맺기’ 또는 ‘친구 만들기’가 중요한데 이메일 주소, 출신지, 거주지, 학교, 직장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하여 친구를 찾을 수 있다. ‘친구 찾기’ 또는 ‘친구 초대’ 등을 통해 원하는 친구를 찾고, 초대하고, 상대방의 승낙을 받게 되면 서로 ‘친구’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 ‘친구’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기능이 ‘댓글 달기’, ‘좋아요’, ‘공유하기’이다. ‘댓글 달기’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글에 대해 의견을 남기는 것이고, ‘좋아요’는 상대방의 글에 대한 공감을 남기는 것이다. 글을 남기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 대한 공감을 표현할 수 있다. 링크가 담긴 게시글이나 노트 글에는 공유하기 기능이 추가되는데 공유하기를 통하여 해당 정보를 내 친구의 친구까지 볼 수 있다. 메시지는 사용자들 간에 주고받는 일대일 대화로 공개되지 않는다.

앞의 내용을 표 2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2에서 대부분의 개념들은 일대일 관계로 볼 수 있고, 트위터의 ‘리트윗’의 경우 일종의 ‘추

표 2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주요 개념 비교

트위터	페이스북
타임라인	뉴스피드
따름벗(following)/떨림벗(follower)	친구
리트윗	공유하기
	좋아요
리플라이	댓글 달기
꼭지	메시지
리스트	그룹

친'의 의미로 페이스북의 '공유하기'와 '좋아요'에 모두 해당한다. 페이스북의 '그룹'은 일종의 카페 또는 커뮤니티처럼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트위터의 '리스트'와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사용자가 좋아하는 그룹 또는 목록을 지정한다는 의미에서 통한다고 볼 수 있다. 페이스북에는 '노트' 서비스가 있는데 이는 긴 글을 쓰고 싶을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트위터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블로그의 포스팅에 해당한다.

4.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의사소통 구조

일반적으로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대화할 대상이 있어야 한다. 둘째, 내 이야기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 셋째, 내 이야기에 상대방의 이야기가 덧붙여져야 한다. 단지 상대방의 반응만으로는 대화가 이어지지 못한다.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관계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이므로 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메인 화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트위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페이스북)라는 물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현재 나의 상황, 상태, 감정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주요한 활동임을 보여 준다. 내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얻고,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도 주고받으며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 놓는 것이다. 바쁜 현대의 삶 속에서 친구를 직접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누리소통망을 통해서나마 사소한 일상을 나누고,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이야기와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한다. 누리소통망의 구조는 곧 대화의 구조와 닮아 있고, 소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소통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좋은 의사소통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트위터의 메인 화면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왼쪽 영역은 사용자 영역으로, 사용자의 프로필과 트윗 수, 따름бет(following), 팔림бет(follower) 수를 알 수 있으며, ‘팔로우’ 추천 항목도 알 수 있다. 오른쪽 영역은 트윗이 모인 타임라인으로, 의사소통 공간에 해당한다. 트위터의 타임라인은 날개의 트윗들이 나열되어 있는 방식이다. 하나의 트윗과 그에 대한 반응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각 트윗의 정보 또는 정보 나열에 초점이 있다.

페이스북의 메인 화면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왼쪽 부분에서는 사용자 프로필과 주요 메뉴들을 볼 수 있다. 가운데 부분은 담벼락과 뉴스피드로, 업데이트되는 글들을 볼 수 있다. 오른쪽 부분에는 이벤트 만들기, 친구 찾기, 광고 등이 있다. 메인 화면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분류식과 나열식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뉴스피드가 페이스북의 의사소통 공간이라 볼 수 있는데, 자신의

그림 1 트위터의 메인 화면



그림 2 페이스북의 메인 화면



이야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좋아요’나 ‘댓글 달기’, ‘공유하기’ 기능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댓글’의 경우 나열식으로 되어 있어 즉시 반응 등을 알 수 있다.

두 서비스의 메인 화면 구조를 살펴보면, 이들의 소통방식과 구조를 알 수 있다. 그림 1, 그림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트위터에서 트윗이 모인 타임라인은 내 트윗을 읽는 상대방의 반응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내 이야기, 내 트윗의 정보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트위터는 정보 중심의 나열식 구조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페이스북은 사용자나 상대방의 이야기에 ‘좋아요’나 ‘댓글’, ‘공유하기’ 기능 등으로 반응하고, 그것들이 나열식으로 배열되어 있어 반응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과의 관계, 반응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관계 맺기 방식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트위터는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친구를 따르지만, 페이스북은 자신과 상대방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쌍방향적으로 친구를 맺는다. 따라서 이들의 의사소통 구조는 각각 서비스의 사용 목적, 관계 맺기, 정보 제공 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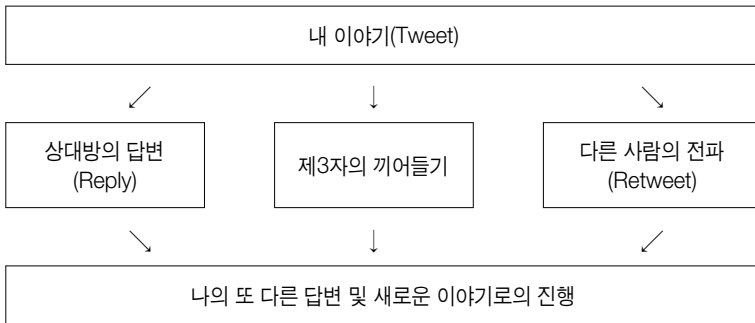
다음은 두 서비스의 의사소통 공간으로 볼 수 있는 트위터의 타임라인, 페이스북의 뉴스피드의 소통 구조를 살펴보기로 하자. 트위터의 소통구조에 대해서는 허상희(2011), 허상희·최규수(2012)에서 논의한 바 있어 그것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트위터는 140자의 단문이기 때문에 친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듯 아주 짧은 생각들을 적을 수 있다. 트위터 사용자는 특정 사람을 지정해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보통은 불특정다수(팔로워)에게 트윗한다. 한 트윗에 대해 어떤 팔로워는 답글을 달기도 하고, 그 가운데 대화나 토론이 이어진다면 제3자가 끼어들어 훈수를 두거나 토론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특정 주제

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다른 주제로 넘어갈 수 있다. 상대방의 대답과 반응이 이어지다 보면 대화 주제나 내용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처럼 트위터의 소통 구조는 우리의 일반적인 대화, 즉 의사소통 구조와 닮아 있다. 트위터의 소통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은 하나의 트윗을 중심으로 단면적으로 나타낸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림 4의 가)와 같이 일대다(1:N)의 구조에서 다대다(N:N)의 구조로 확장되거나 그림 4의 나)와 같이 방사형처럼 전파된다.

페이스북의 소통 구조는 페이스북의 주요 기능인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업데이트된 정보를 통해 나를 보게 되고, 내 이야기에 다른 사람들이 공감함을 표시하거나 댓글을 달고 공유를 하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이러한 개개인의 경험은 정보로 축적이 되고 이들이 모여 엄청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

그림 3 트위터의 소통 구조



출처: 허상희 2011:279

그림 4 전달 트윗(RT)의 확장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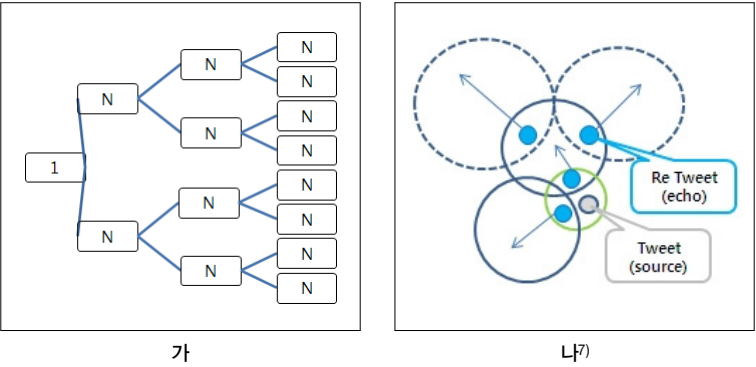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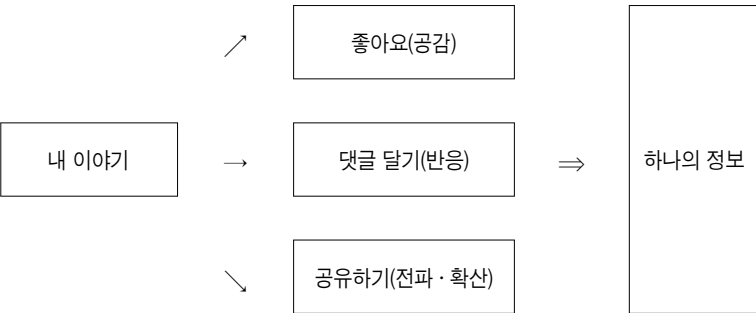


그림 5 페이스북 주요 기능으로 본 의사소통 구조



이상으로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소통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각각의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가 구조를 결정하며, 그 구조는 각 매체의 특성이 됨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소통 구조는 각기 용어만 다를 뿐이지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의 구조와 닮았다고 볼 수 있다.

7) <http://pletalk.com/241>

5. 맺음말

처음에 컴퓨터가 보급되었을 때만 해도 컴퓨터는 문서를 작성하거나 반복적인 계산을 하는 일종의 기계였다. 그런데 이것이 통신 기술과 접목되면서 인간에게 새롭고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1990년대 초반 하이텔(Hitel)이라는 통신 서비스는 다른 지역의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 주었으며 당시 나우누리, 천리안 등을 통해서 정보 공유, 채팅 등이 이루어지고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에서까지 만남이 이루어졌다. 지금의 누리소통망(SNS) 역시 다양한 웹 기술과 통신 기술의 발전, 접목으로 인해, 특히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널리 퍼졌으며, 누리소통망을 통해 인터넷 환경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일상을 공유하는, 그야말로 인터넷 환경에서 대화와 소통이 더욱 편리해지고 간소해졌다. 또한 누리소통망은 온라인상에서도 쉽고 편리하게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심리를 반영하면서 급속히 성장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메인 화면에 자신의 현재 상황이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공감,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들은 관계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콘텐츠를 공유하는 기능은 비슷하지만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트위터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 공유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페이스북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쌍방향으로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 이들이 유사한 서비스임에도 각각의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각 매체의 특성이 결정되며, 이로 인해 선호하는 사용자층과 콘텐츠 성향도 달라질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결국 트위터든 페이스북이든 그 매체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이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서비스의 특징이 아니라 사용자가 선호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참고 문헌

- 강학주 · 이스토리랩(2011), 《face to facebook: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으로 리드하라》, 인피니티북스.
- 김중태(2006), 《웹 2.0시대의 기회 시맨틱 웹》, 디지털미디어리서치.
- 허상희(2011),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트위터(Twitter)의 특징과 소통 구조에 관한 고찰, 《우리말연구》28, 259~283, 우리말학회.
- 허상희 · 최규수(2012), 트위터에서 트윗(tweet)의 특징과 유형 연구, 《한민족어문학》61, 455~494, 한민족어문학회.
- Comm, J. & Burge, K.(2009), *Twitter Power: How to Dominate Your Market One Tweet at a Time*, Wiley (신기라 역, 《트위터: 140자로 소통하는 인터넷 혁명》, 예문, 2009).
- Frase, M. & Dutta, S.(2008), *Throwing sheep in the boardroom: How online social networking will transform your life*, Work and World(최경은 옮김, 《소셜 네트워크 혁명》, 행간, 2010).
- 국내 트위터 · 페이스북 사용자 1천만 돌파, 《머니투데이》, 2012. 1. 18.
- <http://pletalk.com/241>
-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
- 위키백과 www.wiki.kr
- 트위터 www.twitter.com
- 페이스북 www.facebook.com

영어 통신어는 우리말 통신어와 어떻게 다를까?

이진성 인천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텔레비전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쓸모없는 나무 상자는 6개월 후면 모두 폐기 처분될 것이라고 장담했다고 한다. 라디오가 처음 선을 보였을 때 그 소리 상자 앞에 모여 신기해하던 것과 는 사뭇 대조적인 반응이었다. 라디오와 같은 소리 상자 정도라면 모를 까 텔레비전은 그 당시 사람들이 현대 문명 발달의 연장선에서 발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미처 준비가 안된, 아마도 너무 앞선 기술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본다. 최신 기술의 빠른 발달이 우리의 생활과 사고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연할 필요가 없겠지만, 기술의 발달 속도가 실로 우리의 상상력이 무색할 정도로 앞질러 가고 있음에 두려움마저 드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된 생각이 아닐까?

“640킬로바이트 정도면 누구에게라도 충분한 컴퓨터 메모리 용량

이다.” 이는 1980년대 초 빌 게이츠가 한 말이다. 시저가 브루투스에게 한 “아니, 너마저도?”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만, 작금의 컴퓨터의 일상적 활용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어마어마한’ 용량을 보면 “빌, 아니, ‘너’조차도?”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정보기술계의 최고 전문가조차 전혀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컴퓨터 용량의 일상적 사용은 컴퓨터와 통신 기기의 발달로 야기된 최근의 언어 쓰임새에 일어난 지각 변동에 비하면 사실 애교에 가깝다.

면대면(face to face)의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의사소통의 주된 수단이었던 종래의 방식에서 전화기의 발명은 의사소통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화자와 청자가 꼭 물리적으로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또 하나의 의사소통 방식을 가능하게 해 준 것이다. 그러나 언어를 입말[spoken language, primary language(제일 언어)]과 글말[written language, secondary language(제이 언어)]로 구분하는 관점에서 볼 때, 전화 대화는 음성으로 전하는 의사소통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입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부연하자면 실시간 음성 언어라는 관점에서 면대면 소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통신어는 이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문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글말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종종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화 대화와 같은 입말의 성격 또한 갖고 있다. 통신 기기의 발달로 초래된 새로운 양상의 언어를 입말과 글말의 혼성어, 또는 변종어(a hybrid of spoken and written language)라고 하는 이유이다.

그 매개 언어가 무엇이 되었건 통신어의 공통된 성격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자판 사용에서 타수를 줄이려는 경제성,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려는 현장성, 화자끼리의 유대감 구축이다. 여기에 오락적 기능, 심리

적 해방 기능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통신어의 실제 사용을 보면 타수를 줄이는 경제적 기능이 가장 두드러진다. 그러나 경제성을 앞세워 숫자, 기호, 문장 부호 등을 철자와 함께 사용한 창의적 표기의 경우, 오락성이나 유대감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둘의 경계를 분리하기가 항상 쉽지는 않다.

본고는 영어 통신어의 쓰임새를 살펴보는 데 그 주된 목적을 둔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영어 통신어에 흔히 사용되는 다양한 표기 방식을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소개한다. 3장의 내용은 영어 통신어와 우리말 통신어의 비교 및 쟁점이다. 통신어라는 공통 요소로 인해 유사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또 성격과 구조가 다른 별개의 두 언어가 통신어 사용에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적응하고,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을 수용하는지를 조망해 봄으로써 영어 통신어와 우리말 통신어의 성격이 보다 선명하게 부각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통신어의 대중화로 인한 영어와 우리말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진단하며 끝을 맺도록 하겠다.

2. 영어 통신어

문자 메시지는 영어로 ‘text message’라고 하며 문자 메시지 특유의 방식으로 글을 쓰는 행위를 ‘textese’, 이러한 방식을 ‘textism’이라고 한다. 통신어에는 좁게는 컴퓨터를 통한 다양한 의사소통이, 넓게는 문자 메시지, 즉석 메시지(IMing: instant message), 짧은 메시지(SMSing: short message service) 등 현대 기기를 통한 글쓰기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문자 메시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인터넷 채팅과 유사한 양상의

입말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휴대 전화나 스마트폰의 자판을 사용하는 문자 메시지는 보다 편안하게 컴퓨터 자판을 사용하는 채팅과 비교할 때 타수의 경제성에 훨씬 더 민감하다. 또한 문자 메시지는 친밀한 관계 사이의 소통에 채팅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쓰인다.

문자 메시지의 이 두 가지 여건은 ‘끼리 문화’를 주도하는 오락적 기능을 앞세운 극단적인 단축 표기를 인터넷 채팅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며,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 사전 지식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끼리’들만이 공유하는 단축 표현으로 유대감 강화, 오락적 기능이 보다 두드러지는데, 이를 암호문(cryptic looking code)이라고까지 일컫는 이유이기도 하다. 암호문을 연상시키는 단축 표기는 자판을 사용하는 시간을 고려할 때 결코 경제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글자, 숫자, 기호, 문장 부호 등을 넘나들며 컴퓨터나 휴대 전화 자판을 사용하는 시간이 글자만을 사용하는 시간보다 항상 절약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단축 표기는 정상적으로 쓰인 문장보다 읽는 사람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영어 통신어에서 경제적 기능과 오락적 기능을 별개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보다 쉽게 읽히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여 이해가 용이한 단축 표기는 경제적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화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락적, 유대감의 기능이 더 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통신어의 사용에서 타수를 줄이려는 의도를 가장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는 종래의 약자나 약어와 유사한 단축 표기 기능을 극대화한 속기 단축형(shorthand)의 활용을 가장 먼저 들 수 있다. 또 표기 규범을 무시한 표기나 음차 표기는 타수를 줄이는 등 경제성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종종 오락성이 더 두드러진다. 그 밖에 기호나 부호를 사용하여

그 내용을 반영한다든가 철자의 수를 세는 등 다양한 사례의 영어 통신어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한다.

2.1. 속기 단축형

영어에서 약자(abbreviation)와 약어(acronym)는 모두 단어나 구의 머리글자를 취하여 만들지만, 약자는 알파벳이 그대로 읽히는 데 반해 약어는 머리글자의 조합이 강세를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어를 만든다. 약자와 약어는 유에프오(UFO, unidentified flying object: 약자)나 레이더(RADAR, radio amplified detection and ranging: 약어)와 같이 통신어가 사용되기 이전에도 영어에서 우호적으로 사용되어 온 단어 형성 방법 중 하나이다. 최근에 만들어진 수많은 약자와 약어가 경제성을 앞세운 통신어의 대중적 사용에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짐작을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인지, 어떤 약자나 약어가 그러한지를 가려내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약자와 약어의 양산으로 용어에 대한 혼동도 가중되고 있다. 영어 통신어 관련 사이트인 넷링고(netlingo.com) 초기 화면에는 용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는데, 네티즌들이 약어(acronym)라고 흔히 일컫는 표현은 실제로는 약자(abbreviation), 속기 단축형(shorthand), 또는 첫 글자 취하기(initialisms)라고 밝히며 이 세 가지에 대한 특별한 구별을 두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통신어 특유의 약자를 종전의 약자와 구별하여 속기 단축형이라는 큰 범주 안에 두고, 속기 단축형에 속하는 유형으로 첫 글자 취하기, 모음 생략, 어두 또는 어말 자르기를 포함시키도록 한다.

2.1.1. 첫 글자 취하기

종래의 약자와 약어 형성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통신어에서 통용되

는 첫 글자 취하기(initialism)는 이전의 것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문장이나 구 단위의 ‘일상어’를 대상으로 첫 글자를 취한다는 점이다. 물론 OBO(or best offer)나 FYI(for your information) 등과 같이 일상어가 약자로 쓰이는 경우가 종전에도 있었으며, NIMBY(not in my back yard)나 ASAP(as soon as possible)과 같이 약자의 대중화에 힘입어 단어로 읽히는 약어도 드물지는 않다. 그러나 통신어에서 일상어를 대상으로 첫 글자를 취하는 사례를 보면 제한이 거의 없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활용도가 매우 광범위한 특징을 보인다.

- | | |
|---------------------|--|
| (1) a. BAK | back at keyboard |
| b. LJB | let's just be friends |
| c. WCA | who cares anyway |
| d. FAQL | frequently asked questions list |
| e. ITIAGTBS | I think I am going to be sick. |
| f. IWBNI | It would be nice if... |
| ISTM | it seems to me... |
| g. IWBYAPTAKYAIYSTA | I will buy a plane ticket and kick your ass if you say that again. |

통신어의 경우 전송된 글을 보이는 철자 그대로 읽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며, 눈으로 철자를 읽었을 때 입말을 귀로 들었을 때와 같이 그 내용이 인지된다. 그러므로 (1a)와 같이 단축형이 모음과 자음이 결합된 단어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해도 강세를 두어 읽는 약어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이다. 위의 (1f)에서 볼 수 있듯이 완전한 문장이 아닌 경우도 첫 글자가 취해지고 있음은 매우 흥미롭다. (1g)의 경우는 첫 글

자 취하기의 알파벳 수가 무려 16개에 달해 상식적인 단축 표기의 철자 수를 매우 상회한다. 이러한 표기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인지할 때 비로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해독할 수 없음을 기대하고 골탕을 먹이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대감과 오락적 기능이 두드러진다. 첫 글자 취하기는 인터넷 통신에서보다는 문자 메시지에서 더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2.1.2. 모음 생략

모음 생략은 하나의 단어를 단축할 때 주로 사용되며 구를 이러한 방식으로 단축하는 경우는 드물다. 모음 생략은 사용 빈도수가 높은 단어에 특히 많이 사용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음만으로 원래 단어의 복원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며, 단축형이 문맥에서 사용될 때에는 특히 복원이 쉽다. 그러므로 모음 생략은 통신어의 오락성보다는 경제성을 최대한 앞세운 대표적인 사례이다.

- | | |
|------------|----------|
| (2) a. SRY | sorry |
| b. PRT | party |
| c. PLS/PLZ | please |
| d. WK | week |
| e. KBD | keyboard |
| f. CMNG | coming |

위에서 본 (2e)의 경우 keyboard 가 KBRD가 아닌 KBD로 단축된 것은 언뜻 의아해 보이는데, 아마도 ‘r’의 발음이 앞의 모음과 함께 약하게 발음되어 자음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빈도수가 높은 단

어의 모음 생략은 단어 복원의 용이성 때문에 단축 표기에 특별히 익숙하지 않은 화자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문자메시지는 물론 인터넷 채팅에서도 가장 흔히 쓰인다.

2.1.3. 어말, 어두 자르기

어말과 어두 자르기는 복원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모음 생략의 연속선상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영어에서 어말과 어두 자르기는 많은 경우 강세에 민감한 것을 볼 수 있다.

(3) a. COS	because
puter	computer
b. SUP	what's up
c. ADD/ADR	address
d. ALCON	all concerned
e. no praw	no problem

(3a)는 두 번째 음절이 강세를 받기 때문에 강세를 안 받는 첫 번째 음절을 자른 것이다. (3b)는 what's up의 억양을 볼 때 뒷부분이 상승 음조이므로 앞을 자른 경우에 해당된다. what's up은 WU로 표기되기도 한다. (3c)에서 ADD는 뒷부분을 자르고 있는데 강세를 반영한다면 DRS로 쓰는 것이 예측되므로 다른 사례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 경우는 통신어의 일반화 이전에 이미 고착된 address의 약식 표기가 그대로 사용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3d)는 어구에서 머리글자 취하기와 자르기를 혼합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3e)는 격식을 차리지 않는 대화에서 뒷부분을 약하게 발음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2.2. 표기 규범의 경시

표기 규범을 경시함으로써 속도의 경제성을 꾀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다. 문장 부호의 생략, 대문자 생략 등을 우선 들 수 있으며, 정자 법(orthography)에 준하지 않고 철자를 소리 나는 대로 간략히 사용하는 경우이다.

2.2.1. 문장 부호, 대문자 경시

문장 부호인 쉼표,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등은 문장을 쓸 때 의사소통의 정확성을 기하는 데 각각의 역할이 있는 중요한 부호들이다. 이러한 문장 부호는 통신어에서 화자의 의도에 따라 쉽게 경시됨으로써 경제성을 기한다.

문장 부호의 생략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띄어쓰기인데, 모아쓰기 방식을 취하는 우리말과는 달리 영어는 풀어쓰기 방식을 취하므로 띄어쓰기를 경시할 경우 의사소통에 결정적인 지장을 받는다. 그러나 첫 글자 취하기와 같은 경우 문장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띄어쓰기는 자연스럽게 생략되므로 첫 글자 취하기의 경제성은 띄어쓰기의 생략 또한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영어에서는 문장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함으로써 한 문장의 시작을 신호한다. 또한 일인칭 주어 'I'는 언제 어느 경우에서나 대문자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대문자의 기본적인 규칙이 통신어에서는 꼭 지켜지지 않는다. 한편 약자, 약어, 속기 단축형 등은 주로 대문자로 쓰이지만, 글을 대문자만 사용하여 표기하는 것은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shouting)을 나타낸다. 이러한 표기는 감정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읽는 이의 눈에 피로를 주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것은 통신어 예절(netiquette)에 어긋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2.2. 정자법의 경시

정자법(orthography)을 무시하고 발음에 준하여 간단히 표기하는 방식도 경제성을 앞세운 표기로서 흔히 사용되는데, 이때는 실제 발음을 최대한 반영하거나 영어 스펠링의 복잡성을 단순화하는 점이 두드러진다.

(4) a.	aight	all right
	coo	cool
b.	skul	school
	BCOS	because
c.	da	there
	dese	these
d.	dunno	I don't know

(4a)는 발음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aight’는 ‘l’과 ‘r’ 같은 유음의 발음이 약화된 것을, ‘coo’는 영어의 ‘l’ 발음이 초성에서 정확히 발음되는 것과는 달리 종성 위치에서 약화되어 발음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4b)와 (4c)는 소리와 철자가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는 영어 정자법의 특징적인 결함을 단순한 철자로 바꾼 것이다. ‘ch’의 실제 발음인 ‘k’를, ‘au’와 ‘th’의 약식 표기로 ‘o’와 ‘d’를 각각 차용하고 있다. (4d)는 대명사에 강세를 두지 않는 일반적인 억양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제까지 속기 단축형과 표기 규범의 경시를 통해 표기를 간략화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다음에서 다루는 사례들은 단축 표기를 지향하는 방식이 보다 극단적이며, 이로 인해 오락성이 오히려 강조되는 경우들로 이러한 표기는 인터넷 채팅에서보다는 문자 메시지에서 주로

선호된다. 이러한 유형들을 본고에서는 문자 메시지형 단축 표기(text shorthand)로 칭하여 앞의 사례들과 구별하도록 하겠다.

2.3. 문자 메시지형 단축 표기

문자 메시지형 단축 표기(text shorthand)에서는 알파벳은 물론 기호, 숫자, 문장 부호 등이 음차 표기로 활용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 밖에 기호나 부호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채택되며, 이들이 첫 글자 취하기와 결합하여 매우 창의적인 표기 방식을 보여 준다. 이러한 표기의 독창성은 오락성과 유대감 강화의 기능이 훨씬 강조되어 ‘끼리 문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암호문에 가까운 난해함은 배타적인 성격 또한 갖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2.3.1. 음차 표기

음차 표기는 숫자나 알파벳을 이용하여 소리 나는 대로 읽음으로써 철자수를 상당수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이다. 알파벳에서 음차 표기의 활용도가 높은 철자는 C(see), E(ee), I(eye), N(an), R(are), U(you)가 있으며, 숫자를 통한 음차 표기는 1(one의 발음), 2(too, to), 4(four, for), 8(eight의 발음)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 (5) a. 2G2BT too good to be true
- b. NE(any), NE1(any one)
- N1(nice one), SUM1(someone)
- c. BIBI bye bye
- d. CUL8R(see you later), DV8(deviate), EF4T(effort)
- e. f9(fine), cr10(certain), k10(kitten), 4NR(foreigner)

위에서 예로 든 음차 표기는 언뜻 낯설어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RUOK?(are you OK?), 4ever(forever)와 같은 음차 표기의 간단한 조합은 인터넷 채팅에서도 선호되어 흔히 쓰이고 있다.

2.3.2. 숫자, 기호 및 문장 부호의 활용

앞의 사례는 숫자를 이용해 음차 표기를 한 경우이다. 숫자는 음차 표기 외에 철자의 수를 세거나 어구의 수를 세는 등 숫자 자체의 의미로 단축표기에 이용되기도 하는데, 흔히 쓰이는 상용구의 경우 이러한 방식이 쓰인다.

- (6) a. 143 I love you(ILY, ILU로도 쓰임): 철자의 수
- b. 1432 I love you too
- c. A3 anytime, anywhere, anyplace: 어구의 수
- d. 9 parent is watching(참고: code 9은 parent is around를 말함)
- 99 parent is no longer watching(9의 확장 의미)
- e. YY4U too wise for you(two Y's의 음차 표기)

기호와 문장 부호 역시 음차 표기가 되기도 하고 그 의미가 차용되기도 한다.

- (7) a. NW no way out(괄호 표시로 막아 ‘출구 없음’이라는 의미 반영)
- b. T+ think posotive(+란 긍정의 의미 반영)
- c. Pl& planned(&의 음차 표기)

- d. Po\$bl possible(철자의 모양 표시)
- e. *\$ starbucks(*와 \$ 부호의 의미를 음차 표기)
- f. 2b@ to be at(@의 의미 반영 및 음차 표기)
- @TEOTD at the end of the day(@의 의미 반영 및 음차 표기)
- g. ?^ hooked up?(기호의 의미 반영)
- h. 2be/-2be=? to be or not to be that is a question

말의 내용을 숫자, 철자, 부호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단축 표기를 한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다.

- (8) a. PU that stinks!
- b. ZZZZ sleeping or bored
- c. 411 information(참고: 411은 우리나라의 114 번호에 해당)
- d. 511 too much information(411의 확장)
- e. ? I have a question

지금까지 살펴본 숫자, 기호, 문장 부호를 통한 다양한 음차 표기, 기호의 내용을 담은 표기 등은 그 일탈의 정도가 문자 규범과는 무관하여 가히 암호문과 같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표기는 모두 유대 강화와 오락적 동기가 두드러지지만 말소리로 바뀌었을 때 일상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그 일탈이 표기에만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영어 통신어와 우리말 통신어의 비교 및 쟁점

지금까지 영어 통신어의 특징으로 속기 단축형, 표기 규범의 경시, 문자 메시지형 단축 표기 등 크게 세 가지를 다루었다. 속기 단축형으로는 첫 글자 취하기, 모음 생략, 어말·어두 자르기를 살펴보았고, 표기 규범의 경시로는 문장 부호, 정자법, 대문자 경시를 예로 들었다. 문자 메시지형 단축 표기로 음차 표기, 숫자·기호·문장 부호를 활용한 다양한 표기 방식을 소개하였다. 영어 통신어를 우리말 통신어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우선 통신어라는 공통적 요인으로 인해 기능적으로 매우 유사한 특징이 관찰되는 한편, 언어의 구조와 성격, 표기 방식이 다른 별개의 언어이기에 통신어를 각각의 언어에 수용하는 색다른 양상이 매우 흥미롭게 나타난다.

먼저 통신어라는 공통적 성격으로 인해 나타나는 경제성을 반영한 쓰기 방식으로 표기의 간략화를 살펴보겠다. 우리말 통신어에서 채택하는 표기 간략화에는 약자, 약어, 말줄임이 있다. 그러나 우리말 통신어의 약자는 주로 ‘즐감(즐거운 감상)’, ‘행쇼(행복하십쇼)’ 등 단어나 어구를 줄이므로 문장 전체까지 광범위하게 대상으로 삼는 영어의 첫 글자 취하기와 다르다. 영어 통신어의 모음 생략과 유사한 우리말 통신어의 간략화는 ‘ㄱㄷ(키득)’, ‘ㅎㄷㄷ(후덜덜)’과 같은 첫 자음 취하기가 있는데 영어의 모음 생략이 단어의 복원 가능성이 높은 관계로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은 데 반해 우리말 첫 자음 취하기의 활용은 비교적 제한적이다. 어두·어말 자르기 역시 ‘알바(아르바이트)’, ‘부끄(부끄러워)’, ‘뽑다(아니뽑다)’, ‘컴(컴퓨터)’ 등 우리말 통신어에서도 자주 사용되는데, 두 언어에서 모두 단어의 사용 빈도수가 높아 복원성이 높은 단어에서 주로 사용된다.

영어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표기 간략화의 일환으로, 우리말에는 ‘맘(마음)’, ‘멜(메일)’, ‘넘(너무)’ 등의 말줄임 현상이 있다. 말줄임은 우리말 통신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활용도가 높다는 측면에서 영어 통신어의 모음 생략에 견줄 수 있는 방식으로 보인다. 어떠한 방식이 보다 편하게 받아들여져 일반적으로 사용되는지는 영어와 우리말이 다르지만 의미나 단어의 복원 가능성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기 규범의 경시 역시 경제성을 앞세운 방식인데 우리말의 경우 먼저 띄어쓰기 경시를 들 수 있다. 이는 이어쓰기 방식의 영어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다. 맞춤법 경시는 ‘모해요(뭐해요)’, ‘안대(안돼)’, ‘바요(봐요)’와 같이 이중 모음을 단모음화하거나, ‘있어요(있어요)’, ‘없어요(없어요)’ 등과 같이 이중 자음의 받침을 단자음화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표기는 통신어상의 맞춤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정자법 경시는 영어 통신어에도 나타나지만 우리말 통신어의 경우와 같이 폭넓게 쓰이지는 않는다.

연음을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거나, 여기에 말줄임을 덧붙이는 이중 간략화도 우리말 통신어에 자리 잡은 방식이다. 예를 들어 ‘추카(축하)’, ‘재섭서(재수없어)’, ‘글쵸(그렇죠)’, ‘어케(어떻게)’ 등인데, 연음을 소리 나는 대로 반영한 표기 규범의 경시는 영어 통신어에서 관찰되는 표기 규범의 경시와 비교했을 때, 그 파장이 글말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훨씬 더 크게 남긴다.

경제성보다는 오락성이 더 두드러진 문자 메시지형 단축 표기 역시 우리말 통신어에서도 활용되는데, ‘1004(천사)’, ‘20000(이만)’, ‘드러50쇼(들어오십쇼)’, ‘10C미(열심히)’, ‘R졌G(알겠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한글, 숫자, 알파벳의 조화로 만들어지는 음차 표기를 활용한 통신어는 수학 공식처럼 보이는 표기는 물론 ‘아햏햏’, ‘뽕’과 같은 특

이한 글자 조합까지 불사하며 한때 젊은 층에서 경쟁적, 창의적으로 만
들어져 외계어라고까지 불리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그 위세가 한풀 꺾
인 감이 있다. 영어 통신어에서도 'leet(leet로 읽힘) 문자'라고 일컫는
극단적인 단축 표기가 있지만 우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에
서 한정적으로 사용될 뿐이다.

이제 통신어의 또 하나의 기능인 현장성을 영어와 우리말 통신어
에서 살펴보겠다. 현장성은 화자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면 대 면 대
화와 유사하게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에는 세계 공통어
인 이모티콘이 있다. 표기 방식은 조금씩 달리하지만 웃음(:-), ^^), 슬
픔(:(, T.T, ㅠ.ㅠ), 화남(:-<, >-<), 혀가 꼬임(:-&) 등 다양한 조합이
현장의 감정을 나타낸다. 통신어 특유의 감정 전달은 영어에서는 이모
티콘의 사용 외에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화가 났을 때 대문자를 사용하
여 표현하는 정도이다.

우리말 통신어의 경우 감정 표현 방식이 영어에 비해 매우 다양하
게 나타난다. 의도적이며 적극적인 언어유희가 가능하여 '자야게떠여
(자야졌어요)', '안아줄꼬얍(안아줄꺼야)', '알겠썰다(알겠습니다)', '만
나자요(만나자)', '기쁘져?(기쁘지요?)', '어디갔쥬?(어디갔지?)', '조하
용(좋아요)' 등과 같은 어미 변형, '완존(완전)', '언능(얼른)'과 같은 모
음 또는 자음 변형, '여러부운(여러분)'과 같은 음절 늘리기, '옴빠(오
빠)', '척오(최고)', '뉴구(누구)'와 같은 자음·모음 더하기 등을 통해 오
락적 기능이나 심리 해방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화자의 미묘한 감
정을 전달하는 다양한 말놀이가 세대를 아우르며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갔는디유(갔는데요)', '그라지 마소(그러지 마세
요)' 등 사투리의 사용이 친근감을 유도하는 장치로 활발히 채택되고 있
다. 영어 통신어의 경우 음절 늘리기나 자음 더하기와 같이 경제성을

희생시키며 오락성이나 유대감을 앞세운 표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통신어 특유의 이러한 말의 유희는 우리말의 어미 활용이 풍부하고 자유로우며, 한글이 소리 표기와 모아쓰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며, 문자를 이용한 의사소통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상성과 감정 전달의 한계를 최대한 극복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여타 언어가 쉽게 활용하거나 흉내 낼 수 없는, 통신어 시대에 부각된 한국어의 우수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고를 마무리하기 전에 영어와 우리말 통신어의 쟁점을 표준 입말과 글말에 대한 영향력을 중심으로 짚어 보기로 한다. 먼저 입말에 대한 영향력으로 단축 표기가 어떻게 읽히는가의 문제이다. 영어 통신어의 경우, 단축 표기가 아무리 타수를 줄인 것이라고 해도 이를 읽을 때는 정상적인 입말로 읽힌다. 즉, 표기 방식만 달리할 뿐 입말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여 입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영어 통신어의 ‘안정적’인 장점이지만, 동시에 새 시대에 새롭게 대두된 통신어가 입말의 지평을 넓혀 줄 여지를 크게 남겨 놓지는 않는다. 한편 단축 표기라고는 하지만,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반적인 표기로 쓰인 글을 읽을 때에 비해서 그 속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문자 메시지형 단축 표기를 많이 사용하는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도 해당되는 사실로, 영어 통신어에 관련된 많은 연구 결과에서 이미 보고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단축 표기가 ‘화자’에게는 경제적일 수 있지만, ‘청자’에게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영어 통신어의 한계점이라는 측면이다. 소리 글인 우리말 통신어의 경우 약자, 말줄임 등과 같은 단축 표기를 읽는 데 시간이 더 걸리지 않으므로 ‘화자’와 ‘청자’에게 모두 경제성의 혜택을 주는 반면, 단축 표기가 쓰인 그대로 읽히기 때문에 입말과의 관계가 유기적이다. 이는 언어생활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만 동

시에 보다 혼란스럽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대목이다.

둘째로 통신어가 대두된 이래 중심적인 화두로 부상한 글말에 대한 영향력 문제이다. 다양하고 미묘한 감정 표기로 현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우리말 통신어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큰 득이 될 수 있는 한편 독이 될 여지 또한 남긴다. 이는 우리말의 표기 이탈이 말소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표준 어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글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학생들의 맞춤법 오용 실태를 보면 통신어의 영향이 다분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그 정도의 심각성이 바른 언어생활에 적지 않은 위협이 되고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반해서 영어 통신어의 경우는 극단적인 음차 표기라 할지라도 표기만이 새로울 뿐, 표준 글말에 주는 영향은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연구 보고가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행해진 10세에서 12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통신어에 활발히 노출된 어린이들이 그렇지 않은 어린이들에 비해 읽기 능력이 오히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통신어 사용과 읽기 능력의 상관관계를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정확한 스펠링 습득과 연결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자 메시지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제가 음운론적인 자각(phonological awareness)을 증진시켜 읽기 능력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맞춤법 또는 정자법은 언어의 보수성과 그 변화를 적절히 수용할 때 과거와 현재가 함께 숨 쉬는 가교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스런 족쇄가 되지 않을 것이다. 통신어가 입말과 글말에 모두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말의 경우,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용’이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얻고자 고찰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일 것이다.

참고 사이트

영어 관련 사이트

www.espn.com

www.cnn.com

www.bbc.co.uk

www.netlingo.com

www.webopedia.com

www.txtdrop.com/abbreviations.php

한국어 관련 사이트

www.daum.net

www.idoo.net

www.hanguel.pe.kr

www.imbc.com

이곳 이 사람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인문학 소통에도 좋지요 ‘사이의 인문학자’김응교 교수를 만나다



답변자: 김응교(숙명여자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질문자: 차익종(서울대학교 강사)

때: 2013. 2. 28.(목)

곳: 서울 목동 기독교방송국 회의실

국립국어원이 2012년 말에 발표한 신어 중 ‘SNS 피로증후군’이 있다. 누리소통망(SNS)에서 얼마나 열심히 놀았으면 피로증후군까지 생겼을까. 요즘 유행하는 이 ‘놀이’는 ‘보고 듣고 퍼 나르기’를 넘어서 ‘쓰는 일’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트위터가 독자와 작가의 구분이 없어지는 ‘쓰기와 읽기를 겸하는 이’, 즉 ‘작독가(作讀家)’를 탄생시킨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권위 있는 문학 출판사가 ‘트위터 백일장’을 열기도 했다. 인터넷 글쓰기가 막말과 말장난만 낳는다고 염려하던 모습과는 판판이 아닌가.

‘이곳 이 사람’ 이번 호에서는 누리소통망이 ‘작독가’의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트위터 글쓰기를 대학 강의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혀서 화제를 모은 이를 찾았다. 시인이자 문학 평론가, 일본 문학 번역가인 숙명여자대학교 김응교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대학 바깥의 인문학 강사, 기독교방송(CBS)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인 ‘크리스천 나우(NOW)’의 진행자이기도 하다. 게다가 트위터 팔로잇(팔로어, follower)

이 3만 명인 ‘시넷물(@sinenmul)’이 바로 이분이니, 일간지에서 연재하는 오늘의 ‘말말말’난에 이분의 트위터 문구가 자주 오르기도 했다.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 줄 적격자를 찾은 셈이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강의에도 유용해

차익중 안녕하세요, 트위터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문학 평론가로 꼽히셨고, 페이스북도 친구가 4,700명이나 된다고 들었습니다(페이스북은 친구 맺을 수 있는 숫자가 최대 5,00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김응교 아이고, 당치도 않은 말씀이에요. 트위터 팔로워가 140만 명이 넘는 작가도 있는걸요. 저는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못 되는데…….

차익중 그래도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학 강의는 물론 사회 밖의 인문학 강의, 방송 진행도 하시는데, 과연 가능하긴 한가요(웃음)?

김응교 가짓수가 많아 보이긴 해도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학교 강의에서는 글쓰기로 트위터나 인터넷 카페를 활용하고 있고요, ‘맹자와 함께’라는 고전 공부 모임도 트위터 팔로워와 페이스북 친구 중에서 지원자를 모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진행하는 방송은 사회 현장이나 기독교계의 쟁점을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매번 방송을 페이스북에 공유시켜 놓고 의견을 나누기도 하죠. 최근에는 강릉원주대학교, 대구 영남대학교, 안산 중앙도서관, 포항 한동대학교, 부산 지역 등 전국을 순회하는 인문학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 역시 누리꾼들의 요청으로 만든 행사였죠.

차익중 선생님에게는 누리소통망이 이미 활동의 터전이 되었군요.

김응교 그런 셈이지요. 작년에 《그들》이라는 문학 에세이집을 냈는데 몇 달 안 되어 2쇄를 펴냈어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소식을 들은 분들이 구입해 주신 것이지요.

차익종 그러면 아무래도 글을 올리고 읽는 데 시간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김응교 그렇지요. 열심히 할 때는 하루에 8번 이상 글을 써서 올리기도 했고 밤늦게 집에 와서도 새벽 1~2시까지 읽고 쓰곤 했지요. 그렇지만 자칫 중독되겠다 싶어서 요즘에는 자제하고 있어요. 트위터는 하루 평균 두세 개를 올리는 편이지요. 페이스북은 한 주에 두세 개 정도 글을 올립니다.

차익종 학교 강의에도 활용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김응교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학부생들의 교양 필수 과목으로 ‘인문 고전 강독’을 맡고 있는데요, 강의 과제로 고전을 읽고 그 핵심어를 찾아서 트위터에 올리게 하고 있지요. 가령 《감시와 처벌》이나 《죄와 벌》을 여섯 번 나눠서 읽기로 했으면, 거기서 중요한 구절을 매주 뽑아서 트위터에 올리는 것이지요.

차익종 학생들이 올리는 트위터를 일일이 보고 평가하려면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김응교 물론이지요. 트위터는 글이 죽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팔림넷 전체가 공유해야 하는 공간에서 침묵 내용을 일대일로 답신으로 올리는 것은 트위터 공간에 맞지 않는 행동이죠.

차익종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김응교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다시 올리게 하죠. 그리고 다른 학생이 서로 두 개 이상 댓글을 달게 하죠. 그러면서 서로 토론하도록 하지요. 사실은 제가 더 배워요. 학생들이 제가 못 본 것까지 발견하니까요. 그래서 수업이 아주 입체적으로 이뤄집니다. 학생들의 사고력과

문장력도 늘어요. 주제를 파악한 뒤 거기에 맞는 간결한 어휘와 표현을 찾아 써야 하니까요.

140자 문장력 키우기, 강의에 활용

차익중 핵심을 찾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겠군요.

김응교 그렇지요. 저도 방송을 진행하면서 그 능력이 중요함을 새삼 느끼지요. 방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의 하나가 시작 발언인데요, 한 주일에 있었던 일을 다듬어서 50초로 줄여 ‘오프닝’을 말해야 해요. 어떤 단어를 줄이고 어떤 말을 꼭 넣어야 하는지, 핵심 단어와 구조를 찾아내는 능력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지요. 《역사란 무엇인가》 같은 책에 대해 누가 “그 책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 책은 역사는 현재와 과거가 영원히 대화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내가 느낀 건 무엇이고, 구성은 6장까지 되어 있는데 각 장은 어떻게……” 등등, 이렇게 원하는 대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는 거죠. 원고지 두 장이든 에이포(A4) 석 장이든 길이에 상관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자기표현 능력도 이런 과정에서 길러지는 법이지요.

차익중 트위터를 활용하는 이점이 있군요.

김응교 그렇게 강의에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강의가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트위터에 올린 것은 메모니까, 이를 꼭 모아서 넉 장 이상짜리 논문을 손으로 써서 제출하게 하지요. 전체 학생들의 학기 말 논문을 교수들이 심사해서 15명을 뽑은 후 학생 전체가 참석하는 발표대회를 열지요. 저는 그 과정을 트위터부터 시작하게 하고 이를 카페에 올리고, 카페에 올렸던 메모들을 모아 논문을 써서 내고, 마지막에는 15

분짜리 파워포인트로 발표하게 하죠. 토론하는 과정, 말하는 훈련까지 이어지게끔.

차익종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다 포함하는 과정이네요.

김응교 그렇지요. 저희 학교에서 하는 고전 강독 수업에는 ‘창의 발표’ 방식도 권장하고 있어요. 가령 지난 학기는 예술대 수업에서 《반 고흐의 영혼의 편지》를 같이 읽었는데 무용과 학생은 이를 무용으로, 음대 학생은 이를 음악으로 발표했지요.

차익종 ‘창의 발표’라면?

김응교 고전을 읽고 이를 자기 전공으로 표현해서 발표하는 것이지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론》을 읽고 음악으로 표현한다거나, 카프카의 《변신》을 읽고 춤으로 표현한다거나.

창작과 인문학 나눔의 공간

차익종 한마디로 경계가 없는 수업 방식이군요. 더 듣고 싶습니다만 (웃음), 일단 트위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지요. 트위터로 글쓰기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응용하고 계신데, 그런 분이 선생님만은 아니겠지요?

김응교 작품을 쓰는 공간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활용하는 문인들이 꽤 있지요. 시구를 트위터에 올린 후 다시 정리해서 페이스북에 올려 보곤 하더라고요. 동영상이나 사진을 올린 후 거기에 글을 붙여서 계속 수정할 수도 있잖아요. 주로 시인들이 많아요.

차익종 산문도 가능할까요?

김응교 박범신 선생이나 이외수 선생이 창작에 활용하고 있지요.

차익종 선생님도 당연히 그렇게 활용하시겠지요?

김응교 수필이나 논문 청탁이 올라오면 트위터에 초고를 한 문단씩 차례로 나눠서 올려 봐요. 누구의 시에 대해 평을 써 달라는 청탁이 올 때에도 이렇게 올리면 팔림벗들의 반응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얻을 수 있지요.

차익종 그다음에 정리해서 정식으로 글을 쓰시나요?

김응교 아뇨, 그걸 또 고쳐서 한꺼번에 붙여 페이스북에 올리죠. 그러면 거기에 또 댓글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 반응을 보고 다시 고쳐서 정식으로 써서 보내지요. 작년에 낸 《그늘》의 머리말도 초고 전체를 올려서 댓글을 보고 고친 것이고요, 책 표지나 제목도 이런 과정을 밟아 정하곤 하죠.

차익종 독작가, 작독가라는 것이 그것이군요. 문학뿐 아니라 인문학 소통 공간으로도 활용하시겠지요?

김응교 그렇지요. 저는 보통 네 가지 인문학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차익종 네 가지라면?

김응교 하버마스가 이야기한 ‘소통의 인문학’, 벤야민, 아렌트, 레비나스가 얘기한 ‘책임의 인문학’, 그리고 ‘나눔의 인문학’, ‘창의의 인문학’이 있지요. 그런데 ‘소통의 인문학’으로서는 트위터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까요.

“고흐 전 보러 갑시다”

차익종 인터넷 대화로 그치지는 않겠지요?

김응교 실생활로도 연동이 됩니다. 가령 “고흐 전 보러 갑시다” 하는 식

으로 알려져 전시회 감상 모임도 갖는데, 너무 많은 분이 오실까봐 인원을 제한하기도 하지요. 제가 ‘작가와와 만남’이라는 행사의 주인공 대접을 받은 것이 몇 번 안 되었는데요, 처음엔 출판사에서 기획했지만 이후에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친구분들 요청으로 계속하게 되었죠.

차익중 이전까지는 생각하기 어려운 장면이군요.

김응교 저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였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맹자와 함께’라는 오프라인 공부 모임이 있는데 ‘와와 클럽’이라는 인문학 교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고전번역원 선생님을 모셔서 격주 월요일마다 오프라인 공부 모임을 열고 있는데, 저를 포함해 모든 회원들이 만 원씩 내서 운영하고 있어요. 조교도 두고 있어요. 아, 숙대 학생은 무료로 들어올 수 있어요(웃음).

차익중 인원이 다 차겠지요?

김응교 그럼요. 여러 분이 대기 상태로 기다리고 있지요. 직업도 다양하고요. 이 모임을 페이스북으로도 운영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은 트위터와 달리 그룹 방을 만들 수 있어서 ‘맹자와 놀자’라는 모임방을 만들었죠. 예전 인터넷 카페와는 달리, 맹자를 낭송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립니다. 오프라인 수업을 온라인에 올리는 거죠.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회전하는 것이지요.

차익중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올리는 것인가요?

김응교 처음에는 제가 부탁을 했죠. 제가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하니까 누가 찍어서 올려 달라고 했죠. 그런데 재미있으니까 회원들이 점점 자발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한자음을 적은 노트를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요. 누리소통망의 폐쇄성을 오히려 생산적인 만남으로 만든 셈이니까 오시는 분들이 좋아하지요. 이런 공부를 십 년도 아니고 평생 계속하자고들 해요. 사람들이 꼭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공부를 하기 위

해서도 이런 매체를 이용하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지요.

차익종 신문, 방송, 출판 같은 대형 매체가 작가와 공동으로 판을 만들고 독자가 혼자 책을 읽거나 방송을 보는 시대는 끝난 것이군요.

김응교 독자는 더 이상 작가를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 직접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지요. 요즘에는 문학상을 받은 작품도 잘 팔리지 않는다고 아우성인데, 페이스북으로 직접 소통하는 헤민 스님, 공지영, 박경철 같은 분들은 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트위터 팔림벤티 많아요. 이분들의 세계는 제가 상상도 못할 정도이겠지요. 아무튼 인터넷에 서는 의사소통 구조가 바뀌는 것 같아요.

차익종 어떤 식으로 바뀐 것일까요?

김응교 인터넷 공간도 3단계를 밟아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인 중심주의인 누리집(홈페이지)이 있었지요. 그다음에는 다(多)중 중심주의인 블로그가 나왔고, 지금은 탈(脫) 중심주의인 누리소통망이 나와 비로소 개별적인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개개인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되었어요.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다르죠”

차익종 에세이집을 발간하고 2개월 만에 2쇄를 찍으신, 드문 경우도 이래서 가능한 것이군요(웃음). 그리고 보니까 인터넷 글쓰기가 언어 파괴나 막말을 낳는다고 논란이 되곤 하는데, 선생님이 경험하시는 공간은 일부러 막 쓰는 일은 없는 것 같네요. 왜 그럴까요?

김응교 책임감이 있는 공간이지요. 또 글을 쓰는 주체를 아니까 글을 정확히 만들어서 올리는 문화가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차익종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꼭 익명성이 지배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군요.

김응교 그렇죠. 특히 페이스북은 그 사람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더하지요. 재미있는 점은,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페이스북 관계가 트위터 관계보다 책임성이나 신뢰가 훨씬 강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사실 트위터에서는 그 사람이 올린 문구만 보게 되는데, 페이스북은 문장은 물론 그 사람의 사진, 친구 관계, 활동 정보까지 다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느낌이지요. 제가 하는 맹자 공부 모임 회원이 서른 명인데, 그중 두 명만 트위터 친구이고 나머지 스물여덟 명이 모두 페이스북 친구들이예요.

차익종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차이가 있군요.

김응교 전혀 다르죠. 트위터는 한 순간에 사방으로 퍼져 나가기 때문에 영향력이 굉장히 큼니다. “어디어디가 물에 잠겼어요” 하고 글을 올리면 실시간으로 확산되지요. 그럴 때는 신문보다 훨씬 무섭죠. 어떤 이념보다 훨씬 무서울 수 있어요. 또 집중도가 강합니다.

차익종 중심인물이나 화제가 부각된다는 뜻이지요?

김응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제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 중심인물이 되기 어렵지요. 반면에 페이스북은 관계가 더 번져 나가거든요. 트위터에서는 리트윗을 얻어야 자기 글이 퍼지는데, 그러려면 읽는 사람이 두 번 클릭해야 해요. 기술적으로 두 번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클릭 한두 번 하기가 몇 천 리 가는 일보다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한 번에 눈으로 보는 것과 클릭을 두 번하고 또 회원 가입까지 하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페이스북은 ‘좋아요’ 한 번뿐이잖아요. 그래서 ‘좋아요’를 얻기가 아주 간단해요.

차익종 ‘좋아요 취소’만 있지요(웃음).

김응교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페이스북은 대인 기피증이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당신 삶이 좋다, 당신 글이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지요.

차익중 세대, 취향, 목적에 따라 트위터나 페이스북 어느 한쪽을 주로 이용하게 되겠군요.

김응교 그런 셈이죠. 일단 저는 학생들에게는 양쪽을 다 해 보라고 권장해요. 그런데 대학생들은 트위터에는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트위터는 너무 방대해서, 대학생들이 자기 담론으로 딸림벚을 만들어 낼 수가 없어요. 2년을 해도 1,000명을 넘기기 힘들어요. 제 강의를 듣는 학생도 트위터에서는 저하고 ‘맞팔’을 안 하지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트위터가 두려운가 봅니다. 140자를 만들어 올린 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딸림벚이 되면 자기도 ‘맞팔’을 해 줘야 하는데, 받아 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숙제용으로 140자를 맞춰 올리는 정도이지요. 그렇지만 페이스북은 많이들 합니다. 친구만 가지고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제 큰아들이 대학 1학년인데 금방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점은, 제 아들이 저보고 페이스북의 자기 글에 ‘좋아요’를 누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아빠가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친구들이 다 끊어진다고(웃음).

차익중 폐쇄된 그룹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군요.

김응교 네, 자기들만의 공간을 유지하려는 것인데. 그게 또 페이스북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처음 시작은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차익중 누리소통망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있으셨나요? 숙명여자대학

교에 자리 잡기 전에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10년간 한국학 교수로 재직하셨는데 그때부터였나요?

김응교 아닙니다. 2009년 귀국한 이후부터지요. 정확히 말하면 2010년 8월 18일에 트위터라는 것에 처음 글을 올렸어요. 사실은 제가 대인 기피증을 벗어나기 위해서 시작했지요.

차익종 그런가요?

김응교 일본에서 10년을 살다 왔지요. 거기서는 제가 영락없는 한국 사람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적응이 안되었어요. 게다가 귀국하자마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했어요. 1년 가까이 대인 기피증에 시달렸어요. 친구며 친척도 안 만나게 되고,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질 않았지요. 그런데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밖에 나가지 않고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글을 올리고 남이 올린 것도 읽다 보니 차츰 ‘아, 한국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알게 되었지요. 집 밖에 나가지 않고도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를 배울 수 있다니, 아주 재미있었어요. 1년이 지나다 보니 트위터의 장점으로 열 가지를 꼽을 수 있었어요.

차익종 열 가지라면?

김응교 외로운 저에게는 쉽터이고, 정확한 뉴스이고,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매체이며, 자질구레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메모장 역할을 하고, 문장력이 좋아지고요, 좋은 일을 하는 수단도 되고, 사업하는 이에게는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고, 존경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차익종 정확히 열 가지군요(웃음). 실제로 그런 내용으로 평론과 논문을 쓰시기도 했지요(김 교수는 트위터와 문학이 만나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다룬 평론인 〈트위터러처, SNS시대의 문학〉을 발표한 바 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는 주로 어떤 글을 올리셨나요?

김응교 트위터에는 주로 하루에 곡 하나씩을 올렸어요. 새벽이든 아침이든 아무 때나, 제 공간에 들어오신 분들을 편안하게 해 드리고 싶었지요. 명상 음악 위주로, 심지어 두세 시간짜리를 올리고 저도 듣곤 했지요.

차익종 쉽더군요.

김응교 둘째로는 제가 공부하다가 발견한 좋았던 글, 신문 사설 중에 좋았던 것, 셋째로는 저의 철학적인 생각이나 정치적인 견해도 올렸지요. 넷째로는 되도록이면 대화를 나누려고 했어요. 대화를 안 하고 자기 글만 올리는 분도 있긴 하지만, 저는 저에게 질문하거나 응답해 주신 분들에게 일일이 답을 드렸어요.

차익종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요. 저도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누가 올린 글을 보아도 잠깐 다른 일에 신경 쓰다 보면 놓치기 일쑤인데요.

홀로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려 애써

김응교 저는 개별적인 단독성을 존중하려 애썼어요. 저의 단독성을 존중해 주셨으니까 저 역시 그분의 단독성을 존중하려 애썼지요.

차익종 페이스북에서도 그렇게 활동하셨나요?

김응교 페이스북에는 일단 정치적 내용은 잘 안 올립니다. 페이스북 친구 4,700명은 이미 친구 관계니까요. 제가 페이스북 습관이 들어서 학생들에게도 ‘내 벗’이라고 해서 깜짝 놀래키곤 하는데요, 페이스북은 모두 친구잖아요. 어차피 서로 함의가 있으니까 다 아는 점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래서 저는 극우나 극좌와는 친구 맺지 않지요. 종교적인 글을 그대로 올리는 분과도 친구 맺기 힘들지요. 성정이나 불경 구절을 그대로 올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



KIM EUNG GYO

@Sinenmul Seoul

13년만에 귀국한 金應敎. 시집 『씨앗/통조림』, 줄지 『한일 굴투라』 『韓國現代詩の精華』(東京:新幹社, 2007), 시인 이전 신동엽 박두진에 관한 책을 냈고, 양석일 『여동의 아이들』, 다니카와 순타로 『이십억광년의 고독』 등 번역. 속명 여대 선생

<http://cafe.daum.net/Jaemin>



Sinenmul KIM EUNG GYO

마지막 열번째, 트위터로 민주주의 지킬 수 있습니다. 재스민혁명 이전에, 이번 나쁜 선거 때 트위터 여론은 부분적 환상을 넘어 분명 효과가 있었습니다. 친구 공선생과 식사할 때 힘들어도 트위터 계속 하자고 부탁했었습니다

7분 전



Sinenmul KIM EUNG GYO

아홉째, 트위터를 통해 존경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글벗 길벗 영벗을 만났어요. 서로 글을 오랫동안 읽고 만나니, 신뢰할 수 있어요. 일본 홍대앞 부산에서 만나 저도 반갑게 줄지를 드렸죠. TV< 짝> 이상으로 트위터 짝도 좋아요~

13분 전



Sinenmul KIM EUNG GYO

여덟번째, 트위터는 비즈니스에 도움이 됩니다. 친구가 8천명 정도 되었을 때, 책을 그냥 소개했는데, 그 소개로 책이 팔렸다는 연락이 왔어요. 격려라고 생각하지만, 팔로수가 10만명 넘고 영향력 높은 사람들의 상업적 가치는 클 거예요

21분 전



Sinenmul KIM EUNG GYO

일곱째, 트위터는 좋은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와 음악을 알티하면서 정보를 나누고 격려합니다. 어느 출판사가 어렵다고 해서 한 구좌에 만원씩 입금하자 해서 짧은 시간에 몇백만원을 모은적도 있고, 희망버스야말로 트위터가 해낸일이죠

26분 전



Sinenmul KIM EUNG GYO

여섯째, 트위터 하면 문장력 좋아집니다. 요리를 매일 해야 늘듯이, 문장도 매일 써야 늘지요. 140자에 생각을 녹여내는 훈련, 특히 불필요한 부사 형용사를 없애고, 주어와 술어를 확실히 놓는 반복훈련! 문장의 고수를 만듭니다

37분 전

김응교 교수의 트위터 계정

해요. 경전이란 자기 몸으로 느끼며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 구절을 그대로 옮기는 일은 어떤 종교든 거부감만 줄 뿐이니까요.

차익종 지금 트위터 팔림벤티 3만 1,000여 명을 헤아리는데, 팔림벤티 늘어나면서 뭔가 달라지는 점도 있지 않을까요?

김응교 사실 처음 트위터를 시작할 때는 팔림벤티 200명 정도였어요. 그 때만 해도 트위터가 어떤 것인지도 몰랐지요. 그냥 세상을 배우는 재미, 제 외로움을 해소하는 재미로 살았지요. “나 같은 ‘듣보잡’을 누가 신경이나 쓰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낮 뜨겁고 부끄러운 내용도 많지요. 그런데 꾸준히 글을 올리다 보니 1년 만에 팔림벤티가 1만 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2만 명을 넘으니까 또 달라지더라고요.

“팔림벤티 늘어나니 적이 생겨요”

차익종 어떤 점이 달라지던가요.

김응교 이 매체의 부정적 기능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선 제가 쓴 글을 이리저리 짜깁기해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김응교가 이렇게 말했다’는 식으로 올려놓는 사람이 생기는데, 제가 한 말의 맥락을 완전히 뒤집어서 공격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3만 명을 넘으니까 ‘적’이 생겨요.

차익종 적이라면?

김응교 자기와 반대되는 입장을 용납 못하는 사람들이죠. 욕설, 비난을 올리지요. 불특정 다수의 모습이지만, 아주 조직적으로 합니다. 학교에까지 계속 전화를 하죠. 요즘에는 ‘봇’이라는 기능까지 이용해 새벽에도 저한테 계속 고약한 문구를 보내는 사람까지 있어요.

차익종 보통 일이 아니겠습시다.

김응교 그래서 신문사나 인터넷 회사에 연락해서 “그 글은 내가 쓴 글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한 것이니 지워 달라”라고 요청하는 일도 가끔 있을 정도지요.

차익종 그만큼 공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김응교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제야 실감한 것이죠. 팔림벗 3만 명이 되면서 생긴 또 하나의 변화는 언론사에서 자주 전화가 온다는 것이죠. 제가 올린 글을 보고 기사화하면서 추가로 인터뷰를 하겠다는 기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차익종 모 신문의 ‘말말말’에서 선생님이 트위터에 올린 문구가 자주 인용되긴 하더군요. 그런데 팔림벗이나 친구는 아직도 늘고 있나요?

김응교 트위터는 점점 더 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몇 십 명씩. 페이스북은 친구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르구요.

차익종 누리소통망에 대한 글에서는 긍정적 측면을 주로 강조하셨는데, 부정적 측면을 경험하시면서 생각이 또 달라진 면도 있겠군요.

김응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긍정만 하지는 않습니다. 팔림벗 2만 명, 3만 명 단계에서 느낀 것을 정리한 글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보다 훨씬 많은 사람과 소통하는 분들이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세계는 어떨지, 저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저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이의 학자, 그것이 나의 몫

차익종 그렇게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누리소통망의 삶을 계속하시겠지요?

김응교 그렇지요. 사실 제 삶 자체가 ‘사이’를 이어 주는 존재’를 지향했었어요. 특히 와세다대학교에서 강의한 10년의 경험, 저의 개인적인 철학 공부, 그리고 귀국한 후의 노숙인 인문학 강의를 통해 크게 느꼈지요.

차익종 조금만 들어 볼까요?

김응교 와세다대학교에서는 한국학 강의를 전담했는데, 거기서는 ‘공개 수업’이라고, 학부 1년 동안 전공의 벽을 허문 교양 강의를 운영합니다. 방식도 독특해서 학기 말 강의에는 동문, 학부모들에게도 강의를 개방해서 젊은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했어요. 졸업생과 후배, 엄마와 딸,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이지요.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강의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해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게까지 강의를 개방했어요. 일본어가 엉망이었으니 지금은 생각만 해도 부끄럽습니다.

차익종 귀국해서는 노숙인 인문학 강의를 하고 계시지요?

김응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숙인을 위한 민들레교실에서 강의했지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배우고 있어요. 제가 맡은 강의가 글쓰기인데, 첫 시간에 가서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좋은 글을 쓴다”라고 말하자, “우리는 도서관에서도 안 받아 주는 사람들인데” 하며 당황해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아, 이게 아니구나!”하고 깨달았어요. 곧바로 “여러분의 삶이 곧 텍스트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을 그대로 글로 쓰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날씨가 더운데 옷도리를 벗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허락을 받고 러닝셔츠만 입고 강의했지요.

차익종 방향 전환의 계기가 된 듯한 경험으로 들리네요.

김응교 크게 반성했지요. ‘어쩌면 나는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해 온 것이 아닐까. 어려운 책을 읽고 어려운 글을 써야만 좋다는 식으로.’ 그때부터 제 강의를 바뀌더라고요. “김애란 소설을 보세요. <두근두근 내

인생», 우리들의 엄마 아빠 시절 이야기를 재미있게 썼는데도 훌륭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삶을 곧 고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이지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문학이나 학문의 의미도 결국 일반 대중에게서 나오는 것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라캉이니 들뢰즈니 하는 이들도 대중 강연을 평생 계속한 것 아닐까. 박지원도 탑골공원 뒤에 서 매일 밤 술을 마시며 대중을 만났기에 틀에 박힌 전통 문체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저는 그래서 ‘사이의 인문학’을 하려고 하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운동주에 관한 강의와 강연을 부탁해 오고, 한국에서는 일본 문화와 문학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사이, 교실과 대중 강연의 사이, 학술과 작가의 사이, 이런 사이를 이어 주는 존재로 되려고 노력하지요.

차익종 ‘사이의 인문학자’로서 사명 의식을 갖고 계시군요.

김응교 학술적으로는 분명히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이데거, 레비나스 같은 분한테서 새삼 배웠지요. 하이데거에게선 사이의 존재학을 배웠고, 레비나스에게서는 ‘타자를 받아들이면 내가 무한하게 향유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대화형 교육인 하브루타를 일본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실제로 체험하면서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몸으로 배웠지요.

차익종 아무튼 그런 모든 것이 다 합해져서 선생님의 오늘날 모습이 형성되었으리라 느낍니다.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결론 삼아서 말씀하신다면, 누리소통망이란 선생님에게는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김응교 외로운 이를 위한 쉼터, 누구나 주체가 될 수 있는 매체, 그렇지만 부정적 기능도 있는 미지의 대상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차익종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눠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생기다’의 어원

김무림 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 ‘생기다’는 한자 파생어 ‘생하다(生--)’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은 ‘생기다’의 어원이 한자 ‘생(生)’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혹간에는 ‘생기다’를 ‘생기(生起)+다’의 구조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기다’는 순수한 우리 고유어로서 한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생기다’의 어원은 ‘삼다’로부터 출발합니다. 우선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생기다’와 ‘삼다’의 뜻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생기다 [생기어[--어/--여](생겨), 생기니]

[I] 「동사」

[1] 【…에/에게】

「1」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되다. ≍ 생하다01 「2」.

「2」자기의 소유가 아니던 것이 자기의 소유가 되다.

「3」어떤 일이 일어나다.

[2] 【…으로】 【-게】 ((‘…으로’나 ‘-게’ 대신에 ‘-이/히’ 따위 부사나 ‘…처럼’ 따위의 부사어가 쓰이기도 한다))((과거 완료상으로 쓰여)) 사람이나 사물의 생김새가 어떠한 모양으로 되다.

■ 삼다02 [삼:때] [삼아, 삼으니]

「동사」

【…을 …으로】

「1」 어떤 대상과 인연을 맺어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으로 만들다.

「2」 무엇을 무엇이 되게 하거나 여기다.

「3」 ((주로 ‘삼아’ 꼴로 쓰여))((‘…으로’ 성분은 단독형으로 쓰인 다)) 무엇을 무엇으로 가정하다.

현대 국어에서 ‘생기다’는 ‘나에게 돈이 생기다. 길바닥에 웅덩이가 생기다. 교통사고가 생기다. 영수는 똑똑하게 생겼다.’ 등과 같이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이며, ‘삼다’는 ‘고아를 양자로 삼다. 가르치는 일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다. 팔을 베개 삼아 눕다.’ 등과 같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입니다. 현대 국어 ‘생기다’는 중세 국어로 소급하면 그 형태가 ‘삼기다’이며, ‘삼기다’는 ‘삼다’에 접미사 ‘-기’가 붙어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글에서는 순수한 고유어인 ‘생기다’의 어원에 대해 설명하면서, 용법의 변화와 형태의 변화, 그리고 한자 ‘生(생)’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세 국어 및 근대 국어의 형태를 기준으로 하면 ‘생기다’의 어원적 형태는 ‘삼기다’였습니다. ‘삼기다’는 ‘삼+기+다’로 분석되며, 이 말은 ‘삼다’에 접사 ‘-가’가 연결된 형태입니다. 그런데 중세 국어의 ‘삼기다’는 타동사 용법과 자동사 용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세 국어 및 근대 국어의 ‘삼기다’

- 하늘히 그리 삼기니 과그리 사르미 상하여 엇지하노 《순천김씨 묘 간찰 54》
- 하늘 삼긴 나호로써 죽거늘 《소학언해 6-52》
- 텃디 처음 삼길 제 비로소 두 놓이 동히 굴산의 이셔 《마경언해 상1》
- 혼 몸 둘헤 논화 부부를 삼기실샤 이신 제 흠씩 늙고 주그면 혼디 간다 《경민편언해 38》

고어(古語)의 용법을 보면 ‘삼기다’는 ‘하늘(하늘하)’이나 ‘천지(텃디, 天地)’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천지창조(天地創造)’의 개념과 비슷하여, 고어인 ‘하늘히 삼기다’를 현대 국어로 직접 풀게 되면, ‘하늘이 생기다.’가 되지만, 의역하자면 ‘하늘이 (어떤 것을) 만들다.’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용법으로부터 ‘삼기다’의 자동사 용법과 타동사 용법이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 국어에서 ‘생기다’는 자동사 용법만 있으므로, ‘부부를 삼기다’와 같은 고어의 표현은 ‘부부를 생기다’로 풀 수 없고, ‘부부를 삼다’ 또는 ‘부부로 만들다.’와 같이 타동사를 사용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삼기다’란 형태가 현대 국어 이전까지 줄곧 사용되었지만, 이와 함

께 ‘싱기다, 습기다, 생기다’ 등의 ‘삼기다’에서 변화된 형태도 근대 국어 후기의 문헌에 나타납니다.

19세기 문헌의 ‘싱기다, 습기다, 생기다’

- 초목으로 뒸든 물건이 오래되면 습기가 그 중에서 싱겨 《독립신문》 1896. 4. 9.
- 곡식이 생기면 노주량식하고 돈이 생기면 모화중을주며 《십생구사7》
- 우리는 天性을 직히여 습긴 덕로 흐리라 《가곡원류 95》

근대 국어 후기에는 모음 ‘ㅇ’이 소멸된 상태이므로, 어두에서 ‘삼’과 ‘습’의 발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삼기다’가 ‘습기다’로 표기된 것은 음성 언어의 측면에서는 형태의 변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삼기다’에서 ‘싱기다/생기다’가 된 것은 음운 변화의 원리에 의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즉 ‘ㅣ’ 모음 역행 동화와 조음 위치 역행 동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삼기다’에 ‘ㅣ’ 모음 역행 동화를 적용하면 ‘쌔기다’가 되고, ‘삼기다’에 연구개음 ‘ㄱ’에 의한 조음 위치 역행 동화를 적용하면 양순 비음인 ‘ㅁ’이 연구개 비음 ‘ㅇ’으로 바뀌어 ‘상기다’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동화를 함께 적용하면 ‘생기다’가 되며, 모음 ‘아’를 ‘ㅇ’로 표기하면 ‘싱기다’가 됩니다.

‘ㅣ’ 모음 역행 동화는 ‘지팡이’를 ‘지팽이’로, ‘아비’를 ‘애비’로, ‘어미’를 ‘에미’로 발음하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뒤에 오는 모음 ‘ㅣ’의 영향을 받아 앞에 오는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조음 위치 역행 동화는 ‘감기’를 부주의하게 발음하면 ‘강기’가 되고, ‘신문(新聞)’의 발음이 ‘심문’과 잘 구별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뒤에 오는 자음의 조음 위치에 따라 앞에 오는 자음의 조음 위치가

바뀌는 수의적 현상으로 조음 위치에 의해 동화된 발음은 표준발음에
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지금까지 ‘생기다’의 어원과 형태 변화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한 가
지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ㅣ’ 모음 역행 동화와 자음의 조
음 위치 역행 동화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어의 표기법에 반
영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삼다’란 말이 현대 국어에도 버젓이 살
아 있는 언어 현실에도 불구하고, 중세 국어 ‘삼기다’에서 변화된 ‘생기
다’가 현대 국어에서 표준어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싱기다/생기다’
의 어원이 한자 ‘生(생)’이나 한자어 ‘生起(생기)’와 관련 있을 것이라는
언중의 의식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한자 ‘生’의 중세 국어 및 근대
국어 한자음이 ‘싱’이며, 근대 국어 문헌에 ‘생기다’보다 ‘싱기다’란 표기
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언중의 이러한 잘못된 어원 의식에 그 원인이 있
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중세 국어(15~16세기의 국어)에서는 모음 ‘ㅇ’와 ‘야’의 차이가 음
운적 변별을 보였으므로, 이에 따라 ‘생’과 ‘싱’의 발음 차이도 뚜렷했습
니다. 그러나 근대 국어(17~19세기의 국어) 시기에 모음 ‘ㅇ’가 소멸하
면서 ‘생’과 ‘싱’의 구별 표기에도 혼란이 생겼습니다. 더구나 한자음의
표기는 보수적인 것이어서, 중세 국어 이후부터 현대 국어 이전까지
‘生’의 한자음은 항상 ‘싱’으로 표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생기다’의 어
원은 한자 ‘生(싱)’에도 그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원(語源)
탐구는 순수하게 말의 근원을 찾는 행위입니다. 비록 ‘삼기다’에서 ‘싱
기다’를 거쳐 ‘생기다’로 변화한 부분적인 힘을 한자 ‘生(싱)’에서 찾을

수는 있지만, 한자 ‘生(싱)’이 어원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나 사이비(似而非)의 원리가 어원 탐구에도 적용됩니다. 생긴 대로만 파악하지 맙시다.

참고 문헌

김무림(2004), 《국어의 역사》, 한국문화사.

김무림(2012), 《한국어 어원사전》, 지식과교양.

유창돈(1973), 《어휘사 연구》, 선명문화사.

21세기 세종 계획(<http://www.sejong.or.kr>) 한민족 언어 정보 검색

봄날의 풍경—쓸쓸하거나 따뜻하거나

한혜경 문학 평론가, 명지전문대학 문예창작과 교수

1. 봄날, 따스하지만 무심한

봄이다! 지난겨울 혹독한 추위 속에서 그리도 멀어 보였던 봄이 이제 우리 곁에 와 있다. 나뭇가지에 푸릇푸릇 돋은 새순을 보며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사실에 새삼 감사하게 된다.

봄에는 김동인의 〈배따라기〉 도입부가 떠오른다. 모란봉 일대 따스한 봄날의 정취에 흠뻑 빠진 주인공이 대동강의 뱃놀이, 모란봉 기슭의 ‘새파랗게 돌아나는 풀’, ‘모란봉 꼭대기에 올라가면 넉넉히 만질 수가 있으리만큼’ 낮은 하늘 등을 정감 있게 묘사하고 있어서이다. 화자는 하늘을 ‘우리 사람의 이해자인 듯이’ 느끼며 자연을 뛰어넘는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삶의 고단함을 아직 체험하지 않은 젊은이의 자신만만함을 감지할 수 있다.

이처럼 젊은 날엔, 내 앞에 펼쳐지는 시간의 도화지에 마음대로 색칠만 하면 멋진 그림이 완성되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애초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깨달으며 나이를 먹어 간다. 아

름다운 그림과는 거리가 먼 형태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며 속수무책이
란 말의 뜻을 절감하기도 하는 가운데 무심한 시간은 흐른다.

그리하여 한세상 살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내 삶은 어떤 모양
으로 기억될 것인가?

1965년생 여성 작가 정지아에게 포착된 삶은 ‘잔허고 애달픈’ 것이
다. 1990년 장편 소설 〈빨치산의 딸〉을 펴내며 작품 활동을 시작, 단편
〈풍경〉으로 제7회 이효석문학상을 수상한 정지아는 진한 전라도 사투
리로 세월의 무정함과 그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엄
연함을 그리고 있다. 한평생 양지를 밟아 본 적이 드문 인물들을 통해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며’ 살고 있는 민초들의 팍팍한 삶의 풍경을 담아
내는 것이다.

〈뭇〉(《ASIA》 2006 가을), 〈봄빛〉(《문예중앙》 2006 여름),
〈봄날 오후, 과부 셋〉(2009 이상문학상 작품집)은 모두 봄날을 배경으
로 노인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들이다.

노년에 이르러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데는 가을이 어울릴 법하
지만 이 이야기들은 부싯 봄빛 아래 펼쳐진다. 봄빛은 따스하지만, 고
단한 삶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행복한 자이건 불행한 자이건
누구에게나 ‘골고루 따스하게도 내리쬐이고’ 있지만, 그 아래 벌어지는
인간들의 아픔이나 괴로움을 위무하는 것은 아니다. 봄날은 따뜻하지
만 그 아래 펼쳐지는 풍경은 따뜻한 것만은 아님을 확인하게 된다.

2. “인생이 워디 책에 써진 대로만 돼가니요”

〈뭇〉의 주인공 건우 씨는 탄생부터 예순이 넘은 현 시점까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험한 삶으로 내몰린 인물이다. 태어나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어미 목숨을 잡아먹고 나온 자식’이 되어 버렸고 다섯 살 때 병명도 모르는 병을 앓고 반병신이 된다. 일곱 살부터 작은 집에 맡겨진 그는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으려면 새벽에 일어나 일해야 한다는 누이의 말을 신조로 삼고 살아온다. 부지런히 일을 해서 땅을 마련하고 결혼도 해서 아이도 낳았으나 여자는 백일 지난 어린 것과 논문서를 들고 사라진다. ‘사방 천지에 웃음을 흘리고’ 다닐 정도로 흐트러진 순간은 손으로 물을 움켜쥐면 금세 흘러나가듯이 흘러가 버린 것이다.

행복이란 허용되지 않는 듯한 건우 씨의 삶에서 유일한 낙은 일 년에 한 번 자운영이 필 무렵 찾아오는 누이를 만나는 것이다. 새벽 단잠에 취한 일곱 살짜리 동생을 깨워 집을 떠나며 “오늘부터 새벽에 일어나 해. 니가 젤 먼저 일어나서 마당 쓸고 군불 떼고 그려야 해” 하며 호의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 내야 하는 자의 수칙을 일러 준 누이는 그의 유일한 가족이자 평생 멘토인 셈이다. 장가간 후에는 “남들맹키 식구 건사하고 살라면 남들보담 시배는 열심을 부려야 한다”고 했고 나이를 먹은 뒤에는 “늘그막에 돈할라 없으면 천덕꾸러기 되야”라고 조언한다.

이처럼 동생을 걱정하지만 누이는 단 하루 머물고 시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어린 시절 건우 씨는 누이가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누이의 손과 자신의 손을 새끼줄로 꿰뚫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눈을 뜨면 누이는 가고 없고 그 상실감을 이기지 못해 건우 씨는 매번 포악을 부려 왔다.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소주를 들이부으며 문밖을 걷어

차고 햇대를 때려부수기도 했지만, 그런 세월이 십여 년 흐르자 어떻게 해도 누이는 떠날 것이고 자운영이 피면 또 돌아올 것임을 알게 되고부터 더 이상 새끼줄로 손을 묶지 않게 된다.

‘소주 뒷병을 들이붓지 않고는 마음에 일렁이는 화증을 견딜 수 없던 시절’도 있었으나 자신이 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빈손’임을 깨달은 그는 자신에게 부과된 삶의 무게를 감내하며 살아간다. 누군들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겠는가만 ‘그리 살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 시상지사(世上之事)(<세월>)인 것이므로 밥을 먹고 기운을 차려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하찮은 것에라도 기대어 고단한 삶을 이어 가야 하는 것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팍팍한 삶을 몸으로 뼈아프게 겪어낸 자에게 인생은 책에 기록된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인생이 워디 책에 써진 대로만 돼가니요”라는 말은 뭐든지 책에 쓰인 대로 하려는 도시에서 귀농한 옆집 남자에게 건네는 말일 뿐 아니라, 직접 몸으로 생의 굴곡을 견뎌낸 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3. 고리대금업자 같은 비정한 세월

<봄빛>은 완벽을 추구하는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쳐 아버지와 의절하다시피 살아온 주인공이 치매가 온 아버지를 바라보며 회한에 젖는 이야기이다.

한때 ‘호랑이맨치 불을 뿜’던 눈이 ‘흐리멍텅하게’ 변하고, 늘 어딘가를 향해 바빠 걸어가던 ‘짹짹한 걸음’은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곧 쓰러질 듯 위태로’워진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착잡하다.

그의 아버지는 가혹한 운명을 극복해 온 자이다. 여덟 살에 아버지를 잃고 병약한 어머니와 갓난쟁이까지 포함한 동생이 셋, 누이까지 자신이 짊어져야 할 ‘혹’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눈앞이 캄캄했다. 그런데 “눈앞이 캄캄형게야, 무선 것이 없드라. 죽기배끼 더허졌냐” 하는 마음으로 생을 개척해 온 것이다. 하루 세 시간 이상을 자본 적 없이 교사를 하면서도 논밭 농사를 야무지게 해 내던 아버지는 대학 입시에 계속 실패하고 늦은 나이에 이류 대학에 들어간 그에게 ‘죽어도 올라갈 수 없는 아득한 산’과 같은 존재이다.

그 판에는 안간힘을 써도 아버지에게는 언제나 부족한 아들이었다. 부족을 메우고 싶어 발버둥친 적도 있었고 발버둥치기를 포기한 적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아버지와 대결에 목숨을 거는 것 자체가 쓸데 없는 시간 낭비임을 깨달은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아버지는 ‘그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맥’이었는데, 그가 넘어서기도 전에 세월이 야금야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운명을 무릎 꿇렸듯 세월도 무릎 꿇게 할 거라고 기대했으나 세월 앞에서는 어쩔 도리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어머니 역시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주인공을 놀라게 한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며 아버지 앞에서 발소리도 내지 않던 어머니는 이제 큰 소리로 딱박딱박 말대답에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따뜻하고 순종적이던 어머니의 변화는 “워쨌 우리 엄마 같들 았다”라는 누이의 말에서도 잘 드러난다. 겨우 몇 가지 반찬만 준비한 밥상과 계속 이어지는 잔소리에서 그는 어머니의 노쇠를 감지한다. 죽음보다 더한 치매 선고를 받고도 피곤해서 잠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모님의 몸이 늙었다는 사실과 동시에 ‘고리대금업자 같은 비정한 세월’이 자신으로부터도 수금을 시작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부모가 그의 생명을 키워냈듯 이제는 그가 그들을 품어 그들이 세월에 빛진 생명을 온전히 놓고 죽음으로 떠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받은 것은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것’이라는 냉정한 생명의 법칙을 깨닫는다. 눈앞이 캄캄하지만 예전의 아버지처럼 그 역시 이상하게 무섭지 않다. 자연의 법칙 앞에서 순응할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긴 터널을 빠져 나오자 흐드러지게 피었던 개나리며 진달래가 짙어가는 봄빛 속에 시들시들 말라 가고 있었다. 그 꽃이 지면 산에는 봄이 농익어 사철 중 가장 찬란하게 타오를 것이었다”라는 마지막 문장은 인간사와 무관하게 흘러가는 자연의 법칙을 환기시킨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겨울 뒤 다시 봄이 오듯이 생명의 순환은 어김없으며, 그 사실을 인지할 때 인간사의 굴곡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4. “죽지 못할 바에는 재미나게 살아야지”

〈봄날 오후, 과부 셋〉은 읍내에 하나밖에 없던 보통학교 동창으로 이제는 여든이 넘는 과부 에이코, 하루코, 사다코의 이야기이다. 어릴 때 일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한 탓에 일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더 친숙한 이들은 세월이 흘렀지만 어릴 적 성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욕심도 많고 지기 싫어하는 성품의 에이코는 약국 조수와 결혼하여 일찌감치 재물을 모은다. 자식 뒷바라지에 열성이지만 자신의 욕망에도 충실하여 남편이 죽은 뒤 몇 명의 남자와 연애를 한다. 소심하고 착한 하루코는 교사인 남편이 학교에서 쫓겨난 뒤 고향에 돌아와 에이

코가 차려 준 책방을 하며 산다. 한 치 흐트러짐 없는 성격에 공부 잘하고 얼굴도 반반하여 늘 주목받던 사다코는 동경제대 나온 남자와 결혼하지만 남편 따라 산사람이 되고 감옥살이를 하는 등 역사의 질곡을 몸소 겪은 인물이다.

삶이란 누군가 자신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가 ‘빨래를 건듯 목숨 줄을 획 걷어 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나이에 이르렀지만 에이코는 시샘과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사다코에 대한 감정은 복잡 미묘하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가진 것이 없는 데도 당당한 사다코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루코가 온갖 도움을 다 주는 자신에게가 아니라 사다코에게 속 얘기를 하는 것에 심통이 난다. 사다코가 산에서 남편을 잃고 후에 같은 이력을 가진 가난뱅이와 결혼할 때 거액의 부조를 하면서 “공부 잘했다고 인생 잘 풀리는 게 아니다. 이래서 세상은 살아 봐야 하는 거”라고 만족스러워하기도 하지만,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 사다코에게 번번이 비위가 상한다.

그렇다면 이들의 삶을 이끌어 온 동인은 무엇일까?

“너는 대체 무슨 맛으로 살았니?” 에이코의 질문에 사다코와 하루코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너야 자식 때문에 살았을 거고, 하루코는 남편 때문에 살았을 거고, 글썄 나는, 뭇 땀에 살았나…….” “사다코는 사상이 있잖아, 사상이. 우리 영감도 그랬는걸. 어찌면 우리 영감은 나보다 그게 더 중요했는지도 몰라.” 평생 누구에게도 기죽지 않고 당당했던 사다코의 비밀이 풀리는 지점이다.

“사상이고 뭐고, 살아 보니 다 덧없다. 죽으면 다 한 줌 재지, 뭐”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그런 책들을 놓지 않고 있는 사다코의 모습을 통해 작가는 에이코의 물질, 하루코의 부부에 못지않게 사상이나 동지애가 삶을 굳건히 견디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동안 걸돌았던 이들의 관계는 한순간 함께 웃음으로 화해에 이르게 된다. “할 수만 있다면 허 깨물고 깨끗이 죽었으면 좋겠구만”이라고 말하던 사다코가 “죽긴 왜 죽어! 하루라도 더 재미나게 살아야지”라는 에이코의 생각에 동조하는 것이다. 티격태격하던 이들의 대화는 “죽지 못할 바에는 재미나게 살아야지”로 귀결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하지만 중요한 결론에 이른다.

시장기를 느끼고 밥을 먹는 것, 그리고 웃음을 터뜨리는 것은 바로 생명의 표현이다. 특히 고기를 사러 가며 ‘살아 있는 한 재미있게 살 작정’을 하는 에이코는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젊고 활기차다. ‘봄별 속으로 네 활개를 치며’ 걸음을 옮기는 그녀의 모습은 화창한 봄날에 어울리는 장면이다.

5. 봄날, 무심하지만 생명이 약동하는

누구에게나 봄빛은 골고루 내리쬐이고 누구든 예외 없이 주었던 것을 되돌려 받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다 가고자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세상지사’라 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정지아의 세 소설은 봄날의 각기 다른 풍경을 통해 그 대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 같다. 잠시의 행복도 허용되지 않는 듯한 삶에선 작은 것이라도 위안을 얻으며 살거나 체념의 지혜를 체득해야 하고,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제아무리 강한 인간이라도 무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여든이 넘어도 생의 의욕을 복돋을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인간이란 수북한 밥 한 사발에 행복을 느끼는 존재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물질과 무관하게 정신적 자산으로 배부를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 준다. 또한 세월이란 비정한 고리대금업자와도 같지만 그 사실을 인정할 때 무서울 것이 없음을 보여 주기도 한다. 그리고 살고자 하는 의지만 강하다면 여든이 넘는 나이라도 열네 살 소녀 같은 생기를 지닐 수 있음을 보여 주면서 우리를 봄날의 풍경으로 초대한다.

누리소통망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귀 기울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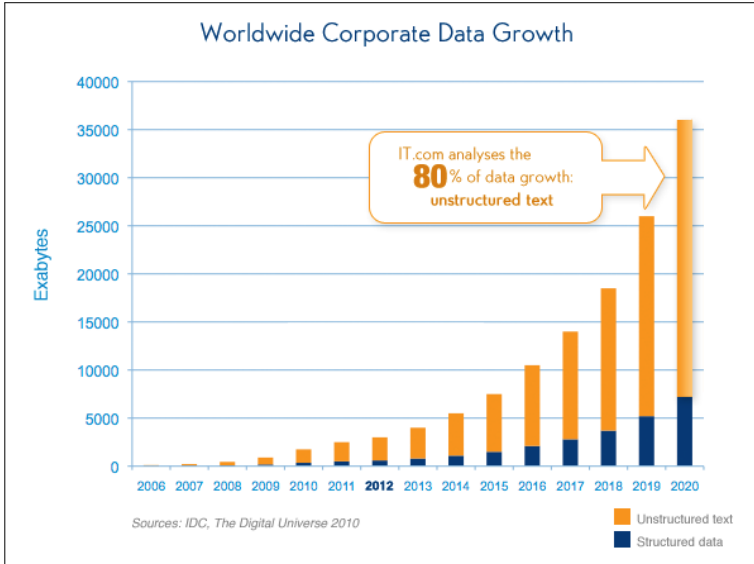
이기황 (주)다음소프트

1. 빅데이터 시대의 소셜 미디어

우리는 바야흐로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다. 빅데이터란 기존의 자료 처리 방법으로는 수집, 저장, 분석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의 자료를 말한다. 빅데이터의 주요 특징은 자료의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자료의 형태 또한 다양하다는 것이다. 즉, 빅데이터에는 숫자, 문자, 사진, 동영상, 음악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포함된다. 이들 가운데 문자, 사진, 동영상, 음악 등은 일반적으로 구조화가 잘되어 있는 정형 자료인 숫자 형태의 자료에 대비하여 비정형 자료로 분류한다(함유근·채승병 2012).

그림 1은 자료가 최근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자료의 많은 부분이 비정형 자료임을 보여 주고 있다. 비정형 자료의 대부분은 문자로 표현된 텍스트인데, 이는 최근에 크게 활성화된 누리소통망을 포함한 소셜 미디어의 보급과 무관하지 않다.

그림 1 자료량의 증가와 비정형 자료의 비율



출처: <http://www.it.com/technology>

소셜 미디어의 큰 특징은 그야말로 ‘소셜’, 즉 ‘사회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기존 미디어에서와는 달리 사회 구성원들이 정보의 생성과 소통의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이끌어 간다. 사회적 상호 작용은 친하지 않은 사람들, 나아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며, 사적 생활의 요소가 높은 수준으로 공개되기까지 한다. 소셜 미디어상의 언어 활동은 여론과 사회적 의견을 형성할 수 있을 만큼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황유선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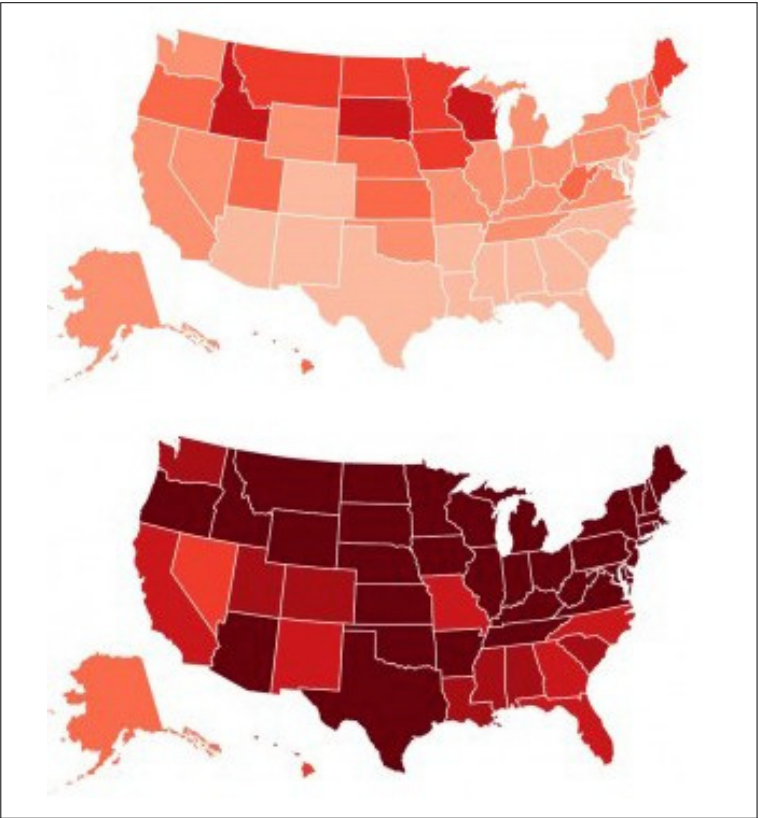
이렇듯 영향력이 큰 소셜 미디어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공중 보건 분야이다. 공중 보건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전염성이 높은 유행성 질환에 대한 대처이다. 특히 독감은 매년 발생하는 계절 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최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 대표적인 누리소통망인 트위터를 이용하여 미국 내 독감 발생 및 확산 양상을 파악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Sneiderman 2013). 이 연구에서는 140자 이내로 작성된 트위터 글귀에서 독감이 언급된 경우를 지역별로 분류하여 독감의 확산 양상을 추적하였다. 물론 엄청난 양으로 생성되는 트위터 글귀를 사람이 읽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컴퓨터로 사람의 언어를 처리하는 자연 언어 처리 기술을 사용하였다. 이때 실제 독감에 걸린 상황(“나 지금 독감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이 아닌 일반적인 독감에 대한 이야기(“독감을 예방하려면 손을 잘 씻어야 한다”)나 자신이 아닌 유명한 사람이 독감에 걸린 이야기(“가수 ○○○이 독감에 걸려서 공연이 취소되었대”)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독감 감염에 관련된 글귀만을 가려내기 위한 첨단 기술이 동원되었다. 그림 2는 이러한 방식으로 파악한 2013년 1월 첫 주의 독감 발생 양상과 2012년 같은 기간의 독감 발생 양상을 함께 보인 그림이다.

그림 2에서 짙은 색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독감이 창궐한 지역으로 2013년 1월 첫 주에 2012년 같은 기간에 비해 독감이 심하게 번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방법의 유용성은 미국 질병 관리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독감 발생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되었다.

누리소통망에서 위와 같은 자료를 얻는 데에는 많은 이점이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이러한 자료를 거의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누리소통망의 글을 수집하여 빠른 속도로 분석하여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자료를 전통적인 방법에 의존하여 수집할 경우 두 주가 걸린다고 한다. 자료 수집에 소요

그림 2 2012/2013년 1월 첫 주 미국의 독감 발생 양상(Sneiderman 2013)



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국민 전체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감의 발생과 확산에 조기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그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2. 누리소통망을 통해 살펴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위의 사례는 누리소통망의 언어 자료 분석을 질병의 발생과 확산의 추적이라는 특정 과제에 적절히 활용한 예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독감 등의 질병이 아니라 누리소통망에 글을 쓰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다. 나는 이 세계 안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으며,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글쓰이의 일터에서는 소셜 미디어로부터 수집된 문서로 이루어진 빅데이터(소셜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읽는 일을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¹⁾

2.1. ‘기분’이 어떠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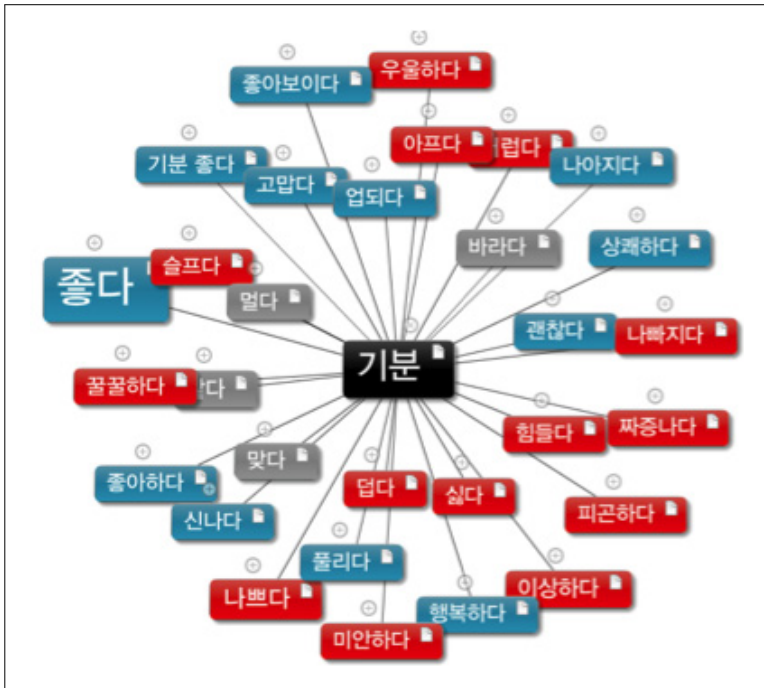
사람은 감성적인 존재이다.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사람의 큰 특징으로 이성을 들기도 하지만, 사람의 행동에 감성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사람들의 감성의 단면, 구체적인 언어 표현으로는 ‘기분’이 어떠한지를 누리소통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림 3은 소셜메트릭스(SOCIALmetrics™)²⁾에서 관심어 ‘기분’에 대한 연관어들 가운데 감성어들만 추려 보인 것이다.³⁾ 해당 기간에 우

1) 이후의 내용은 전적으로 송길영(2012)에 의존하여 작성되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인용은 생략하였으며, 본문의 ‘우리’는 글쓰이의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지칭한다.

2) 소셜메트릭스(SOCIALmetrics™)는 글쓰이의 일터에서 개발하여 사용하는 소셜 빅데이터 분석 도구이다. 일반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http://www.some.co.kr/socialSearch.html>에서 제공한다.

그림 3 '기분'의 연관어(SOCIALmetrics™, 2011. 5. 1.~1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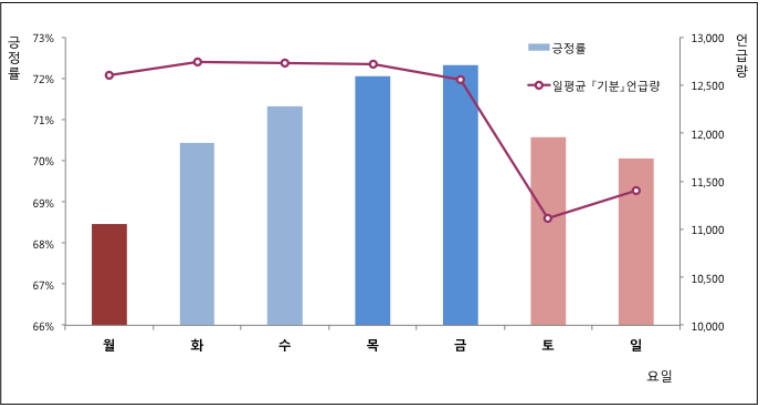


리말로 작성된 특정 누리소통망 글 5억여 건 가운데 ‘기분’이 포함된 문서는 550만 4,018건이었는데, 긍정률을 측정해 보니 대략 66.4%였다.⁴⁾ 안타깝게도 이 수치는 큰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 적

3) 연관어란 주요 분석 대상인 관심어와 함께 쓰이는 언어 표현을 말하며, 감성어는 다양한 언어 표현들 가운데 사람의 감성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것들을 가려 뽑은 것으로 긍정어와 부정어로 나뉜다.

4) 긍정률은 ‘긍정 표현 언급량/(긍정 표현 언급량 + 부정 표현 언급량)’의 공식으로 계산한다.

그림 4 요일별 기분의 변화(SOCIALmetrics™ 2011. 5. 1.~1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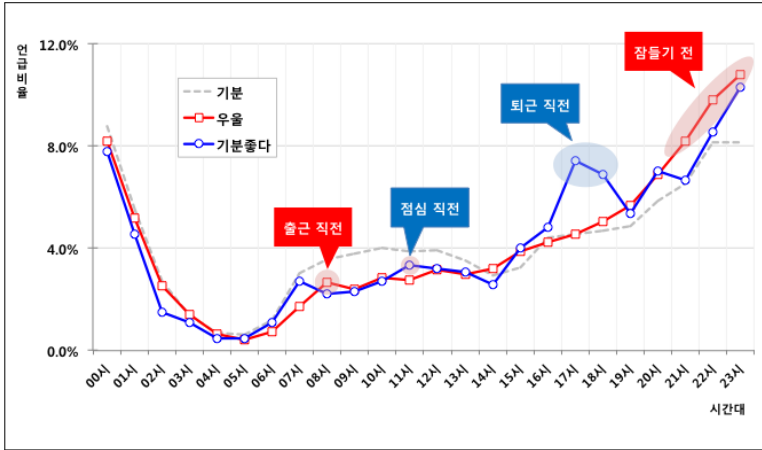


어도 누리소통망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66.4%만큼 기분이 좋다'와 같은 해석을 할 수 없다. 이 긍정률에 조금이나마 의미를 부여하려면, 다른 기간에는 어떠했는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떠한지 등의 비교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분은 일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한다. 반복되는 매주의 삶을 살면서 특히 기분이 좋은 요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요일이 있을 것이다. 그림 4는 일주일간 기분의 연급량과 이에 대한 긍정률의 변화를 보인 것이다.⁵⁾ 이 그림에 따르면 '기분'은 주중에 거의 일정하게 연급되다가 주말에는 연급량이 줄어든다. 기분에 대한 긍정률의 변화 추이는 상식적인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친 몸을 이끌고 등교 혹은 출근을 하는 월요일에 가장 부정적이었다가 주말을 향하여 갈수록 점차로 긍정률이 높아져 금요일에는 정점에 이른다. 흥미로운

5) 연급량은 상대적 비교를 위해 정규화한 것이다.

그림 5 시간대별 기분의 변화(SOCIALmetrics™, 2012. 4. 1.~4. 15.)



것은 기분의 긍정률이 토요일에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주말을 즐겁게 보내야 하지만 막상 기분은 좋지 않은 것이다. 아마도 주말이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고달픈 생활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한다. 월요일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쁜 것이다. 오늘을 즐기보다는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대 한국인의 삶일 것이라는 짐작도 해 본다.

그러면 주중의 하루 일과에서 기분의 변화는 어떠할까? 그림 5에서는 하루 동안 ‘기분’, ‘우울’, ‘기분 좋다’의 세 언어 표현 언급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가장 우울한 시점은 출근 직전과 잠들기 전이며, 가장 기분이 좋은 시점은 점심 직전과 퇴근 직전이다. 그럴 것 같다. 하루의 고달픔이 시작되기 직전인 출근 직전, 그리고 내일을 염려하는 잠들기 전이 가장 우울한 시점이고, 잠시나마 이에서 벗어나기 직전인 점심 직전과 퇴근 직전이 가장 기분이 좋은 시점이다. 앞서 살

펴본 일주일간 기분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하루를 놓고 봐도 사람들의 기분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염려에 따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느낌을 누리소통망에 토로하여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이를 통해 위로받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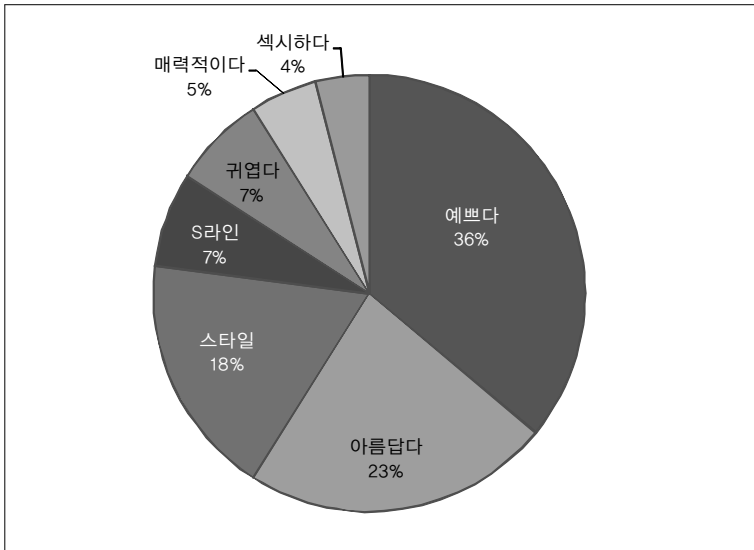
2.2. 누가 가장 ‘미인’일까요?

감성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기분도 사람에 따라 좋고 나쁘고의 기준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사람마다 살아온 배경과 경험, 심성이 다른데 같은 느낌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주관적인 감성도 사안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호 작용은 몇 안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짧은 시간 안에 큰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증폭된다. 가수 싸이의 뮤직비디오가 86일 만에 유튜브 조회 수 4억 회를 넘은 것은 네트워크 효과의 한 예다.

주관적 감성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한 단면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누리소통망에서 누가 가장 예쁘다고 언급되는지를 알아보았다. 미의 기준 역시 단일하지 않기에 우리는 먼저 사람들이 ‘미인’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감성 표현을 함께 언급하는지 살펴보았다. 그림 6은 그 결과다.

그림 6에서 ‘미인’의 연관 감성어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당연히게도 ‘예쁘다’(36%)와 ‘아름답다’(23%)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스타일’(18%), ‘S라인’(7%), ‘귀엽다’(7%), ‘매력적이다’(5%), ‘섹시하다’(4%)가 뒤를 따른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귀엽다’의 점유율은 7%에 그친다는 점이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귀엽다’와 ‘예쁘다’가 거의 같은 개념을 나타내기도 하는 모양이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예쁜 사람은 미인이지만 귀여

그림 6 ‘미인’의 연관 감성어 점유율(SOCIALmetrics™, 2010.9.1.~2012.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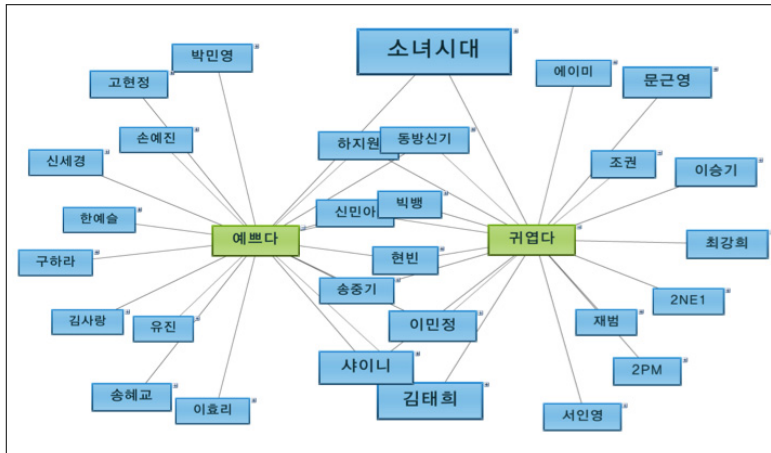


운 사람은 그다지 미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림 7에서는 ‘예쁘다’와 ‘귀엽다’와 함께 언급되는 유명인들을 살펴보았다. 이 그림은 예쁘지만 귀엽지는 않은 유명인들과 귀엽지만 예쁘지는 않은 유명인들을 나누어 준다. 물론 가운데 위치한 예쁘면서 귀여운 이들도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의 으뜸 모델들이다.

재미있는 것은 예쁘고도 귀여운 유명인으로 남자인 ‘현빈’, ‘송중기’, ‘샤이니’ 등이 언급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성별 구분이 점차 열리고 있는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제는 남자들도 꾸미고 가꾸는 시대가 되었다. 2005년 이래 남성복 매출 점유율이 여성복 매출 점유율보다 항상 높다고 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여성들이 옷을 사지 않는 것으로 알았는데, 3년 내내 같은 양상을 보이자 남성들

그림 7 예쁘면서 귀여운 유명인(SOCIALmetrics™, 2010. 9. 1.~2011. 4.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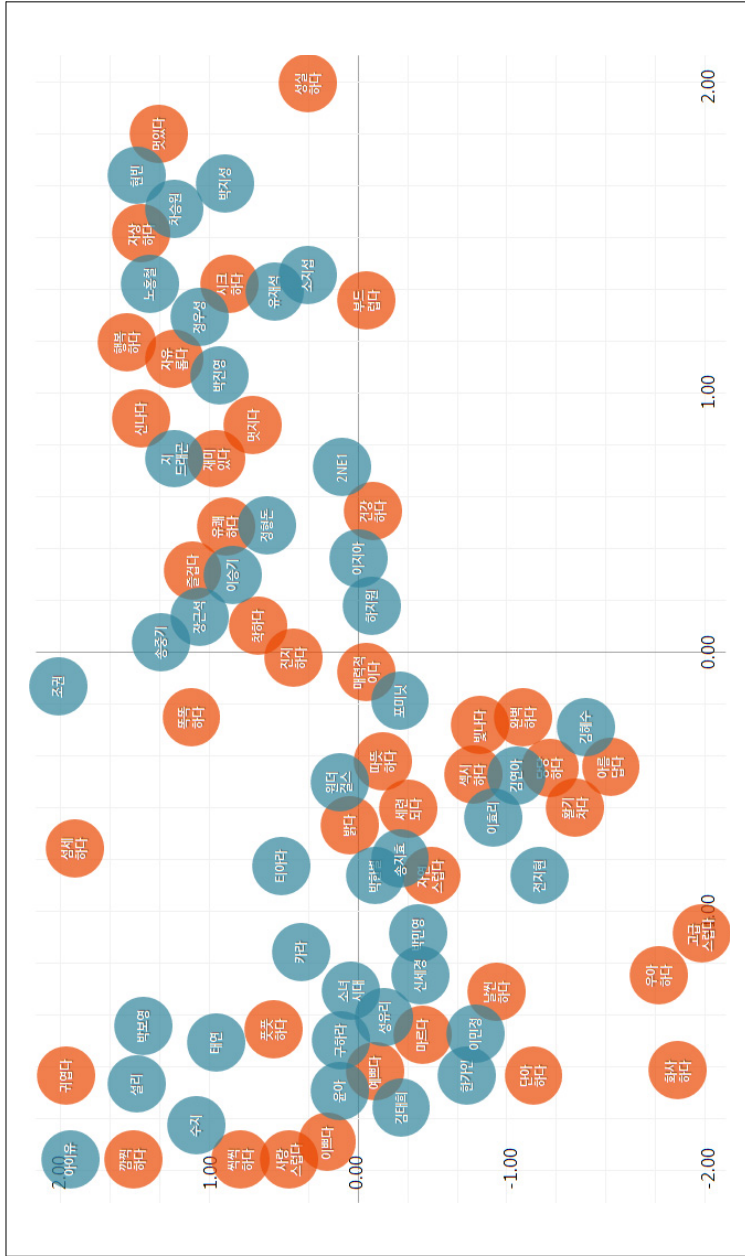
이 옷을 적극적으로 산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남성화 상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세태에 걸맞은 현상이다.

2.3. 감성의 지도를 그리다

감성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고 또 변화하는 것이지만, 다분히 보편적 이기도 한 것 또한 사실이다. 사람들이 전혀 다른 시대에, 다른 문화에서 쓰인 문학 작품을 읽고 울고 웃으며 공감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비교적 보편적인 감성을 바탕으로 두고 다른 개체들을 그 위에 나타내 보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 감성 지도(sentimental map)다.

그림 8의 감성 지도에서는 서로 비슷한 것으로 파악되는 감성어들을 묶어서 상대적인 거리를 반영하여 배치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왼쪽은 여성적인 느낌이 강하고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남성적이다. 이제 이 위에 감성어들과 자주 함께 언급되는, 즉 비슷한 감성을 공유하는 것

그림 8 유명인들의 감성지도



으로 유추되는 유명인들의 이름을 올려놓았다. 예를 들면, 아이유, 설리, 박보영은 ‘귀엽고 감쪽한’ 인물들이다. 물론 이 세 사람이 항상 함께 언급되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인물이 언급될 때에 비슷한 감성어가 언급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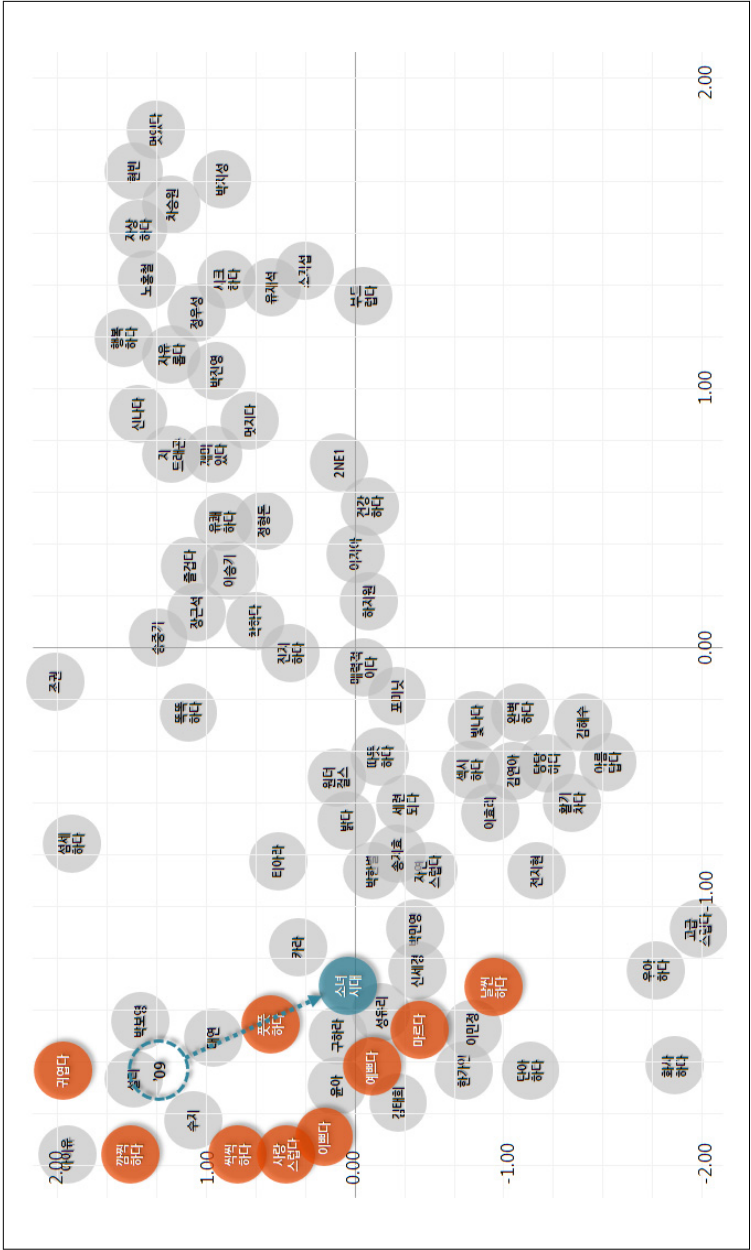
유명인 감성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얼핏 보기에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이들이 세부적으로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드러난다. 요즘 인기가 많은 미스에이의 수지도 앞서 예를 든 이들처럼 귀엽고 감쪽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씩씩하고 사랑스러운’ 쪽에도 속한다.

송중기와 장근석은 남성이지만 여성적인 면이 강하고 현빈, 차승원은 남성적이다. 여성 중에서도 하지원과 이지아는 남성적인 쪽에 기울어 있으며, 2NE1은 극단적으로 남성적이다. 아마도 처음 선보일 때부터 그렇게 의도했을 것이고 그 의도대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감성들이 무리를 지으며 한 단계 추상화하면 메타감성이 형성된다. 예를 들어, ‘흐뭇하다’는 ‘씩씩하고 사랑스럽고 예쁘고 풋풋한’ 느낌을 반영한다. 또한 ‘스타일리시하다’는 것은 ‘예쁘고 마르고 날씬하다’는 뜻이며, ‘부럽다’고 할 때에는 유명인들을 보며 ‘섹시하고 빛나고 완벽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감성 지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려 보면 분석 대상의 이미지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9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소녀시대는 처음에는 예쁘고 감쪽한 감성의 이미지였는데 3년 정도의 기간을 거치며 점차 예쁘고 마른 이미지로 바뀌었다. 한편 아이유는 데뷔 이후 계속 귀엽고 감쪽한 동생의 감성을 유지해 왔다. 아이유는 이제 20대가 되었고 배우로서의 역할도 넓혀 가고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이미지가 변화할지 기대된다.

그림 9 '소녀시대'의 이미지 변화



3. 맺는말

이 글에서 글쓰이는 이른바 빅데이터 시대에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 누리소통망의 언어 자료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특히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읽는 일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글쓰이의 일터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누리소통망은 누구나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고 훌륭한 도구이지만, 바로 그 자유로움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혹은 받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전에는 듣지 못하던 많은 이웃들의 생각과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빅데이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하며 글을 맺는다.

참고 문헌

- 소셜미디어연구포럼(2012), 《소셜 미디어의 이해》, 미래인.
- 송길영(2012), 《여기에 당신의 욕망이 보인다》, 쌤앤파커스.
- 이재현 엮음(2012), 《트위터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 한국방송학회 방송과수용자연구회 엮음(2012), 《소셜 미디어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 함유근 · 채승병(2012), 《빅데이터 경영을 바꾸다》, 삼성경제연구소.
- 황유선(2012), 소셜 미디어의 언어와 맥락, 《소셜 미디어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 Sneiderman, Phil(2013), Using Twitter to track the flu, <http://hubjhu.edu/2013/01/24/using-twitter-to-track-flu>, 2013.3.13 검색.

참고 웹사이트

- 다음소프트 <http://www.daumsoft.com>
- 소셜메트릭스 <http://www.some.co.kr>
- 오피니언마이닝워크숍 <http://www.omw.or.kr>
- It.com <http://www.it.com>

충남 사람들의 삶과 말

한영목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그림과 여운의 충남 말

말은 말하는 사람의 특유한 말씨를 구별해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충남 사람들의 느린 말을 듣고 있으면 그 말투에서, 그가 충남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다른 지역어도 마찬가지로 습득된 충남 말은 언어 공동체에서의 변이에도 불구하고 쉽게 바꾸기 어렵다. 그만큼 충남 말은 충남 사람들의 일상적 삶이 배어 있고 일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충남 사람들은 말도 참 느리고, 속내를 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생각혀 볼께유”는 완곡한 거절의 의미로 쓰인다. 충남 말은 다른 지역어보다 느리지만 그 말 속에는 묘한 여운이 녹아 있어, 은연중 정감이 배어 나온다.

충남 사람들은 말처럼(말마따나/말바투루/말매루) 행동 또한 느리다(느려 터졌다)고 한다. 부엌(정지, 뽕)에서 밥을 짓던 며느리(메누리)가 집 뒷산에서 풀 베는(갈 비는) 시아버지에게 “아번님 독땡이(돌덩이) 굴러 와유”라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돌에 치였다는 우스갯소리가 있

을 정도로 느리고 듣기에 좀 답답하다. 때론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이 느린 말이 어둡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느린 말처럼 충남 사람들은 신중하면서도, 신의가 있고 심지가 굳어 충절의 고장답게 애국지사가 많이 배출된다고 한다. 충남 사람들의 삶 속에 말이 녹아들어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는가 보다(보능개벼). 그러면 이제 충남 사람들이 쓰는 말소리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 (1) 웅감, 날버텨 썰다리 읊는 소릴랑 구만 혀슈.(영감, 내일부터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 하세요.)
- (2) 내라 돈 있깐(디)/까니, 월매 못 붙었는디.(내가 돈 있나, 얼마 못 벌었는데.)

충남 말에서 상성모음화는 자연스럽게 실현된다. ‘건강, 서산, 읊는, 정리, 처음, 현병’이 ‘근강, 스산, 읊는, 중리, 처음, 현병’으로 발음되는 등 ‘어’가 ‘으’로 발음되고, ‘일허다(일하다), 녀/눔(남), 콩너물(콩나물)’ 등과 같이 ‘아’가 ‘어’로 발음되어 더 느린 느낌을 준다. 원순 모음도 ‘사돈→사둔, 돈→둔, -로→-루’ 등에서처럼 ‘오’가 ‘우’로 실현되며, 종결보조사 ‘-요’도 ‘-유’로 특유의 장음으로 실현되기(와요→와유, 가시오→가시우→가슈) 때문에 더욱 느리게 들린다.

‘썰테(썰다리), 썰개(썰개), 가슴(가슴), 스물(시물)’ 등의 전설모음화도 장음으로 실현된다. 어두/여/는 [으 yɛ:](연→은, 염병→은병, 영동→웅동, 영감→웅감)로 길게 실현될 뿐만 아니라, ‘개→가이, 새(鳥)→사이, 제→즈/주이, 묘→모이, 귀신→구이신, 쇠시랑→소이시랑’ 등 아직도 노년층에서 하향 이중 모음이 상당수 남아 있다. 이것 또한 충남 말을 느리게 느끼게 하는 요인이다.

의문문 종결 어미 ‘-감, -남, -담’이나 부정 명제를 실현하는 ‘-간/깁, 간디/깁디’ 등도 길게 발음하여 듣는 이가 답답함을 느낀다고 한다. 어미 ‘-애’는 거의 ‘-야’로 실현되면서 느린 어조로 발음되고(가래→가랴, 되었대→되따, 본대→본다), 일부 어휘 ‘내일, 땀, 색시, 샴’ 등도 ‘날, 땀, 삭씨, 샴’ 등 충남 말 특유의 느린 어조의 이중 모음으로 실현된다. 의문사에서도 ‘어디→위디, 언제→원제/지, 어떻게→워치게’ 등 ‘어’가 원순성 이중 모음 ‘워’로 교체된다.

2. 참고 기다리는 삶과 충남 말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에서 여러 제보자들을 만났다. 그중에서도 할머니들의 시집살이 이야기는 안쓰럽지만, 그런 경험을 해 보지 못한 현대인에게는 애잔한 슬픔 같은 게 전율처럼 전해 온다. 밥술깨나 뜨는 집에서 자라 어린 나이에 가난한 집 신랑을 얼굴(꼴딱서니) 한 번도 (함번두) 못 보고(못 보구) 만났다. 음식(음식), 옷(입성) 잘못 만들고(맹길고), 길쌈(질쌈), 빨래(셔답) 솜씨 없어 남보다(넌보더/보담/버덤) 시집살이가 더 힘들었나 보다(대근했내벼). 어린 색시는(삭시년) 밥 먹자마자(먹던말루) 들(구럭이)로 나가 조(스숙)랑 옥수수(옥시기)랑 콩밭 등으로 다니면서(댕김서) 김(지슴)을 매는데도 늘(상구) 일 잘 못한다는 시어머니(시어메/시엄니)의 핀잔(지칭구)과 꾸중보다(나무람보땀/보더) 시누이(시누/시니)가 야유해 대는(비수쥐 쌓는) 것이 훨씬(훨깁) 큰 시집살이라 더 어려웠다. 꼴딱서니 없는 남편(넌편)은 시누이 편을 들어, 그 것 또한 더 슬펐지만 참고 참는 아낙네의 삶이었다.

“내라 시집 오너서 봉계 시니들 두러구 혼저된 시오머니어구/여고

밥일랑사리 죽할래 먹기두 심들어, 말두 무태유/모태유.”(내가 시집 와서 보니까 시누이들 둘하고 혼자된 시어머니하고 밥은커녕 죽조차 먹기도 힘들어, 말도 못해요.) 말하면서(말함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 여러 번 조사를 중단해야 했던, 천성이 참 착해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며 생활하시는 할머니의 얼굴도 많이 생각난다.

이 할머니의 말에서 주격 조사에 ‘-라’가 나타난다. 충남 말에서 ‘-다(가), -라(가)’가 주격 조사로 실현된다. ‘-일랑사리’는 ‘-은(일랑)커녕(사리)’에 대응한다. 충남 말에서 ‘-일랑, -시리, -(서)루, -(서)나, -두루’ 등은 주제의 ‘-은/는’의 기능을 담당한다. ‘-사리’는 ‘-커녕’에, ‘-할래, -한지’는 ‘-까지, -조차, -마저, -도’에 대응하는 조사이다. ‘-일랑사리’는 ‘-은커녕’에 대응하지만, ‘-사리’는 ‘-일랑’에 선행하거나 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통사 구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충남 말의 조사에서 ‘-허구, -여고(하고), ‘-도리(-마다), ‘-란/랜대두(-라도), ‘-바틀루, -매루(-처럼), ‘-앙쿠(-마따나)’ 등도 쓰인다.

충남 말의 어미에서 중세어 ‘-늑’가 ‘-너/노’의 형태로 실현되고, ‘-거든+을랑’의 통합형 ‘-거들랑, -걸랑, -건낭’이, ‘-말루(-자마자)’ 등이 나타난다. “산골이랑대두 부촌일렁개벼”(산골이라도 부촌이던가 보아)에서 ‘-(으)르러’는 ‘-겠더’보다는 ‘-더’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 자족하는 삶 속의 충남 말

이문구 소설은 충남 말을 살려 소설어로 형상화하였기 때문에(때밀레/땀시) 성공을 거두었다. 필자는 이문구 작가가 충남 말을 선용한 것이야말로 값진 충남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문구 작가와 초등학교 동창 분이 ‘이문구 소설은 어색하고 생뚱맞고, 낯설어 자신도 이해가 잘 안되는 말’이라고 하셨다. 이에 필자는 보령문화원에 부탁하여 다른 제보자를 만나 구술 발화를 녹취하였다. 그 어르신은 구술하면서 잠시 쉬는 동안 소주를 함께(하냥) 들자며 틈만 나면 보령 지역어와 향토 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셨다. 얼마(월매) 안되는 사례비를 드리자 껌껌하고 올곧은 그 어르신이 보령 말을 알려 주는 것으로 족하지 “우덜 충청도 양반은 둔 겘은 거 받능 거 아녀”(우리들 충청도 양반은 돈 같은 것 받는 게 아니야) 하시면서 한사코 사양하시어 선물을 사다 드린 일도 있다. 그 제보자는 비록 어렵게 농사지으면서도 충절의 고장에서 자라 꽃꽂한 양반의 후예로서 선비 정신을 지키며 자족하는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보내고 계셨다.

서천문화원의 의뢰로 서천 지역어를 조사할 때 제보자 내외는 참으로 인정이 많아 손수 심은(싱군) 상추(부루쌈), 두릅(두릅) 같은 것을 우리 일행에게 주셨다. 제보자는 예전에는 농사짓는 삶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기계 덕분에 편해졌으며, “베 걷어다서 바슴허면 태양이다 말리덜 베랑 안 허”(벼를 걷어서 타작하면 벌에다 말리지를 별로 안 해) 하시면서 옛날 어렵게 농사짓던 일과 사람들의 삶을 구수하게 말씀하셨다.

- (3) “궁께 그제 옛날인디 시절 방구쟁이덜 꺾깔썰우고 말쉬바위를 봤당께.”(그러니까 그제 옛날인데 바보 계집애를 목말태우고 곡마단을 보았다니까.)

그 어르신 말마따나(말양쿠) 옛날 농촌에서 농부(농투스니)의 삶은 징그럽게(징그리) 어려웠다. 좀 모자란 계집애(시절 방구쟁이)는 어른들한테 꾸중(지청구)도 듣고, 된장(텐장), 고추장(꼬치장, 꼬창)에 간

장(지랑, 장물)에 상추(부루, 부루쌈)나 무김치(무수짬지)뿐인 반찬(정 건이) 없는(으슬푼) 콩보리밥(콩당버리밥)이나 나물죽(너물죽)에 어찌 다(워찌다) 칼국수(칼수제비)도 먹고, 밖에(배까티) 어디로(월루) 다니 면서(댕김서) 뺨기(뺨비, 때구리)도 캐 먹고, 소꿉장난(바꿈사리/소꿉 질)도 하고(허구) 놀지만 영양이 좋지 않아서(중털 않아서) 늘(상구, 장) 부스럼(꼬마지, 꼬무락지, 부슬목)을 달고 어린 날을 보냈다. 이런 딸이 안쓰러워 곡마단(말쉬바위)이라도 오면, 어려운(째는) 살림살이 지만 그것 구경하면서(귀경함서) 웃어 보는 것도 큰 기쁨이었다. 이런 충남 사람들, 제보자나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들의 일상에서는 가난하 지만 자족하는 삶의 모습이 투영되어 나타난다.

자족하는 삶 속에 투영된 충남 사람들의 말에서는 표준어와 이음 동의 관계를 보이는 어휘들이 많다. ‘개갈 안 나다, 꺾갈쓴다, 말저름, 방구쟁이, 부루(쌈), 시절, 줄가리, 지청구, 하냥’ 등이 나타나고, ‘기다 (그렇다)는 어떤 질문에 대한 사실적인 긍정이나 부정으로 확인하는 데 쓰이는 ‘겨’와 ‘양겨’(안 그렇다)’가 쓰인다. (4)에서 충남 말의 몇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 (4) 개갈 안 나다(시원스럽지 못하다), 정거니(반찬), 곤도/두벌레/ 시금창게자리(장구벌레), 꺾갈쓴다/꼰쓴다/꼰내미쓴다(목말 타다), 곡식 사다와 내다(팔다), 기다(그렇다), 내둥(여태까지), 년출/녕쿨(덩굴), 대간/근하다(고달프다), 텨테(도리어), 판다 (열다), 툇강/캉(도랑), 마시/모시(모이), 말쉬바위(곡마단), 말 저름(수수께끼), 발방아(디딜방아), 방구쟁이/방텅구리(계집 애), 뺨무리/신무리(백설기), 베토매(벋단), 복주개(사발/주발 뚜껑), 부루/부루쌈(상추), 뺨비/때꾸리(뺨기), 서답(뺨래), 선

거리(여자무당), 설렝이(그리마), 시절(바보), 야중(나중), 어여(어서), 우덜(우리들), 이을치/은치(여치), 으슬푸다(반찬 없다), 진디찰/진디기풀(도깨비바늘), 졸/솔/정구지(부추), 졸가리(조리), 지랑/장물(간장), 지청구(꾸지람), 칼수제비(칼국수), 킨다/쓴다(켜다), 하냥(함께), 학보는 사람(사팔뜨기), 호랑(호주머니) 등

4. 지역어는 문화유산

지금도 그렇지만 지역어 조사는 언제나 낯설고 고된 작업이며,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듯한 현실의 벽을 느낀다. 텔레비전이라는 문명의 이기로 사랑방 이야기 문화는 점점 사라지고, 일상화로 자동의 틀에 얽매어 토박이 제보자들의 소박한 삶과 토속적이고 정감 어린 말들이 정체성을 나날이 잃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1980년대 초 목원대학교에서 학생들과 방학 때면 방언 조사를 하였다. 시간에 쫓겨 사랑방에 어른들을 모셔 놓고, 그 지역어의 음운, 형태, 어휘 등을 조사하고, 옛날이야기도 들었다. 한 어르신은 “포수라가 호랭이한테 겨가서루 총질을 해설라무네 잡었씨유”(포수가 호랑이에게 기어가서는 총질을 해서는 잡았어요) 등의 옛날이야기를 하시는데, 객지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우리 동네 촌스럽고 창피하게 왜 사투리를 쓰느냐’면서 어르신들의 말씀을 방해하여 조사가 힘(심)들었다. 필자는 자기 말을 쓰는 것은 촌스럽고 창피한(남새스런/넌우세스런) 것이 아니라 조상님들의 얼과 전통이 살아 숨 쉬고, 이 마을 사람들의 삶의 애환이 서린 값지고 귀한 우리말을 살리고 지키는 길이라고

설득하여 어렵사리 조사를 마친 기억이 새롭다.

예나 지금이나 지역어에 대한 관심은 표준어에 밀려 점차 멀어지고 있다. 더욱이 지역어를 국어의 하위 개념으로 보고, 의식적으로 그 사용을 자제하려는 현대인의 자세로 인하여 정겹고 토속적인 우리말은 점차 설 자리를 잃고, 끝내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역어를 촌스런 말이 아니라 값진 지역 문화유산의 보고로 여기고 가꾸고 사랑하여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 편(2007), 충남, 《방언 이야기》, 태학사.
- 한영목(1999), 《충남 방언의 연구와 자료》, 이회문화사.
- 한영목(2000), 《충남 금산 지역어 연구》, 한국문화사.
- 한영목(2007 ㄱ), 《서천 지역어 연구-서천 사람들의 말과 삶》, 서천문화원.
- 한영목(2007 ㄴ), 충청 방언의 특징, 《말과 글》 112,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 한영목(2008), 《충남 방언 문법》, 집문당.
- 한영목(2004~2012), 《충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 한영목(2010 ㄱ), 이문구 소설에서의 방언 활용, 《최명옥 선생 퇴임 기념 국어학 논총》, 태학사.
- 한영목(2010 ㄴ), 충남방언 ‘일량사라’와 ‘할래’ 구문 연구, 《방언학》 12, 한국방언학회.
- * 구비 문학, 구전 설화, 이문구 소설 등 충남 말에 관한 도서.

독일의 맞춤법 개정 과정과 교훈

이진희 영산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1. 들어가기

독일의 교육과 문화 정책은 우리나라와 다소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독일은 일반적으로 연방주의, 사회복지국가주의, 민주주의라는 3대 국가 목표를 정하고 있다. 이 중 연방주의와 사회복지국가주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영역이 교육과 문화 분야이다. 연방주의 입장에서 교육과 문화 관련 정책은 지방 정부 소관이다. 또한 사회복지국가주의 이념에 따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어문 규범에 관한 권한도 연방 정부가 아닌 지방 정부가 갖는다. 이는 교육과 문화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각 지역의 교유한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며 동시에 연방 국가로서 정책 일관성 유지를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연방과 지방 정부의 정책 조율을 위한 협의 기구로 16개 지방 정부가 참여하는 교육·문화부장관회의(KMK)를 두고 상시적으로 만나 현안을 논의한다. 독일에서 어문 규범을 전담하는 기구를 들라고 하면 쉽게 답하기 어렵다. 이론적으로 16개의 지방 정부가 독자적인 어문 규범

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교육·문화부장관회의가 협의하여 독일 전체의 단일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독일 특유의 정치적 구조가 어문 규범을 마련하고 고치는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로 떠오른 것은 역사적 과정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이번에 우리는 독일에서의 어문 규범, 특히 교육 현장과 일상 언어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맞춤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분석해 봄으로써 어문 규범과 사회적 통합이라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독일 최초의 어문 규범

독일은 1871년 프로이센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의 주도로 하나의 통일 국가를 수립하게 된다. 이때 등장한 독일 제국은 프로이센, 바이에른, 작센, 뷔르템베르크의 4개 왕국을 중심으로 총 22개 연방과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뤼베크 등 3개 자유시가 연합한 국가 형태였다. 당시에는 프로이센뿐만 아니라 바이에른, 작센 등 지역에 따라 고유한 맞춤법 규범이 존재하였다. 통일 국가를 강성한 민족 국가로 키우고자 했던 비스마르크는 제국 내 어문 규범을 단일화해 민족 교육의 기반을 다지고 싶어 했다. 일찍이 부국강병을 강조하며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에 관심이 많았던 프로이센 입장에서는 어문 규범의 통일이 중요했을 것이다.

1876년 프로이센 정부 주관으로 이루어진 제1차 맞춤법 제정 회의가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14명의 대표가 참석하여 합의한 내용을 대부분의 지방 정부가 거부함으로써 실패한 회의가 되고 말았다.

1901년에 또 다시 제2차 맞춤법 제정 회의가 개최되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26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표된 내용이 독일의 최초 어문 규범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었다. 이는 심도 있는 세부적인 규정들을 담기보다는 독일어권에서 표기법을 단일화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결과이다. 당시 각 지역은 자신들 고유의 표기 관습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부적 문제로 마찰을 일으키기보다는 새롭게 태어난 독일이라는 국가 내에서 통일된 모습의 맞춤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정치적 해결이 우선이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Thal, Thür와 같은 고유어에서 ‘t’ 다음의 ‘h’를 삭제하여 표기하도록 하였다(Tal, Tür). 또한 ‘-niß’로 끝나는 외래어의 경우 ‘-nis’로 고쳐 쓴다는 규정(예: Geheimnis)과 함께 외래어 자소 ‘c’를 독일어 발음에 맞춰 ‘k’, ‘z’로 고쳐 쓴다는 규정이 포함되었다(Accent > Akzent, central > zentral, social > sozial). 이것은 일부 외래어를 독일어 표기에 동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맞춤법에서는 오늘날 맞춤법 개정 논의의 핵심에 해당되는 띄어쓰기와 붙여쓰기 문제나 다소 복잡하게 발전한 구두법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렇듯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결여된 최초의 맞춤법은 오늘날까지 어문 규범에 대한 논쟁거리를 제공했다.

이후 표기법의 문제는 한층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맞춤법으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미흡한 1901년 맞춤법의 빈자리를 맞춤법 사전이 대신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언어학자이며 인문계 고등학교인 김나지움 교사였던 콘라트 두텐이 1872년 출간한 맞춤법 사전(이하 두텐사전)은 오늘날까지 24번의 개정판을 내며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어문 규범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두텐사전은 독일에서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책으로 모든 가정에서 한

권식은 소장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그러나 정부 기관이 아닌 민영 출판사에 의해 한 나라의 어문 규범이 정해지는 문제는 20세기 내내 논쟁거리였으며 급기야 개정 논의의 뇌관이 되기도 하였다.

국가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제3 제국을 설립한 나치 정권은 독일의 순수 혈통을 강조하며 어문 규범에 순혈주의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유 독일어를 우선시하며 외래어를 배척하거나 동화한 표기를 강조하는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였다. 그러나 패전과 함께 국수주의적인 어문 정책도 사라지고 말았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서독 정부는 맞춤법 문제를 고민하다 당시 베스트셀러인 두텐사전에 맡기기로 하였다. 교육·문화부장관회의의 결정에 따라 1955년부터 맞춤법 규정에 없는 내용은 두텐사전을 참고하는 것이 합법화되었다. 이러한 다소 애매한 어문 정책은 1996년 새로운 맞춤법 개정안이 발표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3. 100년 만의 맞춤법 개혁

1996년 독일어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1901년 프로이센 정부 주도로 제정된 맞춤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1977년부터 독일의 국립국어연구소(IDS)가 추진한 맞춤법 개정 작업의 산물이다. 1987년 교육·문화부장관회의와 연방 내무부 장관의 공식적인 위임을 받은 맞춤법 개정 준비 위원회는 본격적으로 기존의 맞춤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였다. 서독과 동독,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독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지역의 어문학자들과 어문 정책을 맡고 있는 행정 관료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

에서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1994년 11월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최종 합의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정책 결정 과정에 따라 개정안은 교육·문화부장관회의의 합의를 거쳐 1996년 7월에 공식적으로 새로운 규정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수십 년간 고심한 언어학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회적 반응은 냉담했다. 언어학자들은 표기법의 간소화와 명료성을 추구하여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언중은 기존의 표기 관습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공교롭게도 한 단어가 대중의 감성적 측면을 자극해 새로운 맞춤법을 거부하는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맞춤법 개정안에서는 대문자 표기의 간소화를 위해 명사가 아닌 경우의 대문자 표기를 제한하고자 했다. 이에 의하면 하느님을 뜻하는 성부(聖父)라는 단어를 기존의 ‘der Heiliger Vater’에서 새롭게 ‘der heiliger Vater’로 고쳐 써야 한다. 크리스트교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독일 사회에서 하느님을 소문자로 표기하는 개정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로 떠올랐다. 이후 새로운 맞춤법에 대한 거부 반응은 알레르기 현상처럼 퍼져 나갔다. 온 국민이 새로운 맞춤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갈라져 연일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학계의 논란 또한 거세게 나타났다. 지식인, 언론 단체, 출판사, 직능 단체 등 사회 각계의 갈등이 활화산처럼 폭발하였다.

3.1. 맞춤법 개정의 언어학 이론적 배경

여기서 독일어에서 맞춤법 논쟁의 주된 대상이 되는 문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소와 음소의 대응 관계 문제이다. 독일어는 표음 문자 체계로서 알파벳을 자소로 사용하여 음소를 나타낸다. 이때 하나의 자소가 하나의 음소를 표현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 매우 이상적인 경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대일 대응 관계는 어느

표 1 표기 체계의 다가치성

자소	음소
a	/a/, /a:/, /ɛ/, /ɛi/
ch	/x/, /k/, /ç/, /ʃ/
k, ck, ch, c	/k/
i, ie, ih, ieh	/i:/

언어에서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표기법의 문제가 존재한다. 하나의 자소가 하나의 음소를 대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의 자소가 여러 개의 음소를 나타내거나 여러 개의 자소가 하나의 음소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우리는 표기 체계의 ‘다가치성’이라고 한다(표 1).

또한 ‘복합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음소를 한정된 알파벳으로 표기하기 위해 두세 개의 문자를 겹쳐 사용하는 경우이다(예: ‘ph’ /f/, ‘sch’ /ʃ/, ‘oo’ /o:/). 이는 언어의 고유 특징인 ‘언어의 경제성’과 관련이 있다. 다양한 음을 다양한 표기로 구분해 내면 좋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문자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는 교육이나 활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한정된 문자로 다양한 음을 표기하고자 한 것은 매우 효율적인 방안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항상 표기법이 곧 발음 기호라고 여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한편 다가치성을 띠는 표기 체계에서 어떻게 음소와 자소의 합리적인 대응 관계를 마련하는가가 맞춤법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독일어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그대로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모음의 장단음을 표기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장음 /i:/를 표기하는 경우가 ‘i’(Bibel), ‘ih’(ihnen), ‘ie’(Riese), ‘ieh’(sieht)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 다른 문제로 ‘s’ 표기의 문제가 있다. 자소 ‘s’는 음소 /s/, /z/,

/ʃ/와 대응관계에 있다. 이 경우 하나의 자소가 유성음(/z/)과 무성음(/s/)을 동시에 표기한다(예: sagen, hast). 또한 단어의 맨 앞에서는 /ʃ/로 나타나기도 한다(예: Stein). ‘v’의 경우 ‘Vogel, Vase’에서처럼 /f/와 /v/로 발음되는데 이 문제도 해결 과제이다. 나아가 독일어 고유의 특징인 β 의 표기, 말음격음화 현상의 표기 등이 논쟁의 대상이다.

외래어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하다. 대표적으로 ‘ph’, ‘th’, ‘rh’의 경우 /f/, /t/, /r/음을 나타내므로 표기 간소화를 위해 독일어 고유어에서처럼 ‘f’, ‘t’, ‘r’로 동화시키자는 주장은 100년 전부터 있었지만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예: Photo/Foto, Apotheke/Apoteke, Rheuma/ Reuma). 현재는 일부의 경우 이중 표기, 다시 말해 원래 표기와 동화된 표기 두 가지 모두를 인정함으로써 문제를 덮고 있다.

둘째, 대문자와 소문자 표기 또한 맞춤법 논쟁의 단골 메뉴이다. 다른 유럽 국가의 언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일어의 독특한 특징이 바로 명사의 대문자 표기이다. 문장의 처음이나 고유 명사, 약어 등을 대문자로 표기하는 것은 인구어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독일어에서는 문장 내에서도 명사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이는 해당 품사만을 대문자로 표기하니 간단해 보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먼저 노인 ‘der Alte’, 독서 ‘das Lesen’과 같이 명사화한 형용사나 동사의 경우도 대문자로 표기한다. 고유 명사의 경우는 더욱 복잡한데 ‘Stiller Ozean(태평양)’, ‘Institut für Deutsche Sprache(독일국립국어연구소)’, ‘Naher Osten(근동아시아)’, ‘der Heilige Abend(크리스마스이브인 성스러운 밤)’, ‘der Zweite Weltkrieg(제2차 세계 대전)’와 같이 분명 명사가 아닌 경우에도 대문자 표기가 허용된다. 현행 규정에는 표기 기준 자체가 다소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는데 고유 명사가 ‘-er’로 끝나며 형용사로 사용된 경우 대문자로 표기한다는 규정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스위스 치즈

(der Schweizer Käse)’는 대문자로 표기할 수 있지만, ‘독일 치즈(der deutsche Käse)’는 대문자로 쓸 수 없다. 독일 사람들이 농담 삼아 제기하는 새로운 표기법에 대한 문제이다.

독일어에서 대문자 표기는 다른 문제들과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 원래 대문자 표기는 문법 기능보다는 읽는 이에게 시각적 효과를 높이고 정보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었다. 다시 말해 과거의 표기 방식에서는 소문자 표기가 일반적이었으며 여기에 인명, 지명, 성스러운 명사(Nomina sacra), 관직, 칭호 등 강조나 존칭의 표현을 위해 대문자를 사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문자 표기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규칙성이 나타나기 어려웠고 단지 개인적 취향에 의해 임의적으로 사용된 표기법이였다. 16세기 문헌에서 신(神)을 지칭하는 것으로 ‘GOTT, Gott, Herr, HErr’ 등과 같은 표기 사례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대문자의 경우 개인적 편차가 컸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발전 배경을 가진 대문자 표기를 오늘날 문법적 범주에서 체계화하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이 문제를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논의하였다. 문장 내에서 대문자 표기를 완전히 없애자는 전면적 소문자 표기법, 문장 내에서 고유 명사, 존칭, 약칭만을 대문자로 표기하자는 중도적 소문자 표기법, 그리고 기존의 대문자 표기를 유지하면서 일부를 개선하자는 수정 대문자 표기법이 있다. 개정주의자들은 대문자 표기의 간소화를 위해 다소 개혁적 입장인 전면적 또는 중도적 소문자 표기를 주장한다. 그러나 언중은 이와 달리 기존의 대문자 표기를 독일어 고유의 특징으로 받아들여 명사의 대문자 표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이번 맞춤법 개정 과정에서도 개정안 초안은 개정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전면적 또는 중도적 소문자 표기가 채택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정치적 합의 과정에서 기존 표기 방식을 유

지하는 수정 대문자 표기법이 반영되었다.

셋째, 띄어쓰기와 붙여쓰기 문제도 독일어 맞춤법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며 난제에 속한다. 합성어나 파생어, 특히 속어로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에서 어디까지를 합성어의 범주로 인정하여 붙여 쓰고 그 외의 경우를 띄어 쓰는가 하는 문제는 독일어의 왕성한 생산성 때문에 표기 규범화가 어려운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현행 규정은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고 붙여쓰기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sitzen bleiben(앉아 있다)’처럼 동사+동사인 경우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단어가 ‘낙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sitzenbleiben’처럼 붙여 쓴다. 이 밖에 규정화하기 어려운 사례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붙여쓰기와 띄어쓰기를 모두 인정한다.

3. 2.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타협

1996년 맞춤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사회적 반응은 예상 외로 격렬했다. 먼저 언론 기관들은 새로운 규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독일의 주요 언론들이 연일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주장을 쏟아냈다. 일반 대중도 독자 의견을 통해 이 대열에 동참했다. 기존의 표기 방식에 익숙한 대중들에게 새로운 개정안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또한 독일어문학자들의 반대 의견도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같은 해 10월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 박람회에서는 맞춤법 개정 반대 운동으로 권터 그라스, 지크프리트 렌츠, 마르틴 발저 등과 같은 저명인사들을 포함한 백여 명의 작가들과 학자들이 참여하여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개정 반대 의견을 일축하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드레스덴 선언’으로 맞섰다. 독일의 유력 시사 주간지 《슈피겔》은 저명 작가들에게 새로운 개정안에 대한 저항을 호소하였다.

1997년 3월에는 빈 협정에 따라 국제맞춤법개정추진위원회가 발족하였다. 독일 대표 6명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대표 각 3명 등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개정 맞춤법의 추진 업무를 맡았다. 구성원 전체가 기존 개정 작업에 참여했던 인물들로 개정안을 밀어붙이고자 하는 정치적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달리 1998년 4월 600여 명의 독일어 문학 교수들이 맞춤법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규정은 지금까지의 언어학적 연구 결과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한 세기 동안 이어져 온 표기의 단일성 유지에도 해를 끼친다’는 내용의 이 성명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일부 학부모는 개정안에 반대하며 맞춤법 개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학부모들의 입장은 국가가 자신의 자녀들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1998년 7월 연방헌법 재판소는 학부모들보다는 정부의 입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학교에서 맞춤법 교육은 전적으로 정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맞춤법 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판결문에는 맞춤법 개정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같은 해 8월에는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해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의 학교에서 새로운 맞춤법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졌다. 행정 관청 또한 새로운 맞춤법을 따랐다. 2000년 8월에는 유럽 연합(EU)에서도 모든 공문서를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과 달리 개정 반대 운동도 만만치 않았다. 1998년 9월 북부 독일의 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에서는 맞춤법 개정을 반대하는 주민 소환이 제기되었다. 또한 독일의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2000년 여름 기존의 맞춤법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급기야 2002년 말에는 독일어문학회가 개정안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정책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학회는

새로운 맞춤법 규정에서 긍정적 효과가 뚜렷하며 해가 없는 규정들에 대해서만 개정안으로 받아들여지는 내용의 협상 카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04년 초 교육·문화부장관회의는 개정 추진 위원회와 독일어문학회의의 절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같은 해 8월 가두판매 1위의 통속 일간지 《빌트》를 소유한 거대 출판그룹 악셀-슈프링어 출판사가 새로운 규정을 포기하고 기존의 맞춤법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시사 주간지 《슈피겔》과 중앙 일간지 《쾰트도이체 차이퉁》도 기존의 맞춤법으로 돌아갔다.

사회적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정부도 정치적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다. 지방 정부의 주지사들은 한 회의에서 기존의 개정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비판 여론의 수렴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정부의 입장은 확고한 개정 의지 유지에서 다소 후퇴하며 절충적인 태도로 전환하였다. 마침내 2004년 6월 정부 측 해당 부서인 교육·문화부장관회의는 기존의 개정추진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롭게 독일어맞춤법자문위원회(RDR)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에는 개정주의자뿐만 아니라 개정 반대주의자들도 포함시켜 다양한 사회적 견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갈등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이 적극 반영되어 위원장으로는 전 바이에른 주정부의 교육부 장관 출신인 한스 체헤트마이어가 선임되었다. 위원회 구성은 독일 18명, 오스트리아 9명, 스위스 9명, 남부 티롤 1명, 벨기에 독일어권 대표 1명, 리히텐슈타인 1명 등 6개 지역 37명으로 확대하였다. 회원 구성에 개정 반대주의자도 적극 포함시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진정한 여론 수렴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는 정치권의 입장을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 위원회의 주된 임무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는 맞춤법 개정안의 도출이었으나, 이후에도 상설 기구로 유

지함으로써 개정 맞춤법이 독일어권에서 단일 규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교육하는 역할도 맡았다. 독일어맞춤법자문위원회는 맞춤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의 개정주의자 입장을 일부 수정하며 동시에 비판적인 여론에도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개정주의자들의 강경한 입장이 여론 수렴에 불리하다는 정치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입장에서 다소 벗어나 개정주의자들의 주장을 일부 철회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사회적 비판이 거센 부분은 절충점을 찾아 일부 수용해야 한다는 정치적 입장이 설득력을 얻은 결과였다. 마침내 독일어 맞춤법자문위원회는 기존의 개정안과 기존의 표기 관습을 절충하는 다소 ‘부드러운’ 수정안을 새로운 맞춤법 개정안으로 발표하며 국민 설득에 나섰다. 최선의 방법은 아니나 차선택이 될 수 있다는 독일어맞춤법자문위원회의 대국민 설득은 효과적이었다. 2006년 《슈피겔》을 시작으로 하여 악셀슈프링어 출판사,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등이 새로운 절충안에 동의하며 따르기로 하였다.

마침내 2006년 사회적 여론을 적극 수용한 새로운 맞춤법 개정안이 최종 규정으로 결정되어 발효되었다. 다만 독일과 벨기에에서는 2007년 7월 말까지를 과도기로 정하여 교육 현장에서 기존 맞춤법도 함께 교육할 수 있었다. 그 외 오스트리아와 남부 티롤은 2007년까지,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은 2009년 7월까지를 과도기로 정하였다. 이제 독일어맞춤법자문위원회의 임무는 새로운 맞춤법이 교육 현장과 사회적으로 잘 적용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관리자 모드로 전환되었다.

4. 마무리

2004년의 개정안을 통해 2006년 새로운 독일어 맞춤법이 도입되었으나 어문 규범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다만 휴전 중일 뿐이다. 개정을 주도했던 언어학자들의 허탈감은 여전하다. 그러므로 그들의 개정 의지 또한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기존의 표기 관습에 익숙한 언중도 중도적인 개정안에 만족하지 않는다. 많은 기대감을 갖고 맞춤법 개정 과정을 지켜본 교육 현장의 교사들이나 학생들도 실망하기는 마찬가지다. 새로운 맞춤법이 이들에게 편리한 점도 있지만 기존의 난해한 교육 내용을 수월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하고자 했던 개정 논의는 결국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무승부로 끝난 모습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처럼 맞춤법의 제정과 개정의 문제는 매우 복합적인 성격이 있다. 어문 규범의 마련, 다시 말해 맞춤법을 만들고 고치는 과정에서는 동전의 양면처럼 언어학적 입장과 사회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문 규범의 개정 작업에서는 1) 언어 교육적 측면, 2) 교육 정책과 사회적 측면, 3) 표기 관습과 새로운 변화의 관계, 4) 표기 기술과 효용성, 5) 표기 개정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비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어문 규범 특히 맞춤법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언어학적 입장에서 체계적이고 명료한 규정 마련에 치우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새로운 어문 규범이 등장하면 이론적 논쟁보다 뜨거운 것이 사회적 갈등의 문제이다. 어문 규범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사회라는 양면을 이해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맞춤법을 언어 연구의 산물로 한정하기보다는 시대적, 사

회적 융합물로서 ‘문화적 산물(Kulturgut)’로 보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맞춤법 연구를 ‘종합 학문’의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문자 언어학’ 또는 ‘표기 언어학’이 독자적인 연구 영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참고 문헌

- 호르스트 하이더 문스케 지음, 이진희 옮김(2008), 《독일이 맞춤법의 이해》, 한국문화사.
- Mentrup, Wolfgang(2007), *Stationen der jüngeren Geschichte der Orthographie und ihrer Reform seit 1933. Zur Diskussion, Texttradition und -rezeption.* Tübingen.
- Nerius, Dieter(2003), Wie schreiben wir gegenwärtig? Stand und Probleme der Orthographiereform. In: *Deutsch als Fremdsprache. Zeitschrift zur Theorie und Praxis des Deutschunterrichts für Ausländer.* 40. Jahrgang, Heft 1, 3~13.
- Nerius, Dieter(Hg.)(2007), *Deutsche Orthographie.* 4. neu bearbeitete Auflage. Hildesheim/ Zürich/ New York.
- Rechtschreibreform(1996), Extra-Ausgabe Januar 1996 von *Sprachreport.* Mannheim.
- Rechtschreibreform(2004), Extra-Ausgabe Juli 2004 von *Sprachreport.* Mannheim.
- Regelwerk(2004), *Deutsche Rechtschreibung. Regeln und Wörterverzeichnis.* Amtliche Regelung 2004. Tübingen. www.rechtschreibrat.com.
- Scheuringer, Hermann & Stang, Christian(2004), *Die deutsche Rechtschreibung.* Geschichte, Reformdiskussion, Neuregelung. Wien.
- Stegmeier, Jörn(2010), *Die Kriterien der Rechtschreibung. Eine vergleichende Analyse des neuen und des alten Regelwerks.* Tübingen.

국립국어원 소식

I . 국립국어원 주요 활동

1. 국립국어원 영문 누리집 개편, 서비스 시작

국립국어원에서는 새롭게 달라진 국립국어원의 사업 내용 등에 맞추어 영문 누리집을 새롭게 개편하였고 2013년 1월 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번 개편 작업에서는 영문 누리집의 첫 화면과 전반적인 디자인을 개선하였으며 배움 마당, 공개 자료실 및 연구 보고서 보기 등의 메뉴를 추가하여 외국인 사용자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지난해 10월 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한국어 기초 사전(<http://krdic.korean.go.kr>)’ 검색창을 첫 화면에 연결하여 한국어 학습을 원하는 사용자가 바로 원하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국립국어원 누리집 모바일 서비스 시작

국립국어원에서는 2013년 2월 15일부터 국립국어원 누리집을 모바일 기기로 보기 편하도록 별도의 모바일 사이트(<http://m.korean.go.kr>)를 만들어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번에 서비스하는 모바일 누리집에서는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 외래어 표기 용례 찾기, 정겨운 우리말 등을 주요 메뉴로 제공한다. 그 외에 기존 누리집에서 제공하던 알림 마당, 찾기 마당, 주요 간행물, 배움 마당 등도 많은 부분 모바일 기기에 맞도록 수정하여 제공한다.

3. 청소년의 일그러진 언어, 참신한 활동으로 펴자!

: 국립국어원, 청소년 수련관용 언어 개선 프로그램 개발

“말로만 하는 언어 개선은 그만! 양초와 닭싸움, 물감 등으로 청소년 언어를 바로잡는다.” 국립국어원은 청소년의 일상화된 욕설 사용의 개선과 건전한 언어생활 확립을 위해 ≪청소년 수련 시설 및 초·중·고교용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발간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언어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최초의 교육 자료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사회 전반에서 청소년의 비속어 및 욕설 실태의 심각성을 우려함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용 자료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청소년 수련관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로 교과목 보강, 스포츠, 여가와 관련된 교육에 그치고 있다. 학교에서는 생활 지도 교사나 교과 교사가 언어 개선 활동을 주도하는 사례가 더러 있지만,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언어 습관과 같은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학교 못지않게 청소년 교육에 힘쓰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 지도사들이 학생의 언어 습관 개선 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관용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다양한 영역의 활동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표현·예술치료학, 미디어교육, 심리학, 청소년지도학 전공자로 개발진을 구성하였다. 이들은 2012년 7월 한 달간 전국 청소년 수련관 12곳을 방문하여 언어 개선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 방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청소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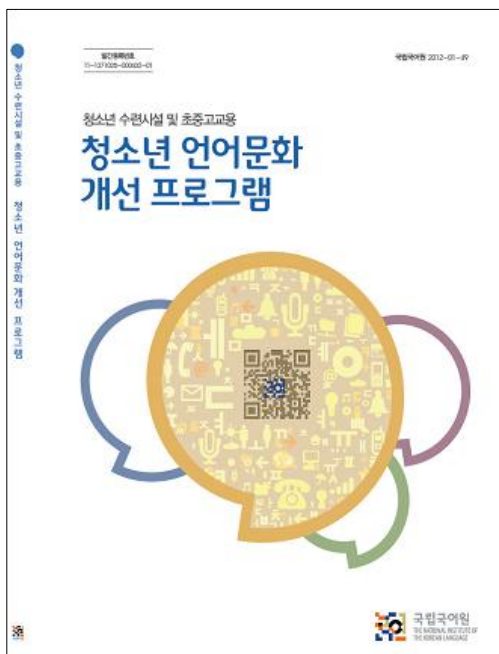
문가, 청소년 지도사, 교사를 자문 위원으로 한 워크숍을 통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시안을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 실제 현장에 맞도록 보완하였다.

청소년 수련 시설 및 초중고교용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용 6차시, 중학생용 8차시, 고등학생용 8차시로 각각 개발되었다. 수련 시설, 각급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전체 차시를 순차적으로 운영하거나 한 차시 활동을 선택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교구 자료, 교사를 위한 진행 대본 등이 안내되어 있어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발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은 흥미 유발 및 자기 점검 활동, 동기 부여 활동, 언어적 측면 활동, 사회적 측면 활동, 정서적 측면 활동, 정리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차시별 프로그램에서는 활동 목표와 개요를 먼저 제시하고 활동 과정을 도입, 전개, 정리로 나누어 안내하였다. 여기에 진행 방법, 준비물, 활동 자료 등 세부 내용까지 담아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립국어원은 2012년 9월에 개최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수기 공모전’ 수상작을 책으로 엮은 《오염된 청소년 언어 이렇게 개선했어요》도 발간하였다. 이 수기 모음집은 청소년 언어 개선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 및 청소년 지도사에게 효과적인 활동 사례와 아쉬움이 남는 활동 사례들을 골고루 전달한다는 점에서 유익할 것이다. 두 자료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자료실(www.korean.go.kr)에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국어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청소년의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하여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공익 광고 시나리오 공모전을 기획하고



있다. 수상작은 공익 광고로 개발하여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4. 어려운 국방 전문 용어, 함께 다듬어 나간다

：국립국어원, 국방기술품질원과 상호 협력 체계 구축

국립국어원(원장 민현식)과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최창곤)은 2013년 1월 29일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국방 분야 전문 용어의 구축과 표준화 및 보급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상호 언어 정보 자료

제공 및 활용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약정으로 국립국어원은 국방 분야 전문 용어를 국어사전에서 자유롭게 활용하게 되었으며, 국방 기술품질원은 국방 분야의 전문 용어를 국어사전에 반영하여 다듬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립국어원은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 과학 기술 용어 사전》의 내용을 검토·윤문하여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에 등재함으로써 쉽고 정확한 국방 분야 용어를 국민들에게 서비스한다.
-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립국어원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전문 용어 구축 시스템 전문가 권한을 받아 국방 분야 전문 용어 구축 및 표준화 작업에 활용하고 상호 호환성을 갖춘 언어 지식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용어표준화협의회를 설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와 연계하여 유관 기관 협업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양 기관이 상호 교환·활용할 자료의 소개 및 시연도 진행되었다. 국립국어원은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을 소개하고 사전 편찬 시스템을 시연했으며, 국방기술품질원은 ‘언어 자원 발전 기본 계획’을 기반으로 한 《국방 과학 기술 용어 사전》의 구축 방향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양측은 국방 분야 전문 용어의 보급을 위한 언어 자원 활용 방안 및 상호 협력 방식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국립국어원과 국방기술품질원은 2008년에 《국방 과학 기술 용어 사전》 1차 발간 감수 작업에서 협력했으며, 2009년에는 국방 분야의 국어 환경 개선과 전문 용어 표준화 등에 대한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약정으로 국립국어원과 국방기술품질원은 전문 용어 자원을

구축하고 다듬어 나가는 데 더욱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써 국민들은 지식 정보화 시대에 더욱 쉽고 편리한 언어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5. 군사 교범 정비와 장병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국립국어원과 육군 교육사령부 업무 협약 맺어

국립국어원(원장 민현식)과 육군 교육사령부(사령관 류제승)는 2013년 2월 1일 교육사령부 3층 회의실에서 육군 교육사령부의 각종 군사 교범과 교리를 어문 규범에 맞게 정비하고 교육사령부 간부들의 국어 능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국립국어원과 육군 교육사령부는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육군 교육사령부에서 편찬하는 각종 교범과 교리, 군사 학술지 등에 대한 어문 규범 적합성 감수 등 군사 용어를 쉽고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고, 교육사령부 직원의 국어 능력을 증진시키고 바른 국어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국립국어원은 2011년에는 육군 군수사령부에 국어문화학교 특별 과정을 실시하여 군 장병의 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고, 지난해에는 합동군사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또한 매년 찾아가는 국어 문화학교를 운영하여 장병들에게 100여 차례 국어 관련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처럼 국립국어원은 앞으로도 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군 장병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6. 다문화 배경 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교재 첫 발간 : 국립국어원,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교재 완간

다문화 배경의 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교재 발간

국립국어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배경 학생의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초·중·고 학교 급별 표준 한국어 교재 3종을 발간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KSL; Korean as a Second Language)’ 표준 교재를 두루 갖추게 되었다.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한국어가 모어가 아닌 학생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언어 발달과 교육에 관한 연구와 관련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국어원에서는 교재 개발을 위해 교사와 학습자의 요구 조사, 공청회 및 자문 회의, 현장 적합성 검사 등을 거쳐 교재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국립국어원 연구진은 물론 한국어 교육 전문가, 국어 교육 전문가, 다문화 배경의 학생을 가르치는 현장 교사,

교재 제작 전문가 등 관계 전문가 40여 명이 교재 기획에서 발간까지 참여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교재는 2012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고시한 ‘한국어 교육 과정’에 따라 개발된 다문화 배경의 학생을 위한 첫 한국어 교재로, 초·중·고등학교의 특별 학급, 예비 학교, 대안 학교 등에서 기본 교재로 사용될 예정이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교재 완간

국립국어원은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의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

국립국어원 개발 다문화 가정 구성원 한국어 교육 자료 현황

대상	교재명	연도	형태	내용
다문화 가정 유아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2009 ~ 2011	진단 도구 학습지 동화책 교구 교사용 지침서 부모용 지도서	- 연령별(만 3세~8세), 수준별(1수준~6수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재로 활용,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에 보급하여 활용
다문화 배경 학생	다문화 배경의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한국어 1~2	2012	교재	- 학교 급별 수준별 한국어 교재 2013년부터 다문화 특별 학급, 예비 학교, 방과 후 과정 등에서 표준 교재로 사용 예정
결혼 이민자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6	2008 ~ 2012	교재 교사용 지침서	- 수준별(1수준~6수준) 한국어 교재 및 교사용 지침서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기본 교재로 사용
결혼 이민자와 그 배우자	부부 공동 학습 교재 알콩달콩 한국어 (중국어 편, 베트남어 편)	2008 ~ 2009	교재	결혼 이민자와 그 배우자가 함께 공부하는 초급 한국어 교재
외국인 노동자	아자 아자 한국어 1~2	2009 ~ 2012	교재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하여 2008년부터 교육 과정과 표준 교재를 개발하여 관련 기관에 보급해 오고 있다. 이번에 다문화 배경의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교재를 발간함으로써 국립국어원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대상별 맞춤형 교재를 완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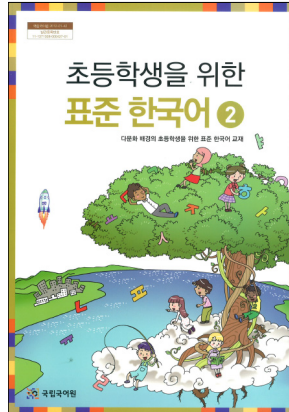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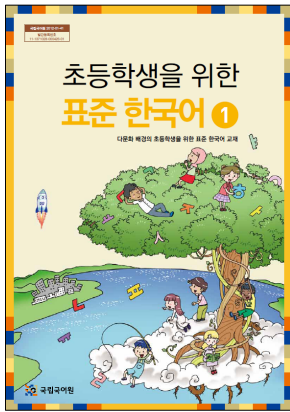
지금까지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교재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기본 교재로 사용되는 등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시행하는 한국어 교육의 체계화, 전문화, 표준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의 선도 기관으로 핵심 기능 지속적 수행

한국어 교육 선도 기관으로서 국립국어원은 자신의 태어난 고향을 떠나 한국으로 온 사람들과 그 자녀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사회와 학교에서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 사회의 언어 정책 및 교육 관련 연구 수행, 교육 자료 개발 및 한국어 교원 연수와 자격 관리 등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국립국어원에서는 다문화 배경의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교사용 지침서를 개발할 예정이며, 다문화 시대의 언어 교육 정책 환경을 조사하고 수립하기 위한 교육 현장 조사 및 국제 학술 대회 개최,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원 연수·재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 시대의 언어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1·2



7.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국립국어원과 성남시가 손잡고 나선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욕설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국립국어원(원장 민현식)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이사장 이재명)은 2013년 3월 18일 성남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청소년의 언어문화 개선 및 언어생활 향상을 위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국립국어원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 운영 및 연구 개발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해 국립국어원이 개발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내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청소년 지도사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앞으로 국립국어원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서 진행할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사업에 두 기관의 관계자가 전문가로 참여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국립국어원은 지난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국립국어원은 앞으로도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언어생활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8. 2013년 제1회 원내 토론회 후기

국립국어원에서는 2013년 제1회 원내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주제	국어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발표자	최경봉(원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일시	2013년 2월 13일(수) 15:00~17:00
장소	파주 지지향 회의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원광대 국문과의 최경봉 교수가 ‘국어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새 시대의 국어 정책은 민주적인 합의와 민주적인 통제로써 이루어져야 하며, 국어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주체의 수준이 향상되고 주체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지로 발표하였다.

국어 정책은 시대정신에 맞추어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이 결정되어 왔다. 국가 주도의 국어 정책은 1894년 국문연구소의 설치로 시작되었으나, 일제 강점기를 거쳐 조선총독부와 조선어학회가 식민지 언어 정

책을 주도하였다. 이후 국어 규범을 정비하던 국어 정책이 펼쳐지다가 1990년대 들어 국어 정책의 기초가 ‘국어 건설’에서 ‘국어 관리’로 전환 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국어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상적인 국어를 설정해 놓고 그 이상을 향해 가는 정책이 아니라, 원활하고 품격 있는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국어의 관리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국어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인 질문이 국어의 정체성과 국어 정책의 경계이다. 국어의 정체성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국어의 정체성 유지를 과도하게 강조할 때 국어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한다. 국어 정책에서 민주적 통제의 요체는 쉽고 정확한 국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세계화 시대, 다문화 시대에 걸맞게 국어 정책 역시 다문화 가정, 남북 언어, 재외 동포 한국어 교육, 한국어의 국외 보급 등으로 저변을 넓혀야 한다.

한편 국어 정책의 주체에는 국립국어원과 같은 국가 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과 개인이 포함될 수 있다. 국어의 공공성 발현을 위해 정책 주체 확장이 필요하며, 동시에 다양한 주체들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9.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9.1. ‘워킹푸어(working poor)’는 ‘근로빈곤층’으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워킹푸어(working poor)’의 다듬은 말로 ‘근로빈곤층’을 최종 선정하였다. ‘워킹푸어’는 일자리가 있는데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이르

는 말이다.

지난 2012년 11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위킹푸어’를 갈음해 쓸 우리말을 공모한 결과 241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국립국어원의 말다듬기 위원회는 누리꾼이 제안한 말들 가운데 의미의 적합성, 조어 방식, 간결성 등을 검토한 결과, ‘근로빈곤층’을 다듬은 말로 선정하였다.

9.2. ‘하우스푸어(house poor)’는 ‘내집빈곤층’으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하우스푸어(house poor)’의 다듬은 말로 ‘내집빈곤층’을 최종 선정하였다. ‘하우스푸어’는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지난 2012년 11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하우스푸어’를 갈음해 쓸 우리말을 공모한 결과 238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국립국어원의 말다듬기 위원회는 누리꾼이 제안한 말들 가운데 의미의 적합성, 조어 방식, 간결성 등을 검토한 결과, ‘내집빈곤층’을 다듬은 말로 선정하였다.

9.3. ‘스크립터(scripter)’는 ‘촬영기록자’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스크립터(scripter)’의 다듬은 말로 ‘촬영기록자’를 최종 선정하였다. 또한 ‘스크립터’의 순화어는 문맥에 따라 ‘구성 작가’로 활용할 수도 있다. ‘스크립터’는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 현장에서 촬영 상황을 기록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지난 2013년 1월 7일부터 1월 18일까지 ‘스크립터’를 갈음해 쓸 우리말을 공모한 결과 140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국립국어원의 말다듬기 위원회는 누리꾼이 제안한 말들 가운데 의미의 적합성, 조어 방식, 간

결성 등을 검토한 결과, ‘촬영기록자’를 다듬은 말로 선정하였다.

9.4. ‘카메오(cameo)’는 ‘깜짝출연(자)’으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카메오(cameo)’의 다듬은 말로 ‘깜짝출연(자)’을 최종 선정하였다. ‘카메오’는 유명인이 극 중 예기치 않은 순간에 등장하여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특별히 출연하는 것, 또는 그렇게 출연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지난 2013년 1월 7일부터 1월 18일까지 ‘카메오’를 갈음해 쓸 우리말을 공모한 결과 163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국립국어원의 말다듬기위원회는 누리꾼이 제안한 말들 가운데 의미의 적합성, 조어 방식, 간결성 등을 검토한 결과, ‘깜짝출연(자)’을 다듬은 말로 선정하였다.

9.5. ‘싱어송라이터(singer-songwriter)’는 ‘자작가수’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싱어송라이터(singer-songwriter)’의 다듬은 말로 ‘자작가수’를 최종 선정하였다. ‘싱어송라이터’는 자기가 직접 작사·작곡한 곡을 노래하는 가수를 이르는 말이다.

지난 2013년 1월 7일부터 1월 18일까지 ‘싱어송라이터’를 갈음해 쓸 우리말을 공모한 결과 206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국립국어원의 말다듬기위원회는 누리꾼이 제안한 말들 가운데 의미의 적합성, 조어 방식, 간결성 등을 검토한 결과, ‘자작가수’를 다듬은 말로 선정하였다.

9.6. ‘로드매니저(road manager)’는 ‘수행매니저’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로드매니저(road manager)’의 다듬은 말로 ‘수행매니저’를 최종 선정하였다. ‘로드

매니저’는 연예인과 동행하여 운전 등을 담당하고 출장을 관리하는 매니저를 이르는 말이다.

지난 2013년 1월 7일부터 1월 18일까지 ‘로드매니저’를 갈음해 쓸 우리말을 공모한 결과 239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국립국어원의 말다듬기위원회는 누리꾼이 제안한 말들 가운데 의미의 적합성, 조어 방식, 간결성 등을 검토한 결과, ‘수행매니저’를 다듬은 말로 선정하였다.

9.7. ‘블랙푸드(black food)’는 ‘검정먹거리’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블랙푸드(black food)’의 다듬은 말로 ‘검정먹거리’를 최종 선정하였다. ‘블랙푸드’는 검은색을 띤 식품을 이르는 말이다.

지난 2013년 2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블랙푸드’를 갈음해 쓸 우리말을 공모한 결과 197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국립국어원의 말다듬기위원회는 누리꾼이 제안한 말들 가운데 의미의 적합성, 조어 방식, 간결성 등을 검토한 결과, ‘검정먹거리’를 다듬은 말로 선정하였다.

9.8. ‘세고시(せごし)’는 ‘뼈째회’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세고시(せごし)’(흔히 ‘세꼬시’라고도 함)의 다듬은 말로 ‘뼈째회’를 최종 선정하였다. ‘세고시’는 작은 생선을 손질하여 통째로 잘게 썰어 낸 생선회를 이르는 말이다.

지난 2013년 2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세고시’를 갈음해 쓸 우리말을 공모한 결과 166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국립국어원의 말다듬기위원회는 누리꾼이 제안한 말들 가운데 의미의 적합성, 조어 방식, 간결성 등을 검토한 결과, ‘뼈째회’를 다듬은 말로 선정하였다.

9.9. ‘솔푸드(soul food)’는 ‘위안음식’으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솔푸드(soul food)’의 다듬은 말로 ‘위안음식’을 최종 선정하였다. ‘솔푸드’는 ‘먹는 이의 영혼을 감싸 주는 음식’ 또는 ‘자신만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아늑하고 따뜻한 음식’을 이르는 말이다.

지난 2013년 2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솔푸드’를 갈음해 쓸 우리말을 공모한 결과 216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국립국어원의 말다듬기위원회는 누리꾼이 제안한 말들 가운데 의미의 적합성, 조어 방식, 간결성 등을 검토한 결과, ‘위안음식’을 다듬은 말로 선정하였다.

10.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제106차 회의 후 실무소위원회 심의 확정안 모음

(2012. 12. 9. ~ 2013. 3. 15.)

[인명]

- 랑랑 郎朗 Láng Lǎng 1982~ 중국 피아니스트. 제2회 차이콥스키 국제 영재 콩쿠르 피아노 부문 우승(1995).
- 래트레이, 벤 Ben Rattray 본명 벤저민 마이클 래트레이 Benjamin Michael Rattray 1980~ 미국 실업가. 동명의 청원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 체인지(Change.org, Inc.) 공동 설립자 겸 최고 경영자(2007. 2. ~).
- 레르엉민 Lê Lương Minh 1952~ 베트남 정치가·외교관. 동남아국가연합(ASEAN) 사무총장(2013. 1. ~). 베트남 전 외무차관, 유엔 주재 대사.

타이의 수린 핏수완(Surin Phitsuwon) 사무총장(2008. 1. ~ 2012. 12.) 후임.

- 리윈디 李雲迪 Lǐ Yúndí 1982 ~ 중국 피아니스트. 제14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역대 최연소 1위 입상(2000. 10.). 제5회 프란츠 리스트 콩쿠르 3위 입상(1999).
- 쑨춘란 孫春蘭 Sūn Chūnlán 1950 ~ 중국 여성 정치가. 톈진(天津)시 당서기(2012. 11. ~). 정치국위원. 푸젠(福建)성 당서기(2009. 11. ~ 2012. 11.), 다롄(大連)시 당서기, 중국 노조 중화전국총공회 부주석 등 역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한 장가오리(張高麗) 당서기의 후임.
- 아울렌티, 가에 Gae Aulenti 본명 가에타나 아울렌티 Gaetana Aulenti 1927 ~ 2012 이탈리아 여성 건축가. 이탈리아 북동부 우디네(Udine) 태생. 1986년 낡은 역사(驛舍)를 개조해 파리 오르세 미술관(Musée d'Orsay)으로 재생시킨 건축가. 도쿄(東京) 이탈리아 문화회관의 설 계도 담당.
- 천, 스티브 Steve Chen 본명 스티븐 스 천 Steven Shih Chen 1978 ~ 미국 실업가. 유튜브(YouTube) 공동 창업자. 대만 태생, 8세에 미국에 이주. 중국어명은 천스쥔(陳士駿; Chén Shìjùn).
- 가다 유키코 嘉田由紀子 1950 ~ 일본 여성 정치가·환경사회학자·문화인류학자. 시가(滋賀)현 지사(2006. 7. ~). 일본 미래당 대표(2012. 12. ~). 전 교토 세이카(精華)대 교수.
- 로이스, 에드 Ed Royce 본명 에드워드 랜들 로이스 Edward Randall Royce 1951 ~ 미국 정치가. 하원 외교위원장(2013. 1. ~). 하원 의원(공화·캘리포니아)(1993. 1. ~). 캘리포니아 주의회 상원 의원(1982 ~ 1993).

- 리위안차오 李源潮 Lǐ Yuáncháo 1950~ 중국 정치가. 당조직부장(2007. 10.~2012. 11.). 장쑤(江蘇)성 당서기(2002. 12.~2007. 10.).
- 마슈알, 칼리드 Khālid Mashāl [Khaled Mashal] 아랍 어명: خالد مشعل 1956~ 팔레스타인 정치 지도자. 이슬람 무장 단체 겸 정당 하마스(Hamas) 최고 지도자(2004~).
- 멩젠주 孟建柱 Mèng Jiànzhù 1947~ 중국 정치가. 당중앙 정법위원회(경찰·사법 담당) 서기(2012. 11.~). 정치국원·공안부장도 겸무. 은퇴한 저우용강(周永康) 서기의 후임.
- 메이어르, 라비니아 Lavinia Meijer 1983~ 네덜란드 여성 하프 연주자. 한국 출생, 네덜란드 가정에 입양됨.
- 봉바르디에, 조제프아르망 Joseph-Armand Bombardier 1907~1964 캐나다 발명가·실업가. 캐나다 기반의 다국적 항공 우주·군수·운송 차량 제조 회사 봉바르디에(Bombardier Inc.) 설립자.
- 언도르, 라슬로 László Andor 1966~ 헝가리 경제학자. 유럽 연합(EU) 집행 위원(고용·사회 문제·동화 정책 담당)(2010. 2.~).
- 자오러지 趙樂際 Zhào Lèjì 1957~ 중국 정치가. 당조직부장(2012. 11.~). 산시(陝西)성 당서기(2007. 3.~2012. 11.). 리위안차오(李源潮) 부장의 후임.
- 파호르, 보루트 Borut Pahor 1963~ 슬로베니아 정치가. 대통령(2012. 12.~). 총리 겸 공공행정장관(2008. 11.~2012. 2.). 국민의회(하원) 의장(2000. 11.~2004. 7.).
- 룰리슈키, 무함마드 Muḥammad Lūlīshkī [Mohammed Loulichki] 아랍 어명: محمد لوليشكي 1952~ 모로코 외교관. 유엔 안보리 의장(2012. 12.~). 유엔 본부 주재 대사(2008. 11.~).
- 마두로 (모로스), 니콜라스 Nicolás Maduro (Moros) 1962~ 베네수

- 엘라 정치가. 부통령 겸 외무장관(2012. 10. ~), 외무장관(2006. 8. ~ 2012. 10.). 우고 차베스(Hugo Chávez) 대통령의 후계 후보자.
- 무어, 패트릭 Patrick Moore 본명 패트릭 앨프리드 콜드웰무어 Patrick Alfred Caldwell-Moore 1923~2012 영국 아마추어 천문학자·저술가·해설자. 1957년부터 비비시(BBC) 방송의 과학 프로그램 ‘스카이 앳 나이트(The Sky at Night)’를 50여 년간 진행. 세계 최장수 해설자로 유명. ‘혹성예의 여행(Mission to the Planets)’(1990) 등 100여 권의 천문학 관련 책을 저작·출판.
 - 바우만, 파트리크 Patrick Baumann 1967~ 스위스 체육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겸 국제농구연맹(FIBA) 사무총장. 농구 선수·심판 출신. 바젤(Basel) 태생.
 - 서디크, 래피얼 Raphael Saadiq 본명 찰스 레이 위긴스 Charles Ray Wiggins 1966~ 미국 가수·작곡가, 음반 제작자. 대표 음반 ‘더 웨이 아이 시 잇(The Way I See It)’(2008).
 - 안룬드, 크누트(에밀) Knut (Emil) Ahnlund 1923~2012 스웨덴 역사학자·저술가. 1983년 스웨덴 아카데미 회원으로 피선, 노벨 문학상 심사 위원.
 - 쟁야니 曾雅妮 Zēng Yǎní 1989~ 대만 골프 선수. 2012년 12월 현재 세계 여자 골프 랭킹(Rolex Rankings) 1위.
 - 파키아오, 매니 Manny Pacquiao 본명 에마누엘 다피드란 파키아오 Emmanuel Dapidran Pacquiao 1978~ 필리핀 정치가, 권투 선수. 세계 최초 통산 8체급 세계 챔피언. 하원 의원(2010. 5. ~).
 - 화춘잉 華春瑩 Huá Chūnyíng 1970~ 중국 여성 외교관. 외교부 보도관(2012. 11. ~), 부보도국장(2012). 외교부와 싱가포르, 유럽 연합(EU) 재외 공관 등에서 약 20년간 근무.

- 릴리카스, 요르고스 Yiorghos Lillikas 그리스 어명: Γιώργος Λιλλίκας 1960~ 키프로스 정치가. 외무장관(2006. 6.~2007. 7.), 상공(商工) 장관(2003~2006).
- 말라스, 스타브로스 Stavros Malas 그리스 어명: Σταύρος Μαλάς 1967~ 키프로스 정치가. 보건장관(2011. 8.~).
- 맥도너, 테니스(리처드) Denis R(ichard) McDonough 1969~ 미국 정치가. 대통령 수석보좌관(2013. 1.~). 대통령 부보좌관(국가안전보장 담당)(2010. 10.~2013. 1.). 외교·안전보장 전문가. 재무장관에 지명된 제이컵 루(Jacob Lew) 수석보좌관의 후임.
- 브레넌, 존(오언) John O(wen) Brennan 1955~ 미국 정치가. 대통령 보좌관(국토안보·테러대책 담당)(2009. 1.~). 중앙정보국(CIA)에서 중동의 테러 대책 전문가로 25년간 근무. 중앙정보국 국장 지명자.
- 시모무라 하쿠분 下村博文 1954~ 일본 정치가. 문부과학상(2012. 12.~). 전 관방부장관, 자민당 교육재생실행 본부장, 문무과학 정무관. 6선 중의원 의원.
- 쑨정차이 孫政才 Sūn Zhèngcái 1963~ 중국 정치가. 충칭(重慶)시 당서기(2012. 11.~). 정치국원. 전 지린(吉林)성 당서기, 농업부장. 차세대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핵심 인물.
- 아나스타시아디스, 니코스 Nikos Anastasiadis 그리스 어명: Νίκος Αναστασιάδης 1946~ 키프로스 정치가. 중도우파 정당 민주대회(DISY) 당수.
- 아발리얀, 보리스 (게오르기예비치) Boris (Georgievich) Abal'yan 러시아 어명: Борис Георгиевич Абальян 1947~ 러시아 지휘자.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교수. 한국 그라시아스 합창단 수석 지휘자.

- 오노테라 이쓰노리 小野寺五典 1960~ 일본 정치가. 방위상(2012. 12. ~). 전 외무정무관, 외무부상. 5선 중의원 의원.
- 젤마노프, 예핌 (이사코비치) Efim (Isaakovich) Zel'manov 러시아 어명: Ефим Исаакович Зельманов 1955~ 러시아 수학자. 1990년 미국에 이주.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SD) 교수. 한국 고등과학원(KIAS) 수학부 특훈 교수.
- 다무라 노리히사 田村憲久 1964~ 일본 정치가. 후생노동상(2012. 12. ~). 중의원 후생노동위원장, 후생노동정무관, 문과정무관, 총무부상. 6선 중의원 의원.
- 브라스 지아비스, *주앙 João Braz de Aviz 1947~ 바티칸 성직자. 추기경(2012. 2. ~). 수도회성(라틴어: Congregatio pro Institutis Vitae Consecratae et Societatibus Vitae Apostolicae) 장관(2011. 1. ~). 브라질 브라질리아(Brasília) 대주교(2004. 1. ~ 2011. 1.).
- 신도 요시타카 新藤義孝 1958~ 일본 정치가. 총무상(2012. 12. ~). 전 총무정무관, 외무정무관, 경산(經産)부상. 5선 중의원 의원.
- 우엘레트, 마르크 Marc Ouellet 1944~ 바티칸 성직자. 추기경(2003. 10. ~). 주교성(라틴어: Congregatio pro Episcopis) 장관(2010. 6. ~). 캐나다 퀘벡(Québec) 대주교(2002. 11. ~ 2010. 6.).
- 이나다 도모미 稲田朋美 1959~ 일본 여성 정치가. 행정개혁상(2012. 12. ~). 전 자민당 부간사장, 변호사. 3선 중의원 의원.
- 장이화 江宜樺 Jiāng Yīhuá 1960~ 대만 정치가·정치학자. 행정원장(2013. 2. ~). 행정원 부원장(2012. 2. ~ 2013. 2.), 내정부 부장(2009. 9. ~ 2012. 2.).
- 주얼, 샬리 Sally Jewell 구성 로피 Roffey 1955~ 미국 여성 기업 경영인. 영국 태생. 의류·장비 전문 업체 아르이아이(REI) 최고 경영자

- (2005~). 에너지와 기후 변동 문제 전문가. 내무장관 지명자.
- 코드레이, 리처드 Richard Cordray 1959~ 미국 정치가. 2011년 7월 신설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국장(2012. 1.~). 오하이오(Ohio)주 검찰총장(2009. 1.~2011. 1.). 국장 재지명자.
 - 타글레, 루이스 안토니오 Luis Antonio Tagle 1957~ 필리핀 성직자. 로마 가톨릭교회 추기경(2012. 11.~). 마닐라 대주교(2011. 12.~).
 - 후춘화 胡春華 Hú Chūnhuá 1963~ 중국 정치가. 광둥(廣東)성 위원회 서기(2012. 12.~).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 위원회 서기(2009. 11.~2012. 12.). 허베이(河北)성 성장(2008. 4.~2009. 11.).
 - 류옌둥 劉延東 Liú Yándōng 1945~ 중국 여성 정치가. 국무 위원(2008. 3.~). 공산당 정치국원(2007. 11.~). 박근혜 차기 대통령 취임식 참석 차 중국 대표로 내한(2013. 2.).
 - 슈바르첸베르크, 카렐 Karel Schwarzenberg 1937~ 체코 정치가. 부총리 겸 외무장관(2010. 7.~). 중도우파 정당 ‘티오피 영구(TOP 09)’ 당수. 외무장관(2007. 1.~2009. 5.). 하원 의원(2010. 5.~), 상원 의원(2004. 11.~2010. 5.).
 - 오타야키히로 太田昭宏 1945~ 일본 정치가. 국토교통상(2012. 12.~). 전 공명당 간사장 대행, 당 전국대표자회의 의장, 당대표(2006. 9.~2009. 8.). 6선 중의원 의원.
 - 위르겐스, 쿠르트(구스타프 안드레아스 고틀리프 프란츠) Curt (Gustav Andreas Gottlieb Franz) Jürgens 1915~1982 독일·오스트리아 배우. 영화 ‘영웅은 피곤해(Les héros sont fatigués)’(1955)로 제16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 수상(1955. 9.). 영어명은 ‘커트 여건스(Curt Jurgens)’.
 - 응우옌티조안 Nguyễn Thi Doan 1951~ 베트남 여성 정치가·교육

- 가. 국가 부주석(2007. 7. ~). 박근혜 차기 대통령 취임식 참석 차 베트남 대표로 내한(2013. 2.).
- 이시바시 쇼지로 石橋正二郎 1889~1976 일본 실업가. 다국적 타이어 제조 업체 브리지스톤(Bridgestone) 창업자.
 - 자이틀린, 벤 Benh Zeitlin 본명 벤저민 해럴드 자이틀린 Benjamin Harold Zeitlin 1982~ 미국 영화 제작자. 영화 ‘비스트(Beasts of the Southern Wild)’(2012)로 제65회 칸 국제영화제 황금카메라상(Caméra d'Or) 수상(2012. 5.).
 - 줌월트, 제임스 James P. Zumwalt ?~ 미국 외교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2011. 12. ~). 부친은 독일계, 모친은 스위스인.
 - 하토야마 야스코 鳩山安子 구성 이시바시 石橋 1922~2013 일본 자산가. 일본 유아이(友愛) 청년협회 명예 회장.
 - 간디, 라홀 Rahul Gandhi 힌디 어명: राहुल गांधी 1970~ 인도 정치가. 국민회의파(INC) 부총재(2013. 1. ~). 모친은 동 정당 총재 소냐 간디(Sonia Gandhi), 부친은 라지브 간디(Rajiv Gandhi) 전 총리, 조모는 인디라 간디(Indira Gandhi) 전 총리, 증조부는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
 - 네모토 다쿠미 根本匠 1951~ 일본 정치가. 부총재(2012. 12. ~), 내각부상(2002~2003), 총리보좌관(2006. 9. ~2007. 8., 2002. 10. ~2003. 9.). 6선 중의원 의원.
 - 디아스카넬 (베르무데스), 미겔 Miguel Díaz-Canel (Bermúdez) 1960~ 쿠바 정치가. 국가평의회 수석 부의장(2013. 2. ~), 부의장(2012. 3. ~2013. 2.). 고등교육장관(2008. 2. ~ 2009. 3.). 국가평의회 의장 라울 카스트로(Raúl Castro)의 유력 후계자.

- 로런스, 제니퍼 (슈레이더) Jennifer (Shrader) Lawrence 1990~ 미국 여배우. 영화 ‘실버라이닝 플레이북(Silver Linings Playbook)’(2012)으로 제85회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2013. 2.), 제70회 골든글로브상 영화 부문 여우주연상(드라마)(2013. 1.) 수상. 제65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신인배우상(Premio Marcello Mastroianni) 수상(2008. 8.).
- 마오즈궈 毛治國 Máo Zhiguó 1948~ 대만 정치가. 행정원 부원장(2013. 2.~). 동 교통부장(2008. 5.~2013. 2.).
- 모리 마사코 森雅子 본명 미요시 마사코 三好雅子 1964~ 일본 여성 정치가. 저출산·소비자상(2012. 12.~). 전 변호사, 자민당 부간사장. 초선 참의원 의원.
- 세메타, 알기르다스 (게디미나스) Algirdas (Gediminas) Šemeta 1962~ 리투아니아 경제 전문가·행정가. 유럽 연합(EU) 집행 위원(경제·관세 동맹·회계 감사담당: 2010. 2.~ , 재정 계획·예산 담당: 2009. 7.~2010. 2.). 재무장관(2008. 12.~2009. 6., 1997. 2.~1999. 6.).
- 야마모토 이치타 山本一太 1958~ 일본 정치가. 오키나와(沖縄)·북방, 과학기술상(2012. 12.~). 전 자민당 외교부 회장, 당 참의원 정책심의 회장, 외무부상. 3선 참의원 의원.
- 에리야 쭈타누깐 Eriya Cuthanukul [Ariya Jutanugarn] 타이 어명: เอริยา จูตันุกาน 1995~ 타이 여성 골프 선수.
- 트랩스, 넬레 Nele Trebs 1999~ 독일 배우. 여자 아역 배우.
- 가오후청 高虎城 Gao Hucheng 1951~ 중국 정치가. 상무부 당조 부서기(2009. 4.~), 부부장(2003~2009. 4.). 광시좡(廣西壯)족 자치구 부주석(2002. 9.~2003). 대외무역경제협력부(상무부 전신) 부장보좌관(1997. 5.~2002. 9.), 동 계획재무국 국장(1994. 11.~1997. 5.). 상무부장 내정자.

- 구로다 나쓰코 黒田夏子 1937~ 일본 여성 작가. 전 중학교 교사, 회사원. '에이비 산고(abさんご)'(2012)로 제148회 아쿠타가와(芥川)상(2013. 1.) 역대 최고령 수상자.
- 버웰, 실비아 매슈스 Sylvia Mathews Burwell 1965~ 미국 여성 정치가. 백악관 행정관리예산국(OMB) 국장 지명자(2013. 3.). 월마트(Walmart) 재단 이사장(2012. 1. ~). 빌 게이츠(Bill and Melinda Gates) 재단 최고 운영 책임자(COO)(2001~2006). 클린턴(Bill Clinton) 정부 행정관리예산국 부국장(1998~2001).
- 얀센, 켄리 Kenley Jansen 1987~ 네덜란드 야구 선수. 네덜란드령 퀴라소(Curaçao) 섬 태생. 투수. 미국 내셔널 리그(NL) 로스앤젤레스 다저스(Los Angeles Dodgers) 소속(2010. 7. ~).
- 위스로, 크리스 Chris Withrow 본명 크리스토퍼 위스로 Christopher Withrow 1989~ 미국 야구 선수. 투수. 로스앤젤레스 다저스(Los Angeles Dodgers) 2군 선수.
- 케냐타, 우후루 (무이가이) Uhuru (Muigai) Kenyatta 1961~ 케냐 정치가. 부총리(2008. 4. ~). 재무장관(2008. 4. ~ 2012. 1.). 조모 케냐타(Jomo Kenyatta) 초대 대통령의 아들. 2013년 대통령 선거 당선자. 인도에 관한 죄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소추되어 7월 공판 예정.
- 허랭, 에런 (마이클) Aaron (Michael) Harang 1978~ 미국 야구 선수. 투수. 로스앤젤레스 다저스(Los Angeles Dodgers) 소속(2011. 12. ~).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본선 대회 출전 팀 구성원>

가. 네덜란드 팀

- 선수

- 발렌틴, 블라디미르 Wladimir Balentien

- 보하르츠, 산더르 Xander Bogaerts
- 삼스, 칼리안 Kalian Sams
- 스타위프베르헌, 톰 Tom Stuifbergen
- 스타티아, 헤인리 Hainley Statia
- 스호프, 요나탄 Jonathan Schoop
- 시몬스, 안드렐톤 Andrelton Simmons
- 오뒤버르, 란돌프 Randolph Oduber
- 위르바누스, 닉 Nick Urbanus
- 이세니아, 요나탄 Jonatan Isenia
- 코르벨리서, 바이론 Bayron Cornelisse
- 판드릴, 베리 Berry van Driel

나. 오스트레일리아 팀

- 감독

- 디블, 존 Jon Deeble

- 선수

- 데닝, 미치 Mitch Dening
- 데산미겔, 앨런 Allan de San Miguel
- 데이비스, 조시 Josh Davies
- 러셀, 앤드루 Andrew Russell
- 로버츠, 조슈아 Joshua Roberts
- 롤런드스미스, 라이언 Ryan Rowland-Smith
- 루지치, 두샨 Dushan Ruzic
- 모일런, 피터 Peter Moylan

- 브라이트, 애덤 Adam Bright
- 설, 라이언 Ryan Searle
- 소폴드, 워릭 Warwick Saupold
- 스넬링, 크리스 Chris Snelling
- 애덤슨, 코리 Corey Adamson
- 옥스스프링, 크리스 Chris Oxspring
- 와이즈, 브렌던 Brendan Wise
- 워커, 마이크 Mike Walker
- 웰치, 스테판 Stefan Welch
- 윌리엄스, 매슈 Matthew Williams
- 케넬리, 맷 Matt Kennelly
- 케넬리, 팀 Tim Kennelly
- 켄트, 스티븐 Steven Kent
- 태너, 클레이턴 Clayton Tanner
- 토머스, 브래드 Brad Thomas
- 하먼, 브래드 Brad Harman
- 휴버, 저스틴 Justin Huber
- 휴스, 루크 Luke Hughes

다. 대만 팀

- 감독

- 세창형 謝長亨 Xie Changheng

- 선수

- 귀홍즈 郭泓志 Guo Hongzhi

- 뤼진룽 羅錦龍 Luo Jinlong
- 린한 林瀚 Lin Han
- 린홍위 林泓育 Lin Hongyu
- 양다이강 陽岱鋼 Yang Daigang
- 왕웨린 王躍霖 Wang Yuelin
- 왕이정 王溢正 Wang Yizheng
- 왕젠민 王建民 Wang Jianmin
- 왕징밍 王鏡銘 Wang Jingming
- 저우쓰치 周思齊 Zhou Siqi
- 정다홍 鄭達鴻 Zheng Dahong
- 천장휘 陳江和 Chen Jianghuo
- 쯡런훤 曾仁和 Zeng Renhuo

<2014 피파(FIFA)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출전 팀 구성원>

가. 카타르 팀

- 감독

- 사니, 파흐드 Fahd Thānī [Fahad Thani] 아랍 어명: فهد ثاني

- 선수

- 가님, 이브라힘 ʔIbrāhīm al Ghānim [Ibrahim Al-Ghanim]
아랍 어명: إبراهيم الغانم
- 마지드, 이브라힘 ʔIbrāhīm Mājid [Ibrahim Majid]
아랍 어명: إبراهيم ماجد
- 말리크, 바바 Bābā Mālik [Baba Malick] 아랍 어명: بابا مالك

- 무바라크, 마슈알 Mashʿal Mubārak [Meshal Mubarak]
아랍 어명: مشعل مبارك
- 무사, 무함마드 Muḥammad Mūsā [Mohammed Musa]
아랍 어명: محمد موسى
- 무프타흐, 칼리드 Khālīd Muftāḥ [Khalid Muftah]
아랍 어명: خالد مفتاح
- 무함마드, 빌랄 Bilāl Muḥammad [Bilal Mohammed]
아랍 어명: بلال محمد
- 부르한, 까심 Qāsim Burhān [Qasem Burhan] 아랍 어명: قاسم برهان
- 십, 사아드 Saʿd al Shīb [Saad Al Sheeb] 아랍 어명: سعد الشيب
- 싯디끄, 마즈디 Majdī Siddīq [Majdi Siddiq] 아랍 어명: مجدي صديق
- 이스마일, 하미드 Ḥāmid ʿIsmāʿīl [Hamid Ismail]
아랍 어명: حامد إسماعيل
- 자카리야, 타히르 Ṭāhir Zakarīyya [Taher Zakaria]
아랍 어명: طاهر زكريا
- 자키바, 칼리드 Khālīd al Zakībā [Khaled Al Zakiba]
아랍 어명: خالد الزكيبا
- 카솔라, 무함마드 Muḥammad Kāsūlā [Mohammed Kasola]
아랍 어명: محمد كسلولا
- 하마드, 마스아드 Masʿad al Ḥamad [Mesaad Al-Hamad]
아랍 어명: مسعد الحمد
- 하즈리, 사우드 Saʿūd al Hājirī [Saud Al Hajiri]
아랍 어명: سعود الهاجري
- 함자, 라잡 Rajab Ḥamzah [Rajab Hamza] 아랍 어명: رجب حمزة
- 라미, 아딜 ʿĀdil Lāmī [Adel Lami] 아랍 어명: عادل لامى

- 라자끄, 무함마드 Muḥammad Razāq [Mohammed Razak]
아랍 어명: محمد رزاق
- 리즈끄, 위삼 Wisām Rizq [Wesam Rizik] 아랍 어명: وسام رزق
- 마리, 자물라 Jārullāh al Marī [Jaralla Al-Marri]
아랍 어명: جار الله المري
- 무함마드, 마지드 Mājid Muḥammad [Magid Mohamed]
아랍 어명: ماجد محمد
- 발루시, 탈랄 Ṭalāl al Balūshī [Talal Al-Bloushi]
아랍 어명: طلال البلوشي
- 사이이드, 무함마드 Muḥammad al Sayyid [Mohamed El-Sayed]
아랍 어명: محمد السيد
- 술라이트, 압둘아지즈 ʿAbdulʿazīz al Sulayṭī [Abdulaziz Al Sulaiti]
아랍 어명: عبد العزيز السليطي
- 시함, 후사인 알리 Ḥusayn ʿAlī Shihāb [Hussain Ali Shehab]
아랍 어명: حسين علي شهاب
- 아피파, 압둘라 ʿAbdullāh ʿAfīfah [Abdulla Afifa]
아랍 어명: عبد الله عفيفة
- 아흐마드, 유수프 Yūsuf ʿAḥmad [Yusef Ahmed]
아랍 어명: يوسف أحمد
- 알리, 유니스 Yūnis ʿAlī [Younes Ali] 아랍 어명: يونس علي
- 야시르, 후사인 Ḥusayn Yāsir [Hussein Yasser]
아랍 어명: حسين ياسر
- 야지디, 압두르랍브 ʿAbdurabb al Yazīdī [Abdurabb Al Yazeedi]
아랍 어명: عبد الرب اليزيدي
- 우마르, 무함마드 Muḥammad ʿumar [Mohamed Omar]

아랍 어명: محمد عمر

- 이브라힘, 칼판 Khalfān ʾIbrāhīm (Khalfan Ibrahim)

아랍 어명: خلفان إبراهيم

- 하이두스, 하산 Ḥasan al Ḥaydūs (Hassan Al Haidos)

아랍 어명: حسن الحيدوس

- 하탐, 압둘아지즈 ʿAbdulʿazīz Ḥātām (Abdulaziz Hatem)

아랍 어명: عبد العزيز حاتم

[일반용어]

- 크리에이티브 코먼스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저작물 사용 허가 표시. 저작권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몇 가지 이용 방법과 조건을 붙여 타인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 허락 표시 제도 또는 운동.
- 하토 HATO 일본어명: ハト 태풍 이름. 제45차 태풍위원회 총회(2013. 1. 29. ~ 2. 1.)에서 2011년 필리핀에 큰 피해를 준 태풍 와시(WASHI)의 이름을 하토(HATO)로 변경하기로 결정.

제107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정안

(2013. 3. 21.)

[인명] - 실무소위 부결

- 잣삼, 잇죽딘 ʿIzzuddīn al Qassām (Izz ad-Din al-Qassam) 아랍 어명: عز الدين القسام 1882~1935 시리아·팔레스타인 종교 지도자·정치 활동가. 팔레스타인에서 반영국·반сион주의 저항 운동을 주도.

- 러베이다, 윌리엄 (조지프) William (Joseph) Levada 1936~ 미국 성직자. 로마 가톨릭교회 추기경(2006. 3. ~).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2005. 5. ~ 2012. 7.).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대주교(1995~2005), 포틀랜드(Portland) 대주교(1986~1995). 증조부가 포르투갈 출신.
- 러브, 버넌 Vernon F. Loeb ?1956~ 미국 언론인·저술가.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지 미 국방부 관련 보도 담당 편집자(2011~).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David Petraeus)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전기 ‘올인: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장군의 교육(All In: The Education of General David Petraeus)’(2012)을 폴라 브로드웰(Paula Broadwell)과 공동 집필.
- 머추너스, 조지 George Maciunas 리투아니아 어명: Jurgis Mačiūnas 1931~1978 미국 미술가. 리투아니아 카우나스(Kaunas) 태생, 1948년 미국에 이주. 전위 예술의 한 사조로서 여러 예술 매체의 융합이 특징인 플럭서스(Fluxus) 운동의 창시자.
- 뮐러, 게르하르트 루트비히 Gerhard Ludwig Müller 1947~ 바티칸 성직자. 대주교, 신학자. 독일 마인츠(Mainz) 태생. 신앙교리성 장관(2012. 7. ~). 전 레겐스부르크(Regensburg) 교구장. 미국 출신 윌리엄 조지프 러베이다(William Joseph Levada) 추기경의 후임.
- 브로드웰, 폴라 (딘) Paula (Dean) Broadwell 구성 크랜츠 Kranz 1972~ 미국 여성 저술가, 군사 전문가. 육군사관학교(West Point) 출신의 예비역 중령으로, 동교에서 국제 안보를 강의하는 대테러 전문가.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David Petraeus)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전기 ‘올인: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장군의 교육(All In: The Education of General David Petraeus)’(2012)을 워싱턴 포스트

(Washington Post)지 버넌 러브(Vernon Loeb)와 공동 집필.

- 상카르, 라비 Ravi Shankar 힌디 어명: रवि शंकर 1920~2012 인도 음악가·작곡가. 전통 현악기 시타르(sitar)의 세계적인 연주자. 그래미상 3회 수상(2002, 1973, 1968). 제55회 그래미상 특별상 부문 평생 공로상, 세계 음악 부문 최우수 세계 음악 음반상 수상(2013. 2.). 미국 가수 노라 존스(Norah Jones)의 부친. 벵골 어명은 ‘로비 송코르(Rôbi Shôngkôr; রবি শংকর)’.
- 상카르, 우다이 Uday Shankar 힌디 어명: उदय शंकर 1900~1977 인도 무용가·안무가. 1920년대에 발레리나 안나 파블로바(Anna Pavlova)와 공연, 그녀를 위한 무용 작품도 창작. 인도 전통 무용을 구미 등에 널리 소개. 시타르(Sitar) 주자 라비 상카르(Ravi Shankar)의 맏형. 벵골 어명은 ‘우도에 송코르(Udôe Shôngkôr; উদয় শংকর)’.
- 세레르, 오질루 (페드루) Odilo (Pedro) Scherer 1949~ 브라질 성직자. 로마 가톨릭교회 추기경(2007. 11. ~). 상파울루(São Paulo) 대주교(2007. 3. ~). 양친이 독일 집안 출신.
- 아만푸어, 크리스티안 Christiane Amanpour 페르시아 어명: کریستیان امانپور 1958~ 영국 여성 방송인. 미국 시엔엔(CNN) 방송 진행자(2011. 12. ~). 미국 에이비시(ABC) 방송 진행자(2010~2011), 시엔엔 방송 국제 전문 기자(1992~2010). 런던에서 이란인 부친과 영국인 모친에게서 출생, 11세까지 이란 테헤란(Teheran)에서 성장.
- 올리리, 맷 Matt O’Leary 본명 매슈 조지프 올리리 Matthew Joseph O’Leary 1987~ 미국 배우.
- 월리스, 퀴벤저네이 Quvenzhane Wallis 2003~ 미국 배우. 여자 아역 배우. 영화 ‘비스트(Beasts of the Southern Wild)’(2012)로 제85회 아카데미상 시상식(2013. 2.)에서 역대 최연소 여우주연상 후보.

- 월터, 엘리스 Elisse B. Walter 1950~ 미국 여성 경제인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2012. 12. ~ ; 대항 2009. 1.), 동 위원(2008. 7. ~2012. 12.), 메리 샤프로(Mary Schapiro) 위원장(2009. 1. ~2012. 12.)의 후임.
- 이시어, 앤드리 (에버렛) Andre (Everett) Ethier 1982~ 미국 야구 선수. 외야수. 로스앤젤레스 다저스(Los Angeles Dodgers) 소속(2006. 5. ~).
- 커푸어, 애니시 Anish Kapoor 힌디 어명: अनीश कपूर 1954~ 영국 조각가. 인도 뭄바이에서 인도인 부친과 유대인 모친에게서 출생. 1973년 영국에 이주.
- *케네디, 캐럴라인 (부비어) Caroline (Bouvier) Kennedy 1957~ 미국 법조인·저술가. 고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과 재클린(Jacqueline Bouvier) 여사의 딸. 일본 주재 대사 유력 후보.
- 페더로비치, 팀 Tim Federowicz 본명 티머시 조지프 페더로비치 Timothy Joseph Federowicz 1987~ 미국 야구 선수. 포수. 로스앤젤레스 다저스(Los Angeles Dodgers) 소속(2011. 9. ~).
- 피닉스, 호아킨 (라파엘) Joaquin (Rafael) Phoenix 아명 리프 Leaf 1974~ 미국 배우. 푸에르토리코에서 미국인 부모에게서 출생, 6세에 가족이 미국에 이주. 영화 ‘양코르(Walk the Line)’(2005)로 제63회 골든글로브상 영화 부문 남우주연상(뮤지컬·코미디)(2006. 1.), 제49회 그래미(Grammy)상 영상 매체 사운드트랙상(2007. 2.), 영화 ‘마스터(The Master)’(2012)로 제69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2012. 9.) 수상.
- *피아졸라, 아스토르 (판탈레온) Ástor (Pantaleón) Piazzolla 1921~ 1992 아르헨티나 작곡가, 반도네온 연주자. 기존 탱고 음악에 재즈와 서양 고전 음악의 요소를 가미한 누에보 탱고(Nuevo Tango)의 선구자. 양친이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

- 헤이글, 척 Chuck Hagel 본명 찰스 티머시 헤이글 Charles Timothy Hagel
1946~ 미국 정치가. 국방장관(2013. 2. ~). 대통령 정보자문회의의 공동
의장(2009. 10. ~). 상원의원(공화· 네브래스카)(1997. 1. ~ 2009. 1.),
휴대 전화 통신사와 투자 은행 등의 실업가로도 활약.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본선 대회 출전 팀 구성원>

가. 네덜란드 팀

- 감독

- 뮐런스, 헨즐리 Hensley Meulens

- 선수

- 베르나디나, 로저 Roger Bernadina
- 스미스, 커트 Curt Smith
- 에인테마, 오를란도 Orlando Yntema
- 유르연스, 야이르 Jair Jurrjens
- 존스, 앤드루 Andruw Jones
- 키봄, 스펜서 Spencer Kieboom
- 프로파르, 유릭손 Jurickson Profar

나. 오스트레일리아 팀

- 선수

- 베리스퍼드, 제임스 James Beresford
- 캔딜러스, 데이비드 David Kandilas

<2014 피파(FIFA)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출전 팀 구성원>

가. 카타르 팀

- 선수

- 마르코니 Marcone 카타르 축구 선수. 2014 피파(FIFA)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카타르 팀 선수. 브라질 태생으로 카타르에 귀화. 포르투갈 어명. 아랍 어명은 ‘마라쿠니(Mārākūnī; ماراكوني)’.
- 무바라크, 아나스 ?Anas Mubārak [Anas Mubarak] 아랍 어명: أنس مبارك 로런스 퀘이(Lawrence Quaye)의 아랍 어명.
- 소리아, 세바스티안 Sebastián Soria 카타르 축구 선수. 2014 피파(FIFA)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카타르 팀 선수. 우루과이 태생으로 카타르에 귀화. 에스파냐 어명. 아랍 어명은 ‘시바스티안 수리아(Sībastiyyān Sūriyya; سورياسبيستان)’.
- 퀘이, 로런스 Lawrence Quaye 카타르 축구 선수. 2014 피파(FIFA)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카타르 팀 선수. 가나 태생으로 카타르에 귀화. 영어명.
- 파비우 세자르 Fábio César 카타르 축구 선수. 2014 피파(FIFA)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카타르 팀 선수. 브라질 태생으로 카타르에 귀화. 포르투갈 어명. 아랍 어명은 ‘파비우 시자르(Fābīwu Sīzār; فابيو سيزار)’.

[지명] - 실무소위 부결

- 샐티니케톤 Shantiniketôn [Santiniketan] 벵골 어명: শান্তিনিকেতন 인도 웨스트벵골(West Bengal) 주에 있는 대학 도시. 힌디 어명은 ‘샐티니케탄(Śāntiniketan; शान्तिनिकेतन)’.

[인명] - 새로 심의

- 프란치스코 Francisco 본명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 Jorge Mario Bergoglio 1936~ 바티칸 성직자. 제226대 로마 교황.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에서 이탈리아 출신 부친과 이탈리아계 모친에게서 출생.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주교(1998~2013), 추기경(2001. 2.), 아르헨티나 주교 협의회 의장(2005. 11.~2011. 11.). 교회 라틴 어명은 ‘프란치스쿠스(Franciscus)’, 영어명은 ‘프랜시스(Francis)’.
- 화이트, 메리 조 Mary Jo White 1947~ 미국 여성 법조인. 뉴욕 남 지구 연방검사(1993~2002).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지명자(2013. 1.). 엘리스 월터(Elisse Walter) 잠정위원장의 후임.

[일반용어] - 새로 심의

- *팝페라 popera 오페라를 팝처럼 부르거나 팝과 오페라를 넘나드는 음악 양식 또는 대중화한 오페라.

[인명] - 재심의

- 코이만스, 피터르 Kooijmans, Pieter H. 네덜란드 법률가. - 회의 24차
- 프레이 루이스타글레, 에두아르도 Frei Ruiz-Tagle, Eduardo 칠레의 전 대통령. - 회의 13차

11. 2012년 국립국어원 간행물 목록

간행물 등록 번호	제목
2012-01-01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길잡이
2012-01-02	2012년도 민족 생활어 조사 1
2012-01-03	2012년도 민족 생활어 조사 2
2012-01-04	2012년도 민족 생활어 조사 3
2012-01-05	2012년도 민족 생활어 조사 4
2012-01-06	2012년도 민족 생활어 조사 5
2012-01-07	2012년도 경기 지역어 전사
2012-01-08	2012년도 강원 지역어 전사
2012-01-09	2012년도 충북 지역어 전사
2012-01-10	2012년도 충남 지역어 전사
2012-01-11	2012년도 전북 지역어 전사
2012-01-12	2012년도 전남 지역어 전사
2012-01-13	2012년도 경북 지역어 전사
2012-01-14	2012년도 경남 지역어 전사
2012-01-15	2012년도 제주 지역어 전사
2012-01-16	2012년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전사
2012-01-17	지역 언어문화 축제 개최 보고서
2012-01-18	지역 언어문화 상품 개발 보고서
2012-01-19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
2012-01-20	국어 능력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2012-01-21	2012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 대회
2012-01-22	2012년 국어 정책 통계 조사
2012-01-23	한국어 교원 양성 및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2012-01-24	기자를 위한 신문 언어 길잡이
2012-01-25	2012년 신어 자료집
2012-01-26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 교원 대상 공동 연수회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12-01-27	국립국어원 2012 국제 학술 대회

간행물 등록 번호	제목
2012-01-28	한국어 교육 문법 표현 내용 개발 연구(1단계)
2012-01-29	세종 한국어 3, 4권 개발 연구 최종 보고서
2012-01-30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1단계)
2012-01-31	[부록]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1단계): 초급 단계 한국어 교육 어휘 목록 및 어휘 정보
2012-01-32	2012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활용 유통 지원 시스템 구축
2012-01-33	2012 어휘 의미 연계 정보 검색 시스템 확장 구축
2012-01-34	정치 용어의 수화 표준화 연구
2012-01-35	일상생활 수화 (5) 표준화 연구
2012-01-36	2012년 행정 기관 공공 언어 진단 I
2012-01-37	2012년 행정 기관 공공 언어 진단 II
2012-01-38	한국어 교재 분석·선택 기준 마련 및 시범 적용 연구
2012-01-39	새터민 구어 학습용 교육 자료 개발
2012-01-40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 표준 교재 개발(초등 과정)
2012-01-41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1
2012-01-42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2
2012-01-43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 표준 교재 개발·제작(중등, 고등 과정)
2012-01-44	중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1
2012-01-45	중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2
2012-01-46	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1
2012-01-47	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2
2012-01-48	오염된 청소년 언어 이렇게 개선했어요
2012-01-49	(청소년 수련 시설 및 초중고교용)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2012-01-50	일본어 투 어휘 자료 구축
2012-01-51	2012년 방송의 저품격 언어 사용 실태 조사
2012-01-52	2012 한글 문화유산 정보 지원 시스템 구축
2012-01-53	2012년도 디지털 한글박물관 특별 기획전 사이트 개발 완료 보고서
2012-01-54	한국 점자 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실증 연구
2012-01-55	한국 점자 규정 제정에 관한 기초 연구
2012-01-56	점역·교정사 양성을 위한 영어 점자 교재 개발 연구

간행물 등록 번호	제목
2012-01-57	유니코드 문자 음성 출력과 점자 표기 방안 현장 적용 연구
2012-01-58	2012년 주요 외국 인명과 지명의 한글 표기 구축<1, 2, 3>
2012-01-59	표준 발음법 영향 평가
2012-03-01	제1회 공공 언어 교육 강사 연수회 자료집
2012-03-02	바른 국어 생활—국어문화학교 공무원/일반인 과정 교재
2012-03-03	청소년을 위한 바른 국어 생활
2012-03-04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연수—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2012-03-05	북한 이탈 주민 언어 적응 지원을 위한 북한 이탈 주민 교사 연수 교재
2012-03-06	(공공 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교재) 바르고 쉬운 공공 언어
2012-03-07	제6회 국어문화학교 강사 연수회 자료집
2012-03-08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교재 2
2012-03-09	바른 국어 생활—교사 직무 연수 교재
2012-03-10	바른 국어 생활—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2012-03-11	바른 국어 생활—국어 전문 교육 과정 교재
2012-03-12	독서와 국어 능력 향상—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 특별 과정 교재
2012-03-13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5 교원용 지침서
2012-03-14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6 교원용 지침서
2012-03-15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쓱쓱! 국어 교실
2012-03-16	몽골 울란바토르 1, 2 세종학당 주최 한국어 교육자 연수회 교재
2012-03-17	북한 이탈 주민 언어 적응 지원을 위한 북한 이탈 주민 지원 교사 연수 교재
2012-03-18	제7회 국어문화학교 강사 연수회 자료집
2012-03-19	세종 한국어 3
2012-03-20	세종 한국어 4

II. 국립국어원 교육과 홍보

1. 2013년 국어문화학교 운영

1.1. 2013년 상반기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강좌 신청

국립국어원에서는 ‘우리말 우리글 바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어원 안에서 시행하는 ‘국어전문교육과정’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중소 도시, 낙도, 벽지를 가리지 않고 무료로 국어 전문가들이 찾아가 여러분의 국어 생활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방문 강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최 기간: 2013년 상반기(1월 ~ 6월 중)
- 신청 지역: 전국
- 수강 인원: 1회에 30명 이상
- 개최에 따른 강사료 등 국립국어원 부담(연 2회)
 - 교재: 무료 제공(인원수에 맞게 신청 바람)
- 개최 장소: 해당 지역 소재 공공장소(강의실, 강당, 구민회관 등) 활용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 ‘국어문화학교’에서 온라인 신청
- 연락처: 02-2669-9752, 02-2669-9729 / 전송: 02-2669-9787

※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누리집(edu.korean.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대학 강사의 국어 사용 능력 증진을 위한 한국어 어문 규정 특별 과정 운영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에서는 원활한 의사소통 및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 방안의 하나로 대학에서 한국어 어문 규정 교육 및 국어 관련 교양 과정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학 교양 국어 강사 대상 국어문화학교 특별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 과정명: 대학 강사의 국어 사용 능력 증진을 위한 한국어 어문 규정 특별 과정
- 개설 기간: 2013. 2. 18.(월) ~ 2. 20.(수) (3일간 20시간, 8강좌)
- 대상: 각 대학 소속 교양 국어 강사 등 40여 명
- 장소: 국립국어원 3층 국어문화학교 강의실
- 수강료: 없음(교재 및 교육 자료 무료 제공)
- 과정 내용

강좌명	강사(소속)	내용
(대학에서) 한국어 어문 규정 교육의 과제	민현식(국립국어원 원장)	국어 교육 내의 한국어 어문 규정 교육의 현황과 교육 의의 등을 살핌
한글 맞춤법의 이해와 실제 1, 2	정호성 (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장)	한글 맞춤법 전체 조항에 대한 설명과 실습
표준어와 바른 표현	이선웅(경희대 교수)	표준어와 바른 어휘 사용에 대한 설명과 실습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 로마자 표기법	정희원(국립국어원 어문연구팀장)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설명과 실습
띄어쓰기의 이해와 실제	유하라(국립국어원 전문 위원)	띄어쓰기에 대한 설명과 실습
대학 교양 국어와 어문 규정 교육 구성	이재성(서울여대 교수)	대학 교양 국어 강좌(글쓰기와 말하기 등) 교수·학습 구성과 한국어 어문 규정 교육 연계 방안 및 구체적인 강의 사례 제시

강좌명	강사(소속)	내용
국어 사전과 국어 정보 활용법	김한샘(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대학 교양국어 교수·학습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국어대사전의 기능과 다양한 국어 정보 등을 강의
총 8강좌 20시간		

1.3. 2013년 3월 국어문화학교 운영

2013년 3월(제275기, 제276기)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가. 수강자 명단: 제275기, 제276기

나. 교육 기간

- 제275기: 2013. 3. 11.(월)~3. 15.(금) (5일간 35시간, 비합숙)
- 제276기: 2013. 3. 18.(월)~3. 22.(금) (5일간 35시간, 비합숙)

다. 이수 강좌: ‘국어 어문 규정’ 등 국어 관련 약 20개 강좌

라. 교육 내용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 우리말 다듬기,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협력적 의사소통, 한글의 창제 원리와 한글의 우수성, 공문서 바로 쓰기, 생활 글쓰기 등

마. 교육 장소: 국립국어원(1층 강당, 중1층 세미나실, 3층 강의실)

바. 수강료 관련

- 교육비: 120,000원(수강료+교재비: 100,000원, 점심값(5일): 20,000원)

2. 2013년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2.1. 2013년도 제1차 한국어 교원 개인 자격 심사 계획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1차 한국어 교원 개인 자격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1. 자격 심사 대상(요건) 및 제출 서류

가. 1급 심사 신청

대상	신청 등급·유형	제출 서류 (자격 심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출력)
한국어 교원 2급을 취득한 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 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는 사람	1급-12번 (경력에 따른 승급)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 교육 경력 증명서 (시행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1급-12번」: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제13조 제2항)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부설 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외국 정부 기관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5.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시된 기관
- 재단 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인중 세종학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지방 자치 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나. 2급 심사 신청

대상	신청 등급·유형	제출 서류 (자격 심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출력)
2005. 7. 28. 후에 대학(원) 입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 학위 취득자 (영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	2급-9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졸업(학위) 증명서 ③ 성적 증명서 ④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6급 합격증 *외국 국적자에 한함.
2005. 7. 28. 전에 대학(원) 입학 또는 졸업한 자 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 학위 취득 자 (영 제13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2급-1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졸업(학위) 증명서 ③ 성적 증명서 ④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6급 합격증 *외국 국적자에 한함.
한국어 교원 3급인 자(부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 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 한 사람으로서 총 1천2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 육 경력이 있는 자(영 제13조 제1항 제2호 라목)	2급-13번 (경력에 따른 승급)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 교육 경력 증명서 (시행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한국어 교원 3급인 자(양성 과정을 이수한 후 한 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 한국어 교 육 능력 인증 시험에 합격한 자, 한국어 교육 경력 이 800시간 이상인 자)로서 한국어 교원 3급 자 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2천 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이 있는 자 (영 제13조 제1항 제2호 마목)	2급-14번 (경력에 따른 승급)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 교육 경력 증명서 (시행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2급-13번」, 「2급-14번」: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
(영 제13조 제2항)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부설 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외국 정부 기관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5.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시된 기관
- 재단 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인중 세종학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지방 자치 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 3급 심사 신청

-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05. 7. 28.) 이후에 대학 입학(부전공),
양성 과정 등록

대상	신청 등급-유형	제출 서류 (자격 심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출력)
'05. 7. 28. 후에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한 자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 어 교육 분야 부전공자 (영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	3급-10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졸업(학위) 증명서 ③ 성적 증명서 ④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6급 합격증 *외국 국적자에 한함.
'05. 7. 28. 후에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에 등록하여 이수한 후,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응시하여 합 격한 사람 (영 제13조 제1항 제3호 나목)	3급-11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이수 증명서 (시행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③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 합격 확인서(필기, 면접)

※ 양성 과정 이수 증명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 합격 확인서는 <http://www.q-net.or.kr/site/koreanedu>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합격 확인서
(필기, 면접)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필수 이수 학점 미취득자의 자격 부여 조치

- ① 대상: 시행령(제정) 시행 이후(2005. 7. 28.)부터 2010년 12월 14일
까지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어 교육
분야를 전공, 복수 전공, 부전공으로 대학(원)을 졸업한 자
- ② 내용: 졸업 후에 부족한 필수 이수 학점을 취득한 경우 심의하여 자
격 부여
- ③ 기준: 교과목의 영역 착오, 필수 이수 학점 계산 착오 등의 실수가 명

백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최소 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대학 6학점, 대학원 3학점 이내)

-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05. 7. 28.) 이전에 대학(원) 입학 등(경과 조치 적용 대상)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학과)의 개설 시점이 시행령 시행('05. 7. 28.) 이전인 경우에 한함.

대 상	신청 등급·유형	제출 서류 (자격 심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출력)
'05. 7. 28. 전에 대학 입학 또는 졸업한 자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 부전공자(영 제13조 제1항 제3호 바목)	3급-2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졸업(학위) 증명서 ③ 성적 증명서 ④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6급 합격증 *외국 국적자에 한함.
'05. 7. 28. 전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경력이 800시간 이상인 자(국내 외의 대학·부설 기관, 초·중·고교 및 정 부 기관) (영 제13조 제1항 제3호 바목)	3급-5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강의 기간 및 시수를 명시한 경력 증명 서(시행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해외 경력의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반드시 해당 언어로 경력 증명서를 발 급받고, 이를 번역하여 공증받은 것만 인정함.
'05. 7. 28. 전에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실 시한 '한국어 교육 능력 인증 시험('02 ~'04)' 에 합격한 자 (영 제13조 제1항 제3호 바목)	3급-6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 교육 능력 인증 시험 합격 증명서
'05. 7. 28. 전에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에 등록 또는 이수한 자로서, '한국어 교육 능 력 검정 시험('06년 이후)'에 합격한 자 (영 제13조 제1항 제3호 사목)	3급-7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이수 증명서(시 행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③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 합격 확인 서(필기, 면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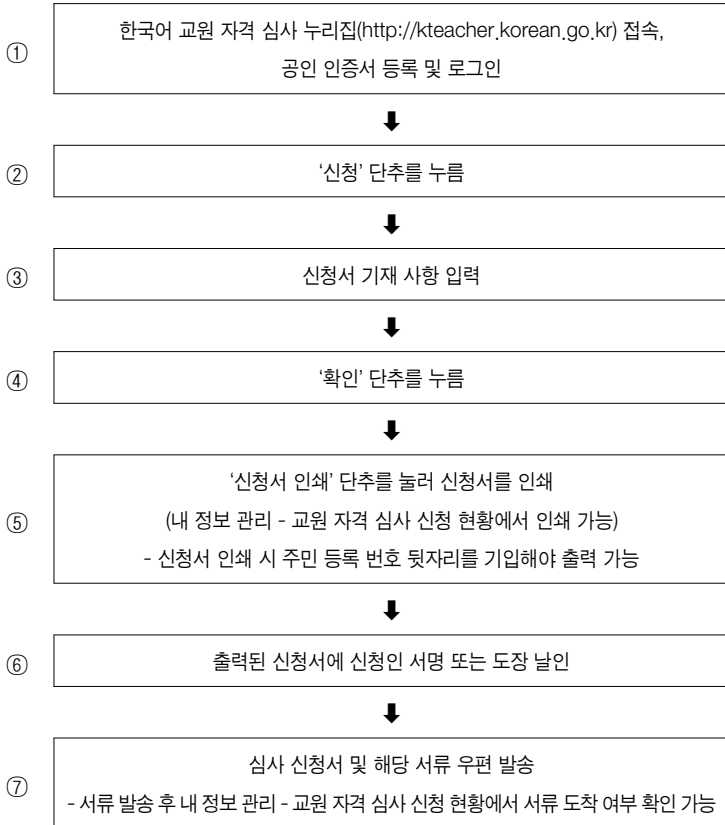
※ 「3급-5번」: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영 제13조 제2항)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부설 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외국 정부 기관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5.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시된 기관

- 재단 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인중 세종학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지방 자치 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심사 신청 절차



3. 신청 접수 기간

2013. 2. 25.(월) ~ 2013. 3. 11.(월)

4. 신청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후 우편 접수

- 해당 기간 안에 반드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서류 발송이 완료되어야 심사 신청이 최종 접수됨.

-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발송 바람.(일반 우편으로 발송하여 서류가 분실될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2013. 3. 11.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하므로 해당 날짜의 소인이 찍혀 있으면 그 이후에 도착한 서류도 인정함.
- 주소: (우)157-857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방화3동 827) 국립국어원 2층
한국어교육진흥과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 혹은 전자 우편(kteacher@korea.kr)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서류 작성 및 신청 시 유의 사항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심사 대상 및 제출 서류' 참조)

가. 심사 신청서상 내용 누락 시

예시) 사진(신청서 작성 시 사진 첨부가 어려울 경우 인쇄된 신청서에 사진 부착), 신청인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 번호 13자리, 신청 등급, 자격증 번호(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등

나. '1급-12번', '2급-13번', '2급-14번', '3급-5번': 경력 증명서 제출 시 유의 사항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 증명서는 '시행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첨부 문서 참조)에 맞게 작성된 것만 유효합니다.(이외 서식 인정 불가)
- 해외 경력의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급받고,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서 발급한 경력 증명서는 발급자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 연락처는 기관의 담당 부서 전화 번호 및 전자 우편 주소를 기입 요망.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개인 휴대폰, 개인 전자 우편 계정)는 불가함.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사실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연락처 기재 요망.)

다. '3급-11번':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이수 증명서 제출 시 유의 사항

- 양성 과정 개설 기관에서 발급한 모든 이수 증명서는 '시행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첨부 문서 참조)에 맞춰 영역별 이수 과목, 이수 시간, 총 이수 시간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이외 서식 인정 불가)

6. 심사 절차 및 결과 발표

- 심사 절차: 국립국어원에서 신청자별 자격 요건 및 서류 등을 검토하고, 국립국어원 및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 심사 후 확정
- 심사 결과 발표: 2013. 4. 19.(금)/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사정에 의해 발표가 연기될 수 있음.
- 자격증 교부 시기: 2013년 5월 초
 -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주 후에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발송 예정

7. 기타 사항

- 제출하신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만 인정됩니다.
(단, 한국어 교육 능력 인증 시험 합격 증명서 및 한국어 능력 시험 6급 합격증은 사본 인정 가능)
 -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자격증 교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Ⅲ. 국립국어원 인사 발령

1. 전보 발령

황용주(학예연구사): 공공언어지원단 → 언어정보팀(1월 1일)

유병도(사서주사): 언어정보팀 → 어문연구팀(1월 24일)

안경자(행정주사보): 기획관리과 → 언어정보팀(1월 29일)

정희원(학예연구관): 어문연구팀장 → 한국어교육진흥과장 직무 대리
(겸임)(2월 12일)

진영미(기능7급): 공공언어지원단 →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3월 15일)

김미경(기능8급):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실 → 공공언어지원단(3월 15일)

2. 재임용

이유원(한시계약직 6호): 언어정보팀 근무 연장(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손지은(한시계약직 6호): 언어정보팀 근무 연장(2013년 2월 20일부터
2014년 2월 19일까지)

박주화(한시계약직 6호): 공공언어지원단 근무 연장(2013년 2월 27일
부터 2014년 2월 26일까지)

3. 휴직

김원희(학예연구관): 육아 휴직(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까지)

최보영(행정서기): 육아 휴직(2013년 3월 4일부터 2013년 9월 3일까지)

4. 복직

구지민(학예연구사): 언어정보팀(1월 3일)

5. 퇴직

김길명(서기관): 한국어교육진흥과장 → 부이사관 승진, 명예퇴직
(2월 12일)

조태린(학예연구관): 한국어교육진흥과 → 의원 면직(3월 4일)

